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요한계시록

REV · 예언서(신약) · 헬라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22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요한계시록 1장

REV-001 · 예언서(신약) · 헬라어

계시의 서막 — 예수 그리스도의 apokalypsis(계시)가 열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가 밧모 섬 요한에게 나타나신다. 일곱 촛대 사이에 서신 인자 같은 이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손에 쥐고 고난받는 교회에 쓰고 보내라 명하신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예언·서신.
- 무대 두 층: 서신 형식 인사 무대(1-11절) / 밧모 섬 환상 무대(12-20절).
- 배경: 요한이 밧모 섬에 있음 —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언 때문(9절).
- 소품: 일곱 금 촛대·일곱 별·금 띠·흰 머리카락·불꽃 같은 눈·풀무 같은 발·날선 검·해같이 빛나는 얼굴.
- 반복 소재: "일곱"(4절·11절·12절·13절·16절·20절 — 일곱 교회·일곱 영·일곱 촛대·일곱 별).
- 인물: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사자(천사)·요한·일곱 교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서막이 열리는 느낌 — 강한 선언으로 시작.
-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 선포적 어조로 공기 전환.
- 10절 "성령에 감동"부터 환상 무대로 전환 — 긴장감 상승.
- 17절 요한이 발 앞에 쓰러짐 — 압도적 현현 앞의 인간 반응.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 20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 계시의 기원 선언(1절) → 계시 소품의 해석 선언(20절).
- 시작은 계시의 출처·경로, 끝은 환상 소품의 정체 해명.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사자)·요한·일곱 교회.
- 상황: 요한이 밧모에서 성령 감동 →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 → 일곱 금 촛대 환상 → 인자 같은 이의 현현 → 발 앞에 쓰러짐 →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 사상 핵: 5절 세 칭호(충성된 증인·죽은 자 가운데 먼저·임금들의 머리), 8절 알파와 오메가·pantokrator, 17-18절 처음이요 마지막·사망과 음부의 열쇠.

- 계시 전달 경로: 하나님 → 그리스도 → 사자 → 요한 → 일곱 교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서론 — 계시의 기원·경로·첫 번째 복 선언.
- 컷 2 (4-8절): 일곱 교회 인사 — 알파와 오메가·pantokrator 선언.
- 컷 3 (9-11절): 배경 — 밋모 섬·성령 감동·기록하라는 명령.
- 컷 4 (12-20절): 인자 같은 이의 현현 — 모습 묘사·"두려워하지 말라"·사망과 음부의 열쇠·일곱 별·촛대 해석.

6 — (1) 원어 카드

- apokalypsis(ἀποκάλυψις) — 계시·베일을 벗기다·드러내다. 1절.
- pantokrator(παντοκράτωρ) — 전능자·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8절.
- martys(μάρτυς) — 증인·순교자. 5절.
- makarios(μακάριος) — 복 있는. 3절.
- lysanti(λύσαντι) — 풀어 놓다·해방하다. 5절.
- angelos(ἄγγελος) — 사자·천사. 1절·20절.

6 — (2) 문학 구조

- 서론(1-3) → 인사(4-8) → 배경(9-11) → 현현(12-20) — 순차적 전개.
- 1절(계시의 기원) ↔ 20절(계시의 해석) — 수미 구조.
- "일곱" 반복 구조 — 일곱 교회·일곱 영·일곱 촛대·일곱 별이 1장에서 먼저 등장.
- 17-18절 자기 선언의 삼중 구조: 처음이요 나중 / 살아 있는 자(전에 죽었었노라) / 사망과 음부의 열쇠.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밋모 섬 — 소아시아 에게해의 섬. 로마 시대 유배지로 알려짐(배경 자료로만).
- 다니엘 7:9-14의 인자 이미지와 1장의 묘사(흰 머리·불꽃 같은 눈)가 평행함(배경 자료로만).
- "주의 날"(10절) — 초기 기독교 예배의 날로 알려진 배경(배경 자료로만).
- martys는 신약 시대 이후 "순교자"라는 의미가 강해진 단어(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1:8 ↔ 계 21:6·22:13 (알파와 오메가 반복)
- 계 1:12-16 ↔ 단 7:9-14 (인자 같은 이 이미지 평행)
- 계 1:5 ↔ 계 3:14 (충성된 증인 반복)
- 계 1:17-18 ↔ 사 44:6 (처음이요 마지막 — 이사야 자기 선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요한에게 전달된다. 읽는 자·듣는 자·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한다. 일곱 교회에 인사하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하나님과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빈다. 알파와 오메가 선언이 이어진다. 요한이 자신을 소개한다 — 밋모 섬에 있는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

음에 동참하는 형제.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를 듣는다 —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돌이키니 일곱 금 촛대가 보이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다. 발 아래까지 드리운 옷·금 띠·흰 머리카락·불꽃 같은 눈·풀무 같은 발·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오른손의 일곱 별·입의 날 선 검·해같이 빛나는 얼굴. 요한이 엎드려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해석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인자 같은 이 — 일곱 촛대 사이에 서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
- 초벌 부제: "Apokalypsis —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처음이요 마지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apokalypsis·pantokrator·martys·makarios·lysanti·angelo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밧모 섬 배경, 다니엘 7 평행, martys 의미 변화)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일곱 영"(4절)의 정체(정체를 단정하지 않도록 → 미해결 질문으로.
- 인자 같은 이의 묘사와 다니엘 7의 관계를 단정하지 않도록 → 배경 자료로만.
- "사자(angelos)"의 정체(천사/지도자)를 단정하지 않도록 → 미해결 질문으로.
- 밧모 섬의 역사적 성격을 종말 도식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 배경 자료로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apokalypsis(계시)의 기원과 전달 경로를 밝히고 일곱 교회에 인사하며 알파와 오메가를 선언한 뒤, 밧모 섬 유배 중의 요한에게 인자 같은 이가 일곱 촛대 사이에 나타나 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선언하며 일곱 별과 촛대가 일곱 교회임을 밝히는 장이다.

한 문단: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고, 사자를 통해 요한에게 전하신다. 이 예언을 읽는 자·듣는 자·지키는 자에게 복(makarios)이 있다. 일곱 교회에 인사하며 "충성된 증인(martys)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pantokrator(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선언한다. 요한은 밧모 섬에 있다 —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이다.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 일곱 금 촛대와 그 사이의 인자 같은 이를 본다. 그 앞에 쓰러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신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임을 밝히며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장르: 묵시·서신. 소품: 일곱 촛대·별·금 띠·불꽃 눈·날선 검. "일곱" 반복(교회·영·촛대·별).
2 첫 느낌·분위기	계시 선언으로 서막 열림. 10절 환상 무대 전환. 17절 압도적 현현 앞 인간 반응.
3 시작과 끝	시작: 계시의 기원(1절). 끝: 일곱 별·촛대 해석(20절). 기원→해석 수미 구조.
4 등장인물·상황·사상	인물: 하나님·그리스도·요한·일곱 교회. 사상 핵: 세 칭호(5절)·알파오메가·사망과 음부의 열쇠.
5 장면 컷	컷1 서론(1-3), 컷2 인사(4-8), 컷3 배경(9-11), 컷4 현현(12-20).
6 의문·발견·정보	첫 번째 복(3절). 일곱 영 미확정. 사자 정체 미확정. 다니엘 7 평행 관찰.
7 동영상	계시 경로→인사·선언→밧모·성령 감동→인자 현현→두려워하지 말라→사망 열쇠→해석.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인자 같은 이 — 일곱 촛대 사이에 서사". 부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처음이요 마지막".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18절) 앞에 섬.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림.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계시 전달 경로의 명시:** 1절에서 하나님→그리스도→사자→요한→일곱 교회의 경로가 명시된다. 이 경로는 계시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처음부터 세운다.
- 결 2 — 세 개의 이름:**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 칭호로 소개된다 — 충성된 증인(martys)·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세 칭호가 계시록 전체의 그리스도론 기초를 놓는다.
- 결 3 — 사망과 음부의 열쇠:** 18절에서 "전에 죽었었노라"와 "세세토록 살아 있어"가 나란히 선언된다. 그 결과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다. 죽음과 부활이 열쇠의 근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1:8 ↔ 계 22:13 (알파와 오메가·처음과 마지막 반복), 계 1:5 ↔ 계 3:14 (충성된 증인 반복).
- 다른 권 — 단 7:9-14 (인자 이미지 평행), 사 44:6 (처음이요 마지막 — 이사야 선언).
- REV 흐름 — 1장에서 소개된 일곱 촛대·별이 2-3장의 일곱 교회 편지의 수신처를 세팅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요한처럼 고난과 증언의 자리에서 이 편지를 받는 자로 앉는다.
- 멈춤 1: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3절) — 읽는 이 순간이 복의 자리라는 것 앞에 멈춘다.
- 멈춤 2: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7절) — 선포 앞에 멈춘다.
- 멈춤 3: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17-18절) — 사망을 넘어선 주권 앞에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곱 촛대 사이에서 계신 인자 같은 이 앞에서, 고난받는 교회의 자리가 그 빛 아래 있음을 본다.

F· 자족성 점검

- [x] 계시의 기원이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로, 사자로, 요한으로, 일곱 교회로 전달되는 경로가 명시됨
- [x] 알파와 오메가·pantokrator·처음이요 마지막 선언이 관찰됨
- [x] 인자 같은 이의 묘사 (7가지 소품) 기록됨
- [x] "두려워하지 말라"·사망과 음부의 열쇠 선언이 관찰됨
- [x] 일곱 별·일곱 촛대의 해석이 본문 자체에 의해 제공됨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1장은 그 spine의 첫 번째 국면 — 인자 같은 이가 고난받는 요한에게 나타나사 계시를 주시는 자리다. 이 장은 REV 전체의 신학적 기초를 놓는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는 선언은 2-3장의 교회 편지, 4-5장의 보좌 환상, 6장 이후 심판 환상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다.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거룩(계 22:11)"의 종착 국면을 향해 달려가는 계시록의 서막이자, "통치(Reign)"의 완성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선언하는 자리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난받는 요한의 밧모 유배(9절) → 인자 같은 이의 현현(12-16절) → "두려워하지 말라"(17절) → 사망과 음부의 열쇠 선언(18절) →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20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고난과 유배의 자리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사 죽임 당하셨으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가 열쇠를 가지셨다고 선언하며, 그 선언을 고난받는 교회로 보내는 운동이다. REV 흐름에서 이 장은 2-3장의 일곱 교회 편지를 발송하는 근거를 세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요한의 환상과 인자 같은 이의 묘사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고난받는 교회에게 보좌가 흔들리지 않음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이다. pantokrator(전능자)의 선언은 로마 황제 권력 아래 박해받는 교회에게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못 박는다. 하나님의 심정은 9절에서 비친다 — 요한이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 같은 이가 그 동참의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신 이가 고난받는 자 곁에 서 계심을 확증하는 말씀이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지금 내 곁의 촛대 사이에 서 계신가 — 고난의 자리가 그 빛 아래 있음이 내 안에 살아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1장은 독자를 요한의 자리 — 고난받는 증인의 자리 — 에 세우고, 그 자리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신다는 것이 내 안에서 살아 있는지를 묻게 한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2-3장의 "이기는 그에게 주리라"는 약속으로 이어진다 —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가 이미 고난받는 교회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이 이기는 자의 근거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apokalypsis(계시).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1장에서 일곱 촛대와 별이 일곱 교회임이 밝혀지며, 2장부터 그 일곱 교회 각각에 "이기는 그에게 주리라"는 편지가 발송된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1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4절 "일곱 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 — 이 일곱 영의 정체가 이 절에서 확정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20절 "사자(angelos)"는 천사인가, 교회의 지도자인가?

-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 사자의 정체가 본문 자체로 확정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속히"는 어떤 시간 개념인가?

- 계시의 시간 프레임이 이 절에서 더 설명되지 않음.
- 관찰로는 보류.

Q4. 인자 같은 이의 외모 묘사(12-16절)와 다니엘 7장의 관계는 무엇인가?

- 이미지의 평행이 보이거나 본문이 직접 연결을 명시하지 않음.
- 배경 자료로만 두고 미해결로 머문다.

Q5. 17절에서 요한이 "그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인간이 신적 현현 앞에서 겪는 반응이 이 표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6. 8절 "전능하신 이"(pantokrator)와 박해 현실 사이의 긴장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고난받는 교회가 전능자를 받는 상황 — 본문이 이 긴장을 더 설명하지 않음.
- 관찰로는 긴장 자체만 보존하고 미해결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2장

REV-002 · 예언서(신약) · 헬라어

네 교회 편지의 첫 묶음 — 에베소는 수고와 인내가 있으나 처음 사랑(prote agape)을 잃었고, 서머나는 환난과 가난 중에 충성하라는 격려를 받으며, 버가모는 사탄의 위치에서도 굳게 섰으나 거짓 가르침을 허용했고, 두아디라는 끝보다 나은 나중의 행위를 인정받으나 이세벨을 용납했다. 각 편지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와 "이기는 그에게(nikao) 주리라"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서신·예언.
- 무대: 소아시아 네 도시 — 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
- 각 편지 발신자 소개 소품: 에베소(일곱 별·촛대)·서머나(처음이요 마지막·죽었다가 살아나심)·버가모(날 선 검)·두아디라(불꽃 눈·풀무 발).
- 반복 소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이기는 그에게(nikao) 내가 ~를 주리라" — 각 편지 마무리 공식.
- 인물: 인자 같은 이·에베소 사자·서머나 사자·버가모 사자·안디바·이세벨(두아디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에베소: 칭찬 직후 책망 —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4절). 긴장감.
- 서머나: 책망 없음 — 환난 중 위로·격려 온도.
- 버가모: 인정과 책망이 섞임 — 충성과 타협의 공존.
- 두아디라: 가장 긴 편지 — 성장 칭찬과 강한 이세벨 책망.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에베소 첫 편지 시작 → 두아디라 마지막 귀 있는 자 권면으로 닫힘.
- 다양한 교회 상황의 진단 — 처음 사랑 상실 vs 나중 행위의 성장.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인자 같은 이(발신자)·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 사자·안디바(순교자)·이세벨(두아디라)·발람(버가모, 비유적 언급).
- 상황: 에베소(수고·인내, 처음 사랑 상실)·서머나(환난·가난, 실상은 부요)·버가모(사탄의 위, 충성하나 진리 타협)·두아디라(성장하나 이세벨 용납).

- 사상 핵: nikao 약속 — 에베소(생명나무)·서머나(둘째 사망 없음)·버가모(만나·흰 돌)·두아디라(만국 권세·새벽 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에베소 편지 — 수고 칭찬, 처음 사랑 상실 책망, 쫓대 경고, 생명나무 약속.
- 컷 2 (8-11절): 서머나 편지 — 환난·가난 격려, 죽도록 충성, 생명 면류관·둘째 사망 없음.
- 컷 3 (12-17절): 버가모 편지 — 안디바 인정, 발람·니콜라 책망, 만나·흰 돌·새 이름 약속.
- 컷 4 (18-29절): 두아디라 편지 — 성장 칭찬, 이세벨 책망·기간 주심, 만국 권세·새벽 별.

6 — (1) 원어 카드

- nikao(νικάω) — 이기다·정복하다. 각 편지 마무리 약속 공식.
- prote agape(πρώτη ἀγάπη) — 처음 사랑. 4절.
- thlipsis(θλίψις) — 환난·압박·고통. 9절·10절.
- eidolothyton(εἰδωλόθυτον) — 우상에게 제사한 것. 14절·20절.
- prophetis(προφητις) — 여선지자. 20절.
- synagoge tou Satana(συναγωγὴ τοῦ Σατανᾶ) — 사탄의 회당. 9절.

6 — (2) 문학 구조

- 각 편지의 공통 패턴: 발신자 소개(1장 묘사 인용) → 칭찬 → 책망(서머나 제외) → 명령 →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nikao 약속.
- 편지 발신자 소개가 1장 인자 같은 이 묘사를 나누어 사용 — 각 교회 상황에 맞는 속성 선택.
- 서머나는 유일하게 책망 없는 편지 — 오직 격려와 위로.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 — 소아시아 서부 연안 도시들(배경 자료로만).
- "흰 돌"(17절) — 헬라 문화에서 다양한 용도(무죄 표시, 입장 증명 등)로 알려짐(배경 자료로만).
- 발람(14절) — 민수기 22-25장의 발람을 빗댄 표현으로 읽히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이세벨(20절) — 열왕기의 이세벨을 연상시키는 이름이나 실제 이름인지 미확정(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2:7 ↔ 계 22:2 (생명나무 반복)
- 계 2:11 ↔ 계 20:6·14 (둘째 사망 반복)
- 계 2:17 ↔ 계 3:12 (새 이름 반복)
- 계 2:26-27 ↔ 시 2:8-9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 시편 2편 평행)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에베소 편지가 열린다. 인자 같은 이가 수고·인내·약인 불용납을 칭찬하시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쫓대를 옮기신다고 경고하시나,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약속하신다. 서머나 편지로 넘어간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가 서머나의 환난과 가난을 아신다 — 실상은 부유하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모 편지가 이어진다.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사탄의 위가 있는 버가모에서 안디바 순교에도 믿음을 지킨 것을 인정하나, 발람의 가르침과 니콜라 당 교훈 용납을 책망하신다. 회개 않으면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새 이름을 주신다. 두아디라 편지가 달는다. 불꽃 눈·풀무 발을 가진 이가 사랑·믿음·섬김·인내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음을 칭찬하시나, 이세벨을 용납해 음행과 제사 음식을 허용한 것을 책망하신다. 회개 기간을 주었으나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신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 별을 주신다. 네 편지 모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이기는 그에게 주리라 — 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
- 초벌 부제: "처음 사랑·환난 충성·진리·용납 — 네 교회 진단과 nikao 약속"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nikao·prote agape·thlipsis·eidolothyton·prophetis·synagoge tou Satana)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흰 돌 배경, 이세벨 비유 배경, 소아시아 도시들)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처음 사랑"의 구체적 내용을 단정하지 않도록 → 미해결 질문으로.
- "이세벨"의 실제 정체를 단정하지 않도록 → 미해결 질문으로.
- "흰 돌"의 의미를 확정하지 않도록 → 배경 자료로만.
- 각 편지의 교회들을 현대 교회론과 연결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2장은 에베소(처음 사랑 상실 책망과 생명나무 약속)·서머나(환난 중 격려와 둘째 사망 없음 약속)·버가모(충성 인정과 발람 교훈 책망, 만나·흰 돌 약속)·두아디라(성장 칭찬과 이세벨 용납 책망, 만국 권세·새벽 별 약속) 네 교회에 인자 같은 이가 직접 편지하시며, 각 편지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와 nikao 약속으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인자 같은 이가 에베소에 편지하신다 — 수고와 인내는 인정하시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며 쫓대 경고를 발하신다. 서머나에게는 환난과 가난을 아시되 실상은 부유하다 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버가모에서는 사탄의 위 속에서도 안디바 순교에도 믿음을 지킨 것을 인정하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신다. 두아디라의 사랑·믿음·섬김·인내와 성장을 칭찬하시나 이세벨 용납을 강하게 책망하신다. 네 편지 모두 "귀 있는 자는 들으라"와 nikao 약속으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소아시아 네 교회. 각 편지 발신자 소개(1장 묘사 분배). "귀 있는 자"·nikao 반복 공식.
2 첫 느낌·분위기	네 가지 온도 — 긴장(에베소)·위로(서머나)·인정+책망(버가모)·성장+책망(두아디라).
3 시작과 끝	시작: 에베소 첫 편지(1절). 끝: 두아디라 "귀 있는 자"(29절). 다양한 교회 진단.
4 등장인물·상황·사상	안디바·이세벨 언급. 각 교회 상황(처음 사랑·환난·진리·용납). nikao 약속 4종.
5 장면 컷	컷1 에베소(1-7), 컷2 서머나(8-11), 컷3 버가모(12-17), 컷4 두아디라(18-29).
6 의문·발견·정보	쫓대 가변성(5절). 서머나 유일 책망 없음. 흰 돌 배경 미확정. 이세벨 정체 미확정.
7 동영상	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 각각 칭찬+책망(또는 격려)+nikao 약속.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이기는 그에게 주리라". 부제: "네 교회 진단과 nikao 약속".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4절) 앞에 섬.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림.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발신자 소개의 선택성:** 1장의 인자 같은 이 묘사가 각 편지에서 나누어 사용된다. 에베소에는 일곱 별·쫓대, 버가모에는 날선 검, 두아디라에는 불꽃 눈·풀무 발 — 각 교회 상황에 맞는 속성이 선택된다.
- 결 2 — 서머나의 위치:** 서머나는 네 편지 중 유일하게 책망이 없다. 환난과 가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오직 위로와 격려만 주어진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는 선언이 이 위치를 만든다.
- 결 3 — nikao의 보편성:** 칭찬을 받든(서머나) 책망을 받든(에베소·버가모·두아디라), 모든 편지가 "이기는 그에게"로 닫힌다. 이기는 길은 모든 상황의 교회에게 열려 있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2:7 ↔ 계 22:2 (생명나무), 계 2:11 ↔ 계 20:14 (둘째 사망), 계 2:17 ↔ 계 3:12 (새 이름).
- 다른 권 — 시 2:8-9 (만국 다스리는 권세), 민 22-25 (발람 배경).

- REV 흐름 — 2장의 네 교회 편지가 3장의 나머지 세 편지(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와 함께 2~3장 국면을 구성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고난받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 편지를 받는 자리에 앉는다.
- **멈춤 1:**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4절) — 처음 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 **멈춤 2:** "네 환난과 가난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9절) — 보이는 것과 실상이 다름 앞에 멈춘다.
- **멈춤 3:** "이기는 그에게 주리라"(7절·11절·17절·26절) — 각 상황에서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 앞에 멈춘다.
- **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29절) —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

F· 자족성 점검

- [x] 네 교회(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 각각의 상황이 관찰됨
- [x] 각 편지의 칭찬·책망(또는 격려)·명령이 관찰됨
- [x] nikao 약속 네 가지(생명나무·둘째 사망 없음·만나·흰 돌·만국 권세·새벽 별)가 기록됨
- [x] 서머나가 유일하게 책망 없는 편지임이 관찰됨
- [x] "귀 있는 자는 들으라"의 반복 공식이 관찰됨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2장은 그 spine의 두 번째 국면 전반부 — **일곱 교회 편지(이기는 자에게)** 국면이다. 이 장의 역할은, 1장에서 현현하신 인자 같은 이가 고난받는 교회 각각의 얼굴과 이름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다. "이기는 그에게 주리라"는 약속은 REV spine의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시려는" 의중이 각 교회 상황으로 내려오는 형식이다. 구속사 5대 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nikao의 반복은 "거룩(계 22:11)"의 종착 국면을 향한 이기는 삶으로의 부름이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베소(처음 사랑 상실·쫓대 경고) → 서머나(환난 중 격려·생명 면류관) → 버가모(충성·진리 타협·날선 검 경고) → 두아디라(성장·용납 문제·만국 권세 약속) → 각각 nikao로 닫힘.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고난받는 교회 각각의 구체적 현실에 인자 같은 이가 직접 진단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관통해 "이기는 그에게"의 약속으로 수렴하는 운동이다. REV 흐름에서 이 장은 3장의 나머지 세 교회 편지로 이어진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네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고난받는 교회 각각을 이름과 상황으로 아시는 하나님의 의중**이다. 서머나 편지(9절)에서 가장 선명하게 비친다 — "네 환난과 가난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눈에 보이는 가난과 하나님이 아시는 실상이 다르다. 이것이 REV spine이 고난받는 교회에게 보내는 심정의 핵심이다. 에베소의 경고(쫓대 경고)도, 두아디라의 책망도, 결국

은 이기는 자로 세우시려는 동일한 의중에서 나온다. "회개할 기간을 주었으되"(21절)라는 표현은 마감을 두신 긍휼의 표현이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각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인자 같은 이의 눈이 나의 실상을 아시고 "이기는 그에게 주리라" 부르고 계신다 — 그 부름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2장은 독자를 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 중 어느 자리에 세우고, 그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부름 앞에 세운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3장의 나머지 세 교회 편지로 이어지며, 4-5장의 보좌와 어린양 환상이 이기는 자의 근거를 우주적 차원에서 세우는 것으로 나아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nikao(이기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2장의 네 편지가 세운 nikao 부름이 3장에서 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로 이어지며, 3:20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와 3:21 "이기는 그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로 절정을 향해 나아간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2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처음 사랑"(prote agape)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 서로 간의 사랑인지, 둘 다인지 본문이 확정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실제 이름인가, 비유적 이름인가?

- 열왕기의 이세벨을 연상시키나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버가모의 "흰 돌"과 "새 이름"은 무엇인가?

- 헬라 문화 배경의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본문이 확정하지 않음.
- 관찰로는 보류.

Q4. 9절 "사탄의 회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과의 관계가 본문에서 더 설명되지 않음.
- 배경 자료로만 두고 미해결로 머문다.

Q5. "이기는 그에게" 약속의 네 가지(생명나무·둘째 사망 없음·만나와 흰 돌·만국 권세와 새벽 별)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

- 각 약속이 해당 교회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6. 에베소 편지의 "니콜라 당"은 누구인가?

- 버가모 편지(15절)에도 반복되나 구체적 정체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관찰로는 미확정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3장

REV-003 · 예언서(신약) · 헬라어

일곱 교회 편지의 마지막 묶음 — 사데는 살았다 하나 죽었고,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으로 열린 문(thyra aneogmene)을 받으며, 라오디게아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 뱀으심 경고를 받는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3:20)와 "이기는 그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3:21)로 일곱 교회 편지가 닫힌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서신·예언.
- 무대: 소아시아 세 도시 — 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
- 각 편지 발신자 소개: 사데(일곱 영·일곱 별)·빌라델비아(거룩하고 진실하신 이, 다윗의 열쇠)·라오디게아(아멘·충성되고 참된 증인·창조의 근본).
- 소품: 흰 옷(사데·라오디게아)·생명책(사데)·열린 문(빌라델비아)·금·안약(라오디게아)·문(3:20)·보좌(3:21).
- 반복: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nikao 약속 공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사데: 서늘 — "살았다 하나 죽은 것"(1절).
- 빌라델비아: 따뜻 — 책망 없음, 열린 문 약속.
- 라오디게아: 절정 강렬 — 경고·뱀으심·사랑의 징계·두드리심·보좌 약속.
- 3:20-21이 일곱 편지 전체의 절정.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사데의 죽음 진단(1절) → 보좌 동참 약속(21절) → 들으라 권면(22절).
- 일곱 교회 편지 전체의 대단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인자 같은 이(발신자)·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 사자.
- 상황: 사데(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음, 더럽히지 않은 자 몇)·빌라델비아(작은 능력, 말씀 지킴, 열린 문)·라오디게아(자부하나 실상은 가련·가난·눈멀·벌거벗음).
- 사상 핵: 3:20(문 두드리심)·3:21(보좌 동참 약속·그리스도의 이기심이 근거). 19절(사랑하는 자를 징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사데 편지 — 이름은 살았으나 죽음, 더럽히지 않은 자, 흰 옷·생명책 약속.
- 컷 2 (7-13절): 빌라델비아 편지 — 다윗의 열쇠·열린 문, 작은 능력 인정, 새 예루살렘·새 이름 약속.
- 컷 3 (14-22절): 라오디게아 편지 — 차지도 덥지도 않음, 토하심 경고, 사랑의 징계, 문 두드리심(3:20), 보좌 동참(3:21).

6 — (1) 원어 카드

- thyra aneogmene(θύρα ἠνεωγμένη) — 열린 문. 8절.
- zestos(ζεστός) — 더운. 15절.
- psychros(ψυχρός) — 차가운. 15절.
- chliaros(χλιαρός) — 미지근한. 16절.
- emeo(ἐμέω) — 토하여 내치다·구토하다. 16절.
- kleis tou David(κλεις τοῦ Δαυίδ) — 다윗의 열쇠. 7절.
- thronos(θρόνος) — 보좌. 21절.

6 — (2) 문학 구조

- 2장과 동일한 편지 패턴: 발신자 소개 → 칭찬·진단 → 책망(빌라델비아 제외) → 명령 → "귀 있는 자" → nikao 약속.
- 라오디게아 편지 안의 반전 구조: 토하심 경고(16절) → 사랑의 징계(19절) → 문 두드리심(20절) → 보좌 약속(21절).
- 3:21이 일곱 교회 편지 전체의 마지막 nikao 약속 — 절정.
- 서머나(2:8-11)·빌라델비아(3:7-13)가 유일하게 책망 없는 두 편지 — 모두 고난받는 교회.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빌라델비아 —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소아시아 도시(배경 자료로만).
- kleis tou David — 이사야 22:22와 연결될 수 있으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라오디게아 — 금융·의학·의류로 알려진 부유한 도시(배경 자료로만).
- 라오디게아 주변의 온천(뜨거운 물)과 냉천(차가운 물) 이미지가 차지도 덥지도 않음의 배경으로 언급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3:5 ↔ 계 20:12·15 (생명책 반복)
- 계 3:7 ↔ 사 22:22 (다윗의 열쇠 — 이사야 평행)
- 계 3:12 ↔ 계 21:2 (새 예루살렘 반복)
- 계 3:21 ↔ 계 20:4 (보좌 동참 반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사데 편지가 열린다. 일곱 영과 별을 가진 이가 사데에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고 선언하신다. 깨어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 하시며,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을 인정하고 흰 옷·생명책 약속을 주신다. 빌라델비아 편지로 넘어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인정

하시며 열린 문(thyra aneogmene)을 주신다. 환난의 때 지키겠다 하시며 새 예루살렘 기둥·새 이름을 약속하신다. 라오디게아 편지가 열린다. 아멘·충성되고 참된 증인·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신다. 미지근하니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신다. 스스로 부자라 하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고 하시며 불로 연단한 금·흰 옷·안약을 내게서 사라 하신다. 전환 —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하시며,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가 선언된다. 3:21 "이기는 그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같이"로 일곱 교회 편지 전체가 닫힌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완전히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 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
- 초벌 부제: "이기는 그를 내 보좌에 함께 — 일곱 교회 편지의 대단원"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thyra aneogmene·zestos·psychros·chliaros·emeo·kleis tou David·throno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라오디게아 배경, 이사야 22:22 평행, 빌라델비아 어원)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3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chliaros(미지근함)를 특정 영적 상태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3:21 "그리스도의 이기심"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도록 → 미해결 질문으로.
- 라오디게아 온천 배경을 직접 연결로 단정하지 않도록 → 배경 자료로만.
- 3:20을 개인 구원 초청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본문의 수신자(교회)를 우선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3장은 사데(살았다 하나 죽은 것 진단·흰 옷·생명책 약속)·빌라델비아(작은 능력으로 열린 문 받음·환난 때 지키심·새 예루살렘 약속)·라오디게아(차지도 덥지도 않음 책망·사랑의 징계·문 밖에서 두드리심·이기는 그를 보좌에 함께 약속)에 인자 같은 이가 편지하시며, 3:21 "이기는 그를 내 보좌에 함께"로 일곱 교회 편지 전체가 절정에 이르러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인자 같은 이가 사데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진단하시며 더럽히지 않은 자들에게 흰 옷과 생명책을 약속하신다. 빌라델비아에게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시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신다. 라오디게아에게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 토하여 내치겠다는 강한 경고와 함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시며 불로 연단한 금·흰 옷·안약을 사라 하신다. 전환점 —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리고 3:21 "이기는 그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같이"로 일곱 교회 편지가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소아시아 세 교회. 발신자 소개 다양. 흰 옷·생명책·열린 문·금·안약·보좌 소품.
2 첫 느낌·분위기	서늘(사데)·따뜻(빌라델비아)·절정 강렬(라오디게아). 3:20-21이 절정.
3 시작과 끝	시작: 사데 죽음 진단(1절). 끝: 보좌 약속(21절)+들으라(22절). 일곱 편지 대단원.
4 등장인물·상황·사상	각 교회 상황 진단. 3:20 문 두드리심. 3:21 보좌 동참·그리스도의 이기심 근거.
5 장면 컷	컷1 사데(1-6), 컷2 빌라델비아(7-13), 컷3 라오디게아(14-22).
6 의문·발견·정보	빌라델비아·서머나 책망 없는 두 교회(고난받는 교회 공통). 3:20 수신자 관찰. 열린 문 미확정.
7 동영상	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 경고→전환(19절)→문 두드리심→보좌 약속.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부제: "이기는 그를 내 보좌에 — 일곱 편지 대단원".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3:20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앞에 섬.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림.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고난받는 교회와 책망 없음:** 서머나(2장)·빌라델비아(3장)가 유일하게 책망 없는 두 교회다. 두 교회 모두 고난과 작은 능력의 처지에 있다. 이 패턴이 REV spine —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시려는" — 의 방향을 비춘다.
- 결 2 — 라오디게아의 반전:** 라오디게아 편지 안에서 토하심 경고(16절) → 사랑의 징계(19절) → 문 두드리심(20절)의 반전이 있다. 가장 강한 경고 뒤에 가장 친밀한 초청이 온다.
- 결 3 — 3:21의 근거 제시:** "이기는 그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같이" — 이기는 자의 보좌 약속 근거가 그리스도 자신의 이기심으로 제시된다. 이 근거가 일곱 편지 전체의 대단원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3:5 ↔ 계 20:12 (생명책), 계 3:12 ↔ 계 21:2 (새 예루살렘), 계 3:21 ↔ 계 20:4 (보좌 동참).
- 다른 권 — 사 22:22 (다윗의 열쇠 평행), 잠 3:12 (사랑하는 자를 징계 — 잠언 평행).
- REV 흐름 — 3장의 보좌 약속(3:21)이 4장의 보좌 환상으로 즉시 이어진다 — "이후에 내가 보니 보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4:1).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사데처럼 이름만 살아있는 자리에 서는가, 라오디게아처럼 스스로 부자라 하는 자리에 있는가를 본다.
- 멈춤 1: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8절) — 작은 능력이 문을 받는 자리 앞에 멈춘다.
- 멈춤 2: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19절) — 경고가 사랑임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20절) — 문을 두드리시는 이 앞에 멈춘다.
- 끝: "이기는 그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21절) — 이기는 자의 자리를 향해 고개를 든다.

F · 자족성 점검

- [x] 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 각각의 진단과 약속이 관찰됨
- [x] 3:20 문 두드리심이 관찰됨
- [x] 3:21 보좌 동참 약속과 그 근거(그리스도의 이기심)가 관찰됨
- [x] 서머나·빌라델비아가 책망 없는 두 편지임이 관찰됨
- [x] 일곱 교회 편지 전체의 대단원으로서의 위치가 관찰됨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3장은 그 spine의 두 번째 국면 완결 — 일곱 교회 편지의 마지막 묶음이다. 이 장의 역할은, 2-3장 국면을 3:21 "이기는 그를 내 보좌에 함께"로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보좌 약속은 4장의 "하늘에 열린 문"(4:1)으로 즉시 이어지며, 5장의 "죽임 당한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떼기 합당하다는 환상으로 나아간다. 일곱 교회 편지 전체(2-3장)가 "이기는 자에게"를 쌓아왔고, 3:21이 그 종착점을 보좌 동참으로 선언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데(살았으나 죽음) → 빌라델비아(작은 능력·열린 문) → 라오디게아(미지근함·경고·사랑의 징계·문 두드리심) → 3:21 보좌 동참 약속.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일곱 교회 편지 전체를 "이기는 그를 내 보좌에 함께"로 닫으며, 4장의 보좌 환상과 5장의 어린양 환상을 향해 미는 운동이다. REV 흐름에서 이 장은 2-3장 국면을 완결하고 4-5장 국면(보좌와 어린양)의 문을 여는 경첩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세 교회에 대한 진단과 약속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는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중, 그리고 경고 뒤에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심정**이다. 라오디게아에 대한 3:20의 장면 — 토하여 내치겠다는 경고 뒤에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이 — 이 REV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가시적으로 비치는 자리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19절)는 선언이 이 심정의 언어다. 경고와 두드리심이 같은 사랑에서 나온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문 앞에서 계신가 — "이기는 그를 내 보좌에 함께"라는 약속을 향해 그 문을 여는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3장은 독자를 라오디게아의 자리 — 미지근하고 스스로 부자라 하는 자리 — 에도, 빌라델비아의 자리 — 작은 능력이나 말쑥을 지키는 자리 — 에도 세운다. 그리고 그 어느 자리에서도 "이기는 그를 보좌에 함께"라는 약속이 열려 있음을 본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4-5장의 보좌와 어린양 환상이 이기는 자의 근거를 우주적 차원에서 세우는 것으로 이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thronos(보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3:21에서 약속된 보좌가 4장 "하늘에 열린 문"(4:1) 너머 보좌 환상으로 펼쳐지며, 그 보좌 앞에서 "거룩 거룩 거룩"이 울려 퍼진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3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사데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어떤 평판이나 역사를 가리키는지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빌라델비아의 "열린 문"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선교의 기회인지, 하늘 입장인지, 다른 의미인지 본문이 확정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3:20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심"의 수신자는 교회 전체인가, 개인인가?

-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에서 개인적 언어가 쓰이나, 수신자가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임.
- 관찰로는 보류.

Q4. 3:21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같이"에서 그리스도의 "이기심"은 무엇인가?

- 죽음과 부활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본문이 이 절에서 더 설명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5. 서머나와 빌라델비아가 유일하게 책망 없는 교회인 이유는 무엇인가?

- 두 교회가 고난받는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본문이 이 관계를 명시하지 않음.
- 관찰로는 공통점만 보존.

Q6. 라오디게아의 "안약"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눈을 뜨는 것의 비유적 표현으로 읽히나 본문이 구체화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4장

REV-004 · 예언서(신약) · 헬라어

하늘 보좌 환상의 서막 —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4:1). 요한이 성령에 의해 이끌려 보좌 환상을 목격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둘러싼 이십사 장로(presbyteroi)와 네 생물(tessara zoa)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를 외치며, 이십사 장로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경배한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예언.
- 무대: 하늘 보좌 공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진입.
- 구심점: 보좌(thronos). 보좌 주위로 이십사 장로·네 생물·유리바다.
- 소품: 벽옥·홍보석(3절)·무지개(iris)·이십사 보좌·흰 옷·금 면류관(stephanos)(4절)·번개·음성·우레(5절)·일곱 등불(5절)·수정 같은 유리바다(krystallos)(6절)·네 생물(6-8절).
- 반복: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8절)·axios(합당하오니)(11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공간 전환: 1-3장(땅·교회) → 4장(하늘·보좌). "열린 문"(1절)으로 진입.
- 장엄함: 보좌·무지개·유리바다·네 생물·쉬지 않는 경배.
- 쉬지 않는 예배(8절) — 낮과 밤에 멈추지 않음.
- 면류관을 드리는 행위(10절) — 자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 이리로 올라오라"
-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 부름(1절) → 보좌 환상 목격 → 창조자 경배(11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요한(목격자)·보좌에 앉으신 이(간접 묘사)·이십사 장로(presbyteroi)·네 생물(tessara zoa).
- 상황: 하늘 보좌 환상. 네 생물 쉬지 않는 경배(8절). 이십사 장로 면류관 드림(10절).
- 사상 핵: 경배의 두 근거 — 영원성("전에도 이제도 장차")(8절)·창조("만물을 지으신지라")(11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열린 문·나팔 음성·요한 하늘 진입.
- 컷 2 (3-8절): 보좌에 앉으신 이 묘사·이십사 장로·번개·유리바다·네 생물·"거룩 거룩 거룩".

- 컷 3 (9-11절): 네 생물 경배 → 이십사 장로 면류관 드림 → "합당하오니"(11절) 절정.

6 — (1) 원어 카드

- thronos(θρόνος) — 보좌. 2절.
- presbyteroi(πρεσβύτεροι) — 장로들. 4절.
- stephanos(στέφανος) — 면류관(승리의). 4절.
- iris(ἴρις) — 무지개. 3절.
- krystallos(κρύσταλλος) — 수정. 6절.
- tessara zoa(τέσσαρα ζῶα) — 네 생물. 6절.
- hagios(ἅγιος) — 거룩한. 8절.
- pantokrator(παντοκράτωρ) — 전능하신 이. 8절.
- axios(ἄξιος) — 합당하다. 11절.

6 — (2) 문학 구조

- 4:1의 thyra aneogmene(열린 문)이 3:8(빌라델비아 열린 문)과 같은 표현.
- 4장이 5장과 쌍을 이룸 — 4장(보좌에 앉으신 이 경배)·5장(어린양 경배).
- 네 생물 경배(8-9절) → 이십사 장로 경배(10-11절)의 이중 경배 구조.
- 11절 경배가 창조를 근거로 함 —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네 생물 — 에스겔 1장·10장의 그룹(케루빔) 환상과 비교 가능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 이사야 6:3의 스랍 찬양과 평행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이십사 장로 — 12지파·12사도 결합으로 보는 해석 있으나 이 장에서는 미확정(배경 자료로만).
- stephanos(면류관) — 로마 경기 승자의 화환과 구별되는 왕관(diadema)과의 차이 있으나 이 문맥에서 추가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4:1 ↔ 계 3:8 (thyra aneogmene — 열린 문 반복)
- 계 4:8 ↔ 계 1:8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반복)
- 계 4:8 ↔ 사 6:3 (거룩 거룩 거룩 — 이사야 스랍 찬양 평행)
- 계 4:11 ↔ 계 5:9 (axios — 합당하다 반복·어린양에게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열린 문이 나타난다. 나팔 같은 음성이 요한을 부른다 —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 보좌를 본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비취색 무지개가 두른다. 보좌 주위에 이십사 보좌가 있고, 흰 옷에 금 면류관을 쓴 이십사 장로들이 앉아 있다.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오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하나님의 일곱 영)이 타오른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 앞뒤가 눈으로 가득하고 사자·송아지·사람 얼굴·독수리 형상이다. 네 생물이 낮과 밤에 쉬지 않고 외친다 —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pantokrator)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드린다. 절정 —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axios)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합당하오니 — 하늘 보좌 앞 이십사 장로의 경배"
- 초벌 부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 이십사 장로·네 생물·보좌에 앉으신 이"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thronos·presbyteroi·stephanos·iris·krystallos·tessara·zoa·hagios·pantokrator·axio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에스겔 1장 비교, 이사야 6:3 평행, stephanos vs diadema)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3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이십사 장로를 "12지파+12사도"로 단정하지 않도록 → 미확정 관찰로 보존.
- 네 생물의 형상 의미를 복음서 저자로 단정하지 않도록 → 미확정 관찰로 보존.
- "거룩 거룩 거룩"의 삼위일체 해석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유리바다의 상징 의미를 확정하지 않도록 → 미해결 질문으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4장은 "이리로 올라오라"(4:1)는 부름으로 요한이 하늘 보좌 환상에 진입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쉬지 않는 "거룩 거룩 거룩"과 면류관 드림으로 창조자를 경배하는 장이다.

한 문단: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4:1)로 공간이 전환된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 보좌를 보게 된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비취색 무지개가 두른다. 보좌 주위에 흰 옷에 금 면류관을 쓴 이십사 장로들이 앉아 있다.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오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하나님의 일곱 영)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네 생물이 낮과 밤에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를 외친다. 네 생물이 경배할 때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며 "합당하오니(axios)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로 선언한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하늘 보좌 공간. 구심점 thronos. 이십사 장로·네 생물·유리바다·무지개·면류관.
2 첫 느낌·분위기	공간 전환(땅→하늘). 장엄. 쉬지 않는 예배. 면류관 드리는 행위.
3 시작과 끝	시작: 열린 문·올라오라(1절). 끝: 창조자 경배·합당하오니(11절).
4 등장인물·상황·사상	보좌에 앉으신 이(간접 묘사). 이십사 장로·네 생물. 경배 근거: 영원성+창조.
5 장면 컷	컷1 진입(1-2), 컷2 보좌 묘사(3-8), 컷3 이중 경배 절정(9-11).
6 의문·발견·정보	이십사 장로 신원 미확정. 네 생물 형상 의미 미확정. 4:1 열린 문 ↔ 3:8 평행.
7 동영상	진입→보좌 묘사→"거룩 거룩 거룩"→면류관 드림→"합당하오니" 절정.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합당하오니". 부제: "거룩 거룩 거룩 — 하늘 보좌 앞의 경배".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이십사 장로 면류관 드리는 장면 앞에 섬.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림.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3:21과 4장의 연속:** 3:21 "이기는 그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는 약속 바로 다음에 4장의 "하늘에 열린 문"이 열린다. 이기는 자가 앉게 될 그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결이 REV 흐름에서 보좌 약속의 근거를 세운다.
- 결 2 — 경배의 이중 근거:** 4장의 경배가 두 가지 근거에 기반한다. 8절(영원성 — "전에도 이제도 장차")과 11절(창조 —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두 근거가 5장에서 어린양에게 드러지는 경배와 대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결 3 — 열린 문의 연속:** 3:8(빌라델비아 열린 문)과 4:1(하늘 열린 문)에서 thyra aneogmene가 반복된다. 땅에서 주어진 열린 문이 하늘 보좌로의 진입으로 연결되는 관찰이 본문 안에서 발견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3:21 ↔ 계 4장** (보좌 약속 → 보좌 환상), **계 4:11 ↔ 계 5:9** (axios 반복), **계 4:1 ↔ 계 3:8** (열린 문 반복).

- 다른 권 — 사 6:1-3 (스랍의 거룩 찬양 평행), 겔 1:5-14 (네 생물 환상 비교).
- REV 흐름 — 4장의 경배 구조가 5장의 어린양 경배를 위한 무대를 세움.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이리로 올라오라"는 부름 앞에 선다 —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실재의 눈높이가 어디인지를 본다.
- 멈춤 1: "보좌에 앉으신 이"(2절) — 보좌의 실재 앞에 멈춘다.
- 멈춤 2: "쉬지 않고 낮과 밤에"(8절) — 멈추지 않는 경배의 장면 앞에 선다.
- 멈춤 3: 이십사 장로들이 면류관을 드리는 행위(10절) — 자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앞에 멈춘다.
- 끝: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11절) — 창조자 앞에 이 고백이 내 입에서도 나오는지를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보좌·이십사 장로·네 생물·유리바다·무지개·면류관 소품이 관찰됨
- [x] "거룩 거룩 거룩"(8절)과 "합당하오니"(11절)의 두 경배 절정이 관찰됨
- [x] 경배의 이중 근거(영원성·창조)가 관찰됨
- [x] 3:21 보좌 약속과의 연결이 관찰됨
- [x] 4:1 열린 문과 3:8 열린 문의 평행이 관찰됨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4장은 그 spine의 세 번째 국면 — 보좌와 어린양 국면의 첫 장면이다. 1-3장이 땅의 일곱 교회(고난받는 교회)를 다뤘다면, 4-5장은 하늘 보좌의 실재를 보여준다. 이 전환이 REV 전체 구조에서 핵심이다 — 고난받는 교회들이 견뎌야 할 근거가 하늘 보좌의 흔들리지 않음이기 때문이다. 3:21에서 약속된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를 4장이 먼저 펼쳐 보인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열린 문·이리로 올라오라(1절) → 보좌 환상 묘사(2-8절) → "거룩 거룩 거룩"·면류관 드림(8-10절) → "합당하오니 만물을 지으신지라"(1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땅의 고난받는 교회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의 실재를 보이며, 5장에서 어린양이 등장할 무대를 세우는 운동이다. REV 흐름에서 이 장은 2-3장 국면(일곱 교회 편지)을 닫고 4-5장 국면(보좌와 어린양)을 여는 무대막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하늘 보좌 환상의 묘사와 경배 장면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고난받는 교회에게 보좌가 흔들리지 않음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중, 그리고 창조자로서 경배받으시는 심정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4:1) — 요한만이 아니라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 환상을 들어야 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쉬지 않는 경배"의 실재를 아는 것이 이기는 자로 서게 하는 근거다.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11절) — 내 입에서 이 경배가 흘러나오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십사 장로들이 면류관을 드리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4장은 독자를 하늘 보좌 앞에 세운다 — 쉬지 않는 "거룩 거룩 거룩"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5장에서 죽음 당한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받기에 합당하다(axios)는 선언으로 이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axios(합당하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4:11에서 창조자께 "합당하오니"가 선언되고, 5장에서는 죽음 당한 어린양에게 "합당하오니"(5:9)가 터진다 — 경배의 대상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 어린양으로 확장된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4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이십사 장로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 12지파+12사도인지, 천상 존재인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네 생물의 형상(사자·송아지·사람·독수리)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본문이 이 장에서 형상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음.
- 에스겔 1장·10장과 연결 가능하나 확정 아님.
- 미해결로 보존.

Q3.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무엇인가?

- 보좌 앞의 공간적 요소로만 관찰됨. 상징 의미 미확정.
- 미해결로 보존.

Q4. "하나님의 일곱 영"(5절)이 일곱 등불과 동일시되는 방식은?

-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가 직접 언급됨.
- 1:4의 일곱 영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가 이 장에서 더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5. 이십사 장로들이 면류관을 드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자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관찰됨.
- 면류관을 드린 후 다시 받는지, 이 행위의 반복 여부가 이 절에서 명시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4:1의 "열린 문"은 3:8의 "열린 문"과 같은 의미인가?

- 같은 표현(*thyra aneogmene*)이 쓰임.
- 빌라델비아에게 준 열린 문과 하늘 진입 열린 문의 관계가 이 장에서는 더 설명되지 않음.
- 관찰로는 평행만 두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5장

REV-005 · 예언서(신약) · 헬라어

REV 전체의 전환점 —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아무도 인봉된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여 요한이 울더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는 선언이 들린다. 그러나 등장한 것은 사자가 아니라죽임 당한 어린양(arnion hesphatigmenon)이었다.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하늘 경배가 터지고, 찬양의 원이 네 생물·이십사 장로·수만의 천사·만물로 점점 넓어진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예언.
- 무대: 계속되는 하늘 보좌 공간(4장에서 이어짐).
- 핵심 소품: 두루마리(biblion)·일곱 인(sphragis)·어린양(arnion)·일곱 뿔(keras)·일곱 눈·하프·금 대접·향.
- 반복: "합당하도다/합당하오니"(axios, 5:9·12 + 4:11)·nikao/nikan(이기다, 5:5 + 일곱 편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위기: 아무도 두루마리를 열 자 없음·요한의 울음(4절).
- 반전: 사자 선언(5절) → 어린양 등장(6절). 죽임 당하심이 이기심의 방식.
- 찬양 확장: 네 생물·이십사 장로 → 수만 천사 → 만물로 넓어지는 동심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 14절: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이 앞드려 경배하더라"
- 닫힌 두루마리(위기) → 어린양 취함(전환) → 우주 경배(완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보좌에 앉으신 이·강한 천사·요한·장로 중 하나·어린양(arnion)·네 생물·이십사 장로·수만의 천사·만물.
- 상황: 닫힌 두루마리 위기·요한의 울음·어린양 등장과 취함·찬양 동심원 확장.
- 사상 핵: 5:5-6 반전(사자→어린양)·이기심의 방식은 죽임 당함. 새 노래 근거: 죽임·구속·나라와 제사장. 경배 범위: 우주 전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두루마리·아무도 열 자 없음·요한의 울음 — 위기.

- 컷 2 (5-7절): 사자 선언·어린양 등장·두루마리 취함 — 반전.
- 컷 3 (8-12절): 새 노래(9-10절)·수만 천사 "합당하도다"(12절) — 찬양 확장.
- 컷 4 (13-14절): 만물 찬양·아멘·경배 — 우주 경배 완결.

6 — (1) 원어 카드

- arnion(ἄρνιον) — 어린양. 6절. 계시록 특유 단어, 28회 이상 사용.
- hesphatigmenon(ἑσφατιγμένον) — 죽임 당한(도살된). 6절. 완료 수동분사 — 죽임 당한 흔적이 여전히 있음.
- biblion(βιβλίον) — 두루마리·책. 1절.
- sphragis(σφραγίς) — 인(봉인). 1절.
- axios(ἄξιος) — 합당하다. 9절·12절.
- nikan(νικᾶν) — 이기다. 5절.
- keras(κέρας) — 뿔. 6절.
- ophthalmos(ὀφθαλμός) — 눈. 6절.
- ode kaine(ὥδῃ καινῇ) — 새 노래. 9절.
- latreia(λατρεία) — 예배·섬김. 경배 문맥.

6 — (2) 문학 구조

- 5장이 REV 전체의 구조적 전환점 — 1-4장(서문·편지·보좌)과 6장 이후(인·나팔·대접)를 잇는 경첩.
- 5:5-6의 반전 구조 — "사자"(선언)→"어린양"(등장).
- 찬양 동심원: 네 생물+이십사 장로(8절) → 수만의 천사(11절) → 만물(13절).
- 3절("하늘·땅·땅 아래 아무도 없더라")↔13절("하늘·땅·바다·그 안의 것들 모두") — 절망 공간이 찬양 공간으로 전환.
- axios가 4:11(창조 근거)→5:9·12(구속 근거)로 확장.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유다 지파의 사자" — 창세기 49:9의 야곱 유언과 평행할 수 있으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다윗의 뿌리" — 이사야 11:1·10, 로마서 15:12와 평행 가능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arnion(어린양) — 요한복음의 amnos(1:29·36)와 다른 단어. 계시록 특유 어휘(배경 자료로만).
- 두루마리 — 에스겔 2:9-10(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 평행) 가능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5:5 ↔ 계 3:21 (nikan·이기다 반복 — 어린양의 이기심이 이기는 자의 근거)
- 계 5:9 ↔ 계 4:11 (axios 반복 — 창조 근거→구속 근거 확장)
- 계 5:8 ↔ 계 8:3-4 (성도의 기도·향 반복)
- 계 5:10 ↔ 계 20:4-6 (나라와 제사장·왕 노릇 반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하늘 보좌 환상이 계속된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인 일곱 인봉 두루마리가 있다. 강한 천사가 "누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가"를 외치지만, 하늘·땅·땅 아래 어디에도 없다. 요한이 크게 운다.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한다. 요한이 바라보니 — 사자가 아니라,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양(arnion hesphatigmenon)이 보좌 사이에 서 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양이 나아와 두루마리를 취한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하프와 향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른다 — "합당하도다(axios) 당신이 피로 사람들을 사셨으니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수만의 천사들이 에워싸 외친다 —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절정 —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을 선언한다.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합당하도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여 — REV 전체의 전환점"
- 초벌 부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새 노래를 여시다 — 우주적 경배의 시작"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arnion·hesphatigmenon·biblion·sphragis·axios·nikan·keras·ophthalmos·ode kaine·latreia)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rnion vs amnos, 에스겔 2장 평행, 창 49:9·사 11:1 평행)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두루마리 내용을 역사적 사건 일정표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arnion을 단순히 요한복음 침례자 요한의 "어린양"과 동일시로 단정하지 않도록 → 다른 단어임을 관찰하고 미확정.

-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특정 신학 교리로 단정하지 않도록 → 본문 관찰에 머물.
- 이기심의 방식(죽임 당함)을 단정적 교리로 진술하지 않도록 → 역설적 관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5장은 아무도 열 수 없는 두루마리 앞에 요한이 울더니, 사자가 아닌 죽임 당한 어린양(arnion hesphatigmenon)이 나와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이십사 장로·수만의 천사·만물이 "합당하도다"(axios)를 외치며 우주적 찬양으로 응답하는 REV 전체의 전환점이다.

한 문단: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지만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요한이 크게 우는 중에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양이었다.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새 노래가 터진다 — "당신이 피로 사람들을 사셨으니 합당하도다." 찬양은 수만의 천사로, 다시 만물로 확장되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세세토록"으로 완결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하늘 보좌 공간. 두루마리·일곱 인·어린양·일곱 뿔·일곱 눈·향·하프.
2 첫 느낌·분위기	위기(울음)→반전(어린양)→찬양 동심원 확장. 사자→어린양의 역설.
3 시작과 끝	시작: 닫힌 두루마리(1절). 끝: 아멘·경배(14절). 위기→전환→경배 드라마.
4 등장인물·상황·사상	어린양의 반전 등장. 구속 근거 새 노래. 찬양 동심원(장로→천사→만물).
5 장면 컷	컷1 위기(1-4), 컷2 반전(5-7), 컷3 찬양 확장(8-12), 컷4 만물 완결(13-14).
6 의문·발견·정보	5:5-6 반전 관찰. 3절↔13절 공간 역전. axios 4:11→5:9·12 확장. 향=성도의 기도.
7 동영상	울음→"울지 말라"→어린양 취함→새 노래→천사→만물→아멘 경배.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합당하도다 어린양이여". 부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만물의 찬양을 여시다".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합당하도다" 앞에 섬.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림.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사자와 어린양의 역설:** 5절에서 "사자가 이기었다"고 하고, 6절에 나타난 것은 "죽임 당한 어린양"이다. 이기심의 방식이 죽임 당함이었다는 관찰이 REV 전체의 nikao(이기다)의 의미를 비춘다. 일곱 교회 편지의 "이기는 그에게"(2-3장)가 이 어린양의 이기심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다.
- 결 2 — 절망 공간에서 찬양 공간으로:** 3절 "하늘·땅·땅 아래 아무도 없더라"는 절망이, 13절 "하늘·땅·바다·그 안의 것들 모두"가 찬양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동일한 우주 공간이 절망의 공간에서 찬양의 공간으로 바뀐다. 이 전환의 원인은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취한 것이다.
- 결 3 — axios의 확장:** 4:11(창조 근거·세 가지)에서 axios가 선언됐다. 5장에서 axios는 어린양에게 적용되며 구속 근거·일곱 가지로 확장된다. 창조자와 구속자가 함께 경배받는 구조가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로 완결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5:5 ↔ 계 3:21 (nikan — 어린양의 이기심이 교회의 이기심 근거), 계 5:8 ↔ 계 8:3 (성도의 기도·향 반복), 계 5:10 ↔ 계 20:4-6 (나라와 제사장·왕 노릇 반복).
- 다른 권 — 창 49:9 (유다 지파의 사자), 사 11:1-10 (다윗의 뿌리), 겔 2:9-10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 평행).
- REV 흐름 — 5장의 두루마리 취함이 6장의 인봉 땀으로 이어진다 — 어린양의 주권으로 역사가 열린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4절 "내가 크게 울었다" — 아무도 없는 막막함의 자리에 서 본다.
- 멈춤 1: 5절 "울지 말라" — 이 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본다.
- 멈춤 2: 6절 죽음 당한 어린양이 서 있는 장면 — 사자인 줄 알았는데 어린양이었다는 반전 앞에 멈춘다.
- 멈춤 3: 8절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하늘에 있다 — 내 기도가 이 공간에 있다는 것 앞에 멈춘다.
- 끝: "합당하도다"(12절) —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오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두루마리·일곱 인·어린양 등장과 취함이 관찰됨
- [x] 5:5-6 반전(사자→어린양)이 관찰됨
- [x] 새 노래 내용(구속·각 족속·나라와 제사장)이 관찰됨
- [x] 찬양 동심원(장로→천사→만물)이 관찰됨
- [x] 성도의 기도=향 연결이 관찰됨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5장은 그 spine의 핵심 전환점이다 — spine의 첫 단어 "죽임 당한 어린양"이 바로 이 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경배를 받는다. 1-4장이 고난받는 교회들과 보좌 환상이었다면, 5장은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으로 REV 전체의 구조가 이 점을 축으로 돌아간다. 6장 이후의 인·나팔·대접 심판이 모두 이 어린양의 손에서 나온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닫힌 두루마리·울음(1-4절) → 어린양 등장·취함(5-7절) → 새 노래·수만 천사(8-12절) → 만물 찬양·아멘(13-14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역사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막막함에서, 죽음 당한 어린양이 주권을 취하는 반전으로, 우주 전체의 경배로 가는 운동이다. REV 흐름에서 이 장은 4장의 보좌 환상을 완결하고, 6장 이후 심판의 역사를 여는 전환점이다.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 죽음 당한 어린양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이 장의 메시지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찬양이 폭발하는 장면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역사의 주권이 죽음 당한 어린양에게 있음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중, 그리고 아무도 열 수 없다고 울던 자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심정이다. 닫힌 두루마리 앞에서의 울음(4절) — 역사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

고난 속에서 고난받는 교회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울지 말라" — 그 막막함을 여시는 이가 죽음 당한 어린양이라는 것이 이 장이 담고 있는 심정이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역사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 합당하도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오
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5장은 독자를 요한이 온 자리(4절)에도, 새 노래를 부른 자리(9절)에도 세운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6장의 인봉 땀으로 이어진다 — 어린양이 취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며 역사가 열린다. 고난받는 교회들이 이 장에서 얻는 것은, 역사의 두루마리가 죽음 당한 어린양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sphragis(인봉).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5장에서 취해진 두루마리의 인봉들이 6장에서 하나씩 열린다 — 흰·붉은·검은·청황색 말, 순교자의 영혼, 큰 지진이 차례로 나타난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5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 안팎으로 쓰여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음.
- 내용이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6장 이후 인봉 땀으로 드러남.
- 미해결로 보존.

Q2. 어린양의 일곱 뿔과 일곱 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6절) — 일곱 눈은 본문이 직접 설명함.
- 일곱 뿔의 의미는 이 장에서 더 설명되지 않음. 미해결로 보존.

Q3.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9절)는 어느 범위를 가리키는가?

- 본문이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10절)는 언제의 일인가?

- 현재인지 미래인지 본문 안에서는 미확정.
- 미해결로 보존.

Q5. 새 노래(ode kaine)가 "새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 4장의 경배 찬양과 구별되어 "새 노래"로 불림.
- 구속 사건에 기반하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것들"(13절)의 찬양은 어떤 형태인가?

- 목소리가 있는 존재들의 찬양인지, 다른 방식인지 이 절이 구체화하지 않음.
- 만물의 찬양이 청각적 사건인지 아닌지 미확정.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6장

REV-006 · 예언서(신약) · 헬라어

여섯 인 심판의 시작 — 어린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하나씩 떼다. 흰 말(hippos leukos)·붉은 말·검은 말·청황색 말(hippos chloros)이 차례로 나오며 정복·전쟁·기근·사망이 따른다. 다섯째 인에서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느 때까지니이까"를 외치고, 여섯째 인에서는 큰 지진과 해·달·별의 변동이 일어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는 고백이 터진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예언.
- 무대: 하늘(인봉 떼는 어린양)·땅(말들이 나와 역사에 들어옴)의 이중 무대.
- 소품: 네 말(흰·붉은·검은·청황색)·활·면류관·칼·저울(zygon)·두루마기·지진·검은 해·핏빛 달·떨어지는 별.
- 반복: "이리로 오라"(1·3·5·7절)·"인봉을 떼셨다"의 공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네 말의 등장 리듬: 인봉 뚫→"이리로 오라"→말 등장.
- 다섯째 인: 순교자들의 "어느 때까지" 절규 — 이 장의 가장 인격적 순간.
- 여섯째 인: 우주적 변동·신분 무관한 도주·"누가 능히 서리요" 열린 질문.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어린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 이리로 오라"
-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 인봉 시작(1절) → 여섯 인봉 후 열린 질문(17절). 강도가 높아지는 흐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어린양(인봉 떼는 이)·네 생물·네 말과 탄 자들·순교자들 영혼(psychai)·모든 신분의 사람들.
- 상황: 인봉 뚫마다 새 재앙 등장. 순교자의 절규와 쉬라는 응답. 우주적 변동과 도주.
- 사상 핵: 심판이 어린양의 주권에서 나옴. "어느 때까지"의 기다림. "누가 능히 서리요"의 열린 질문.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첫째 인 — 흰 말·활·면류관·정복.
- 컷 2 (3-4절): 둘째 인 — 붉은 말·큰 칼·화평 빼앗음.
- 컷 3 (5-6절): 셋째 인 — 검은 말·저울·데나리온 기근.
- 컷 4 (7-8절): 넷째 인 — 청황색 말·사망·음부·땅 사분의 일 권세.

- 컷 5 (9-11절): 다섯째 인 — 순교자 영혼·"어느 때까지"·흰 두루마기·기다리라.
- 컷 6 (12-17절): 여섯째 인 — 큰 지진·우주 변동·도주·"누가 능히 서리요".

6 — (1) 원어 카드

- hippos leukos(ἵππος λευκός) — 흰 말. 2절.
- hippos pyrrhos(ἵππος πυρρός) — 붉은 말. 4절.
- hippos melas(ἵππος μέλας) — 검은 말. 5절.
- hippos chloros(ἵππος χλωρός) — 청황색 말(창백한 녹색). 8절.
- thanatos(θάνατος) — 사망. 8절.
- hades(ᾍδης) — 음부. 8절.
- psychai(ψυχαί) — 영혼들. 9절.
- heos pote(ἕως πότε) — 어느 때까지. 10절.
- seismos(σεισμός) — 지진. 12절.
- orge(ὀργή) — 진노. 17절.

6 — (2) 문학 구조

- 1-8절: 네 말 — 반복 공식(인봉→이리로 오라→말 등장→행위/권세).
- 9-11절: 다섯째 인 — 목소리(절규·응답). 1-8절의 행위 서술과 대조.
- 12-17절: 여섯째 인 — 우주적 스케일의 변동. 강도 절정.
- 6:17 "누가 능히 서리요" ↔ 7:1-4 인 맞은 자들 — 열린 질문이 7장으로 이어짐.
- 순교자들에게 주어진 흰 두루마기 ↔ 3:5(사데의 흰 옷) 평행.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네 말 환상 — 스가랴 1:8·6:1-8의 말 환상과 평행 가능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 — 1세기 로마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던 것으로 알려짐(배경 자료로만).
-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14절) — 이사야 34:4 평행 가능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chloros(청황색) — 시체 색깔에 가까운 창백한 녹색으로 알려짐(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6:8 ↔ 계 1:18 (thanatos·hades — 인자 같은 이가 열쇠를 가지심)
- 계 6:11 ↔ 계 3:5 (흰 옷/흰 두루마기 반복)
- 계 6:17 ↔ 계 7:1-4 (누가 능히 서리요 → 인 맞은 자들)
- 계 6:10 ↔ 계 19:2 (피를 갚으심 반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린양이 첫 인봉을 떼자 네 생물이 "이리로 오라"를 외치고 흰 말이 등장한다. 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받아 정복하러 나간다. 둘째 인봉 — 붉은 말, 큰 칼로 땅에서 화평을 빼앗는다. 셋째 인봉 — 검은 말, 저울을 든 자. 음성 —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봉 — 청황색 말(hippos chloros). 탄 자의 이름이 thanatos이고 hades가 따라간다. 땅 사분의 일에 죽이는 권세를 받는다. 다섯째

인봉이 떼어진다.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psychai)이 있다. 그들이 외친다 — "어느 때까지(heos pote) 하시려 하나이까." 흰 두루마기가 주어지고 "잠시 동안 더 쉬라"는 응답을 받는다. 여섯째 인봉 — 큰 지진(seismos).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긴다.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굴에 숨어 외친다 —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orge)에서 가리우라." 마지막 —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어느 때까지니이까 — 인봉이 열리고 순교자들이 절규하다"
- 초별 부제: "여섯 인 심판 — 흰·붉은·검은·청황색 말, 누가 능히 서리요"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hippos leukos·hippos chloros·thanatos·hades·psychai·heos pote·seismos·orge·zygon·orge)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데나리온 하루 임금, 스가랴 말 환상 평행, 이사야 34:4 평행)
- [x] 이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흰 말 탄 자의 정체를 단정하지 않도록 → 미확정 관찰로 보존.
- 네 말의 역사적 사건 대응을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여섯째 인의 우주 변동을 문자적·상징적으로 확정하지 않도록 → 관찰로만 기술.
- "어느 때까지"의 답을 이 장에서 단정하지 않도록 → 7장으로 이어지는 미완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양이 일곱 인봉을 하나씩 떼면서 흰·붉은·검은·청황색 네 말의 재앙이 나오고,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어느 때까지"(heos pote)가 들리고, 여섯째 인에서 우주적 변동과 모든 신분의 도주가 일어나며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열린 질문으로 닫히는 심판 시작의 장이다.

한 문단: 5장에서 어린양이 취한 두루마리의 인봉들이 하나씩 열린다. 각 인봉이 떼 때마다 말이 등장하고 재앙이 따른다 — 정복·전쟁·기근·사망(thanatos)·음부(hades). 넷째 인에서 땅 사분의 일에 권세가 주어진다. 다섯째 인에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psychai)이 "어느 때까지"를 외치고 쉬라는 응답을 받는다. 여섯째 인에서 큰 지진·우주 변동·모든 신분의 도주가 일어나며 "어린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하늘(인봉 땀)·땅(말 등장) 이중 무대. 네 말·저울·두루마기·지진·우주 변동.
2 첫 느낌·분위기	네 말의 반복 리듬. 다섯째 인의 인격적 절규. 여섯째 인의 우주적 절정.
3 시작과 끝	시작: 첫째 인봉 땀(1절). 끝: "누가 능히 서리요"(17절) 열린 질문.
4 등장인물·상황·사상	어린양 주권의 심판. 순교자 절규와 기다리라 응답. 신분 무관한 도주.
5 장면 컷	인봉별 6컷: 흰·붉은·검은·청황색 말, 순교자 절규, 우주 변동·도주.
6 의문·발견·정보	흰 말 탄 자 미확정. 6:8↔1:18(thanatos·hades 열쇠). 6:17→7장 열린 질문.
7 동영상	인봉→말→재앙→순교자 절규→흰 두루마기→우주 변동→도주→"누가 서리요".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어느 때까지니이까". 부제: "여섯 인 심판 — 누가 능히 서리요".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어느 때까지니이까" 앞에 섬.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림.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어린양의 주권과 심판:** 6장의 인봉을 떼는 주체가 어린양이다. 재앙들이 어린양의 행위에서 나온다. 1:18에서 인자 같은 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고, 6:8에서 thanatos와 hades가 "권세를 받는다" — 제한된 권세를 받는 구조가 관찰된다. 심판이 어린양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 결 2 — 순교자의 "어느 때까지"와 응답:**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절규가 들린다. "어느 때까지"(heos pote)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잠시 동안 더 쉬라"이다. 즉각적 심판이 아니라 기다림이 주어진다. 흰 두루마기도 주어진다 — 3:5의 사데 약속과 평행하는 요소다.
- 결 3 — 6:17의 열린 질문과 7장의 연결:**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이 6장을 닫는다. 이 질문이 7장의 인 맞은 자들 — "능히 설 수 있는 자들"로 이어지는 것이 관찰된다. 심판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구조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6:8 ↔ 계 1:18** (thanatos·hades 열쇠), **계 6:11 ↔ 계 3:5** (흰 옷·흰 두루마기), **계 6:17 ↔ 계 7:1-4** (서리요 → 인 맞은 자들).

• 다른 권 — 속 1:8·6:1-8 (말 환상 평행), 사 34:4 (하늘 말림 평행), 시 79:5 (heos pote — 어느 때까지 평행).

• REV 흐름 — 6장의 인 심판이 7장(인 맞은 자들·큰 무리)·8장(일곱째 인·나팔 심판)으로 이어진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네 말이 등장하는 리듬 앞에 선다 — 역사의 사건들이 어린양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본다.
- 멈춤 1: 다섯째 인 —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느 때까지"를 외치는 장면 앞에 멈춘다.
- 멈춤 2: "잠시 동안 더 쉬라"는 응답 앞에 멈춘다 — 기다림이 응답이다.
- 멈춤 3: 여섯째 인에서 모든 신분이 굴에 숨는 장면 — "왕들과 부자들도" 숨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누가 능히 서리요"(17절) — 이 질문 앞에 선다.

F·자족성 점검

- [x] 여섯 인봉과 각 재앙이 관찰됨
- [x] 순교자들의 "어느 때까지"와 응답(흰 두루마기·기다리라)이 관찰됨
- [x] 여섯째 인의 우주 변동과 도주 장면이 관찰됨
- [x] thanatos·hades의 제한된 권세가 관찰됨
- [x] 6:17의 열린 질문이 관찰됨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6장은 그 spine의 네 번째 국면 — 인·나팔·대접 심판의 시작이다. 5장에서 어린양이 취한 두루마리의 인봉들이 여기서 열리며 역사의 심판이 시작된다. spine의 "악을 심판하시고" 부분이 6장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동시에, 다섯째 인(9-11절)에서 고난받는 순교자들의 "어느 때까지"가 들린다 — spine의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이 장에서 기다림과 씬으로 나타난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양 첫 인봉 땀(1절) → 네 말의 재앙(1-8절) → 순교자의 "어느 때까지"(9-10절) → 기다리라(11절) → 우주 변동·도주(12-16절) → "누가 능히 서리요"(17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6장은 어린양의 주권으로 역사의 심판이 열리고, 그 안에서 고난받는 교회의 절규가 들리며, 열린 질문으로 7장을 향해 미는 운동이다. REV 흐름에서 이 장은 인·나팔·대접 심판 국면(6-16장)을 시작하는 첫 장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여섯 인봉이 열리며 재앙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역사의 고난이 어린양의 주권 아래 제한된 범위에서 일어남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중, 그리고 고난 속에서 "어느 때까지"를 외치는 자들에게 씬과 기다림을 주시는 심정이다. "잠시 동안 더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11절) — 심판의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도 어린양의 손에 있다. 고난받는 교회들이 이 장에서 얻는 것은, 그 고난이 통제되지 않는 혼돈이 아니라 어린양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때까지니이까" — 이 외침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그 외침에 "잠시 더 쉬라"는 응답을 받을 귀가 열려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6장은 독자를 심판 앞에 서게 하기도 하고,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자리에 세우기도 한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7장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 인 맞은 십사만 사천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 로 이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heos pote(어느 때까지).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6:17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이 7장에서 인 맞은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로 응답된다 — 어린양이 목자가 되어 눈물을 씻기신다(7:17).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6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흰 말 탄 자(첫째 인)는 누구인가?

-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려 나감.
- 정체가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6절)는 왜인가?

- 기근 심판 안에서 특정 것들이 보호된다는 것이 관찰됨.
- 이유가 이 절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11절)는 어떤 의미인가?

- 정해진 수가 있다는 것인지, 다른 의미인지 이 장에서 더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넷째 인에서 "땅 사분의 일의 권세"(8절)는 왜 제한되는가?

- 전체가 아닌 부분 심판이라는 것이 관찰됨.
- 이 제한의 이유가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5.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14절)는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 본문이 이것이 상징인지 문자적인지 설명하지 않음.
- 관찰로만 기술하고 보존.

Q6. 17절 "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한 응답은 무엇인가?

- 이 질문이 6장을 닫는 열린 질문이에요.
- 7장에서 인 맞은 자들이 이어지나 직접 응답인지는 이 절이 말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7장

REV-007 · 예언서(신약) · 헬라어

심판 중의 삽입 환상 — 6:17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응답하듯, 7장은 인 맞은 십사만 사천(hekaton tesserakonta tessares chiliades)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ochlos polys)를 보여준다.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가 어린양의 피로 옷을 빨아 희게 하고, "어린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리라"(7:17)는 약속으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예언.
- 무대: 땅(1-8절, 인 치는 행위)·하늘(9-17절, 큰 무리 환상)의 이중 무대.
- 소품: 인(sphragis)·이마·흰 두루마기(stole leuke)·종려 가지·어린양·생명수 샘(pege)·눈물(dakryon).
- 반복: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 5:9와 동일 표현. 흰 두루마기 ↔ 3:5·6:11 반복.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6장 심판의 혼돈 이후 바람이 멈추는 공간 — 심판 멈춤.
- 십사만 사천(정확한 수)과 큰 무리(셀 수 없는 수)의 대조.
- 7:17의 눈물 씻기심 — REV 1-7장의 가장 따뜻한 순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 일 후에 ...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붙지 못하게 하더라"
- 17절: "어린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 모든 눈물을 씻기시리라"
- 심판 멈춤(1절) → 보호받는 자들 → 눈물 씻기심(17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네 천사·인을 가진 천사·인 맞은 십사만 사천·큰 무리·천사들·이십사 장로·네 생물·어린양·하나님.
- 상황: 인 치기까지 심판 멈춤. 큰 무리가 어린양의 피로 옷 빨아서 있음. 눈물 씻기심.
- 사상 핵: 어린양의 피로 희게 됨(14절)·어린양이 목자(17절)·하나님께서 눈물 씻기심(17절)·soteria(구원)이 하나님과 어린양에게(10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바람 멈춤·인 치기까지 해치지 말라 — 심판 멈춤·보호 선언.
- 컷 2 (4-8절): 인 맞은 십사만 사천 — 열두 지파 명단.
- 컷 3 (9-17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흰 두루마기·종려 가지·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눈물 씻기심.

6 — (1) 원어 카드

- sphragis(σφραγίς) — 인. 2절.
- hekaton tesserakonta tessares chiliades(ἑκατὸν τεσσαράκοντα τέσσαρες χιλιάδες) — 십사만 사천. 4절.
- ochlos polys(ὄχλος πολὺς) — 큰 무리. 9절.
- stole leukē(στολὴ λευκή) — 흰 두루마기. 9절.
- soteria(σωτηρία) — 구원. 10절.
- thlipsis megale(θλίψις μεγάλη) — 큰 환난. 14절.
- arnion(ἀρνίον) — 어린양. 14절.
- poimen(ποιμήν) — 목자. 17절. 동사 poimainei.
- pege hydatos zoes(πηγὴ ὕδατος ζωῆς) — 생명수 샘. 17절.
- dakryon(δάκρυον) — 눈물. 17절. exaleipsei — 씻기시리라(지우다·닦다).

6 — (2) 문학 구조

- 7장이 6장(여섯 인)과 8장(일곱째 인) 사이의 삼입 환상.
- 6:17 "누가 능히 서리요" ↔ 7:9 보좌 앞에 "서 있는" 큰 무리의 응답 구조.
- 십사만 사천(정확한 수) ↔ 큰 무리(셀 수 없는 수)의 대조.
- 7:17 ↔ 21:4 (눈물 씻기심 반복 — 7장이 선취적 약속으로 보임).
- 장로의 질문과 요한의 응답 대화(13-14절) — 설명 구조.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십사만 사천 지파 명단에서 단 지파 빠짐·므낫세 추가 — 이유 미확정(배경 자료로만).
- "어린양의 피에 씻어 희게" — 역설적 표현. 붉은 피로 희게 됨은 본문의 고유 표현(확정 아님, 관찰로만).
- 종려 가지 — 1세기 유대 관습에서 승리·축제 상징으로 알려짐(배경 자료로만).
- exaleiphein(지우다) — 서기·기록을 지우는 동사로 사용됨(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7:9 ↔ 계 5:9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반복)
- 계 7:17 ↔ 계 21:4 (눈물 씻기심 반복)
- 계 7:14 ↔ 계 6:11 (흰 두루마기 반복)
- 계 7:17 ↔ 시 23:1-2 (어린양이 목자·물가로 인도 — 시편 평행)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 멈춘다. 해 돋는 데서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와 외친다 —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지 말라." 인 맞은 자들의 수가 들린다 —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각 만 이천씩 총 십사만 사천이다. 장면이 바뀐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ochlos polys)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 —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이십사 장로·네 생물이 엎드려 경배한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고, 요한이 답하고, 장로가 설명한

다 — "이는 큰 환난(thlipsis megale)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섬기매 …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절정 — 7: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poimen)가 되사 생명수 샘(pege hydatos zoes)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dakryon)을 씻기시리라(exaleipsei)."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리라 — 7:17"
- 초벌 부제: "큰 환난에서 나온 큰 무리 — 어린양이 목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sphragis·ochlos polys·soteria·thlipsis megale·arnion·poimen·pege hydatos zoes·dakryon·exaleipsei·stole leuke)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종려 가지 관습, 단 지파 빠짐, exaleiphein 동사 의미)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3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십사만 사천을 특정 종파나 집단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가 동일 무리인지 다른 무리인지 단정하지 않도록 → 미확정 관찰.
- 큰 환난의 역사적 시점을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로만 기술.
- 7:17의 눈물 씻기심 시점을 현재로 단정하지 않도록 → 21:4와의 관계 미확정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7장은 6장의 심판 흐름이 잠시 멈추고 인 맞은 십사만 사천(hekaton tesserakonta tessares chiliades)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ochlos polys)를 보여주며, 그 무리가 큰 환난(thlipsis megale)에서 나와 어린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하고, "어린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눈물을 씻기시리라"(7:17)는 약속으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4천사가 바람을 멈추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진다. 인 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만 이천씩 십사만 사천이다. 이후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 있다. 장로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로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땅(인 치는 행위)·하늘(큰 무리 환상) 이중 무대. 인·흰 두루마기·종려 가지·생명수 샘·눈물.
2 첫 느낌·분위기	심판 멈춤. 십사만 사천(정확한 수)↔큰 무리(셀 수 없음) 대조. 7:17의 눈물 씻기심.
3 시작과 끝	시작: 바람 멈춤·인 치기까지(1절). 끝: 눈물 씻기심(17절). 보호→약속의 흐름.
4 등장인물·상황·사상	어린양의 피로 흰 옷(14절)·어린양이 목자·soteria가 하나님과 어린양에게(10절).
5 장면 컷	컷1 심판 멈춤(1-3), 컷2 십사만 사천(4-8), 컷3 큰 무리·눈물 씻기심(9-17).
6 의문·발견·정보	십사만 사천↔큰 무리 관계 미확정. 7:17↔21:4 눈물 씻기심 반복. 단 지파 미확정.
7 동영상	바람 멈춤→인 치기→큰 무리 등장→"구원하심이"→장로 설명→눈물 씻기심.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모든 눈물을 씻기시리라". 부제: "어린양이 목자·큰 무리·생명수 샘".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모든 눈물을 씻기시리라" 앞에 섬.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림.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6:17과 7:9의 응답 구조:** "누가 능히 서리요"(6:17)라는 질문이 7장의 "보좌 앞에 서 있 는"(hestotes) 큰 무리로 응답된다. 그들이 셀 수 있는 근거가 어린양의 피(14절)이다. 서 있는 자들이 있 다는 것, 그 근거가 어린양의 피라는 것이 이 두 장의 연결이다.
- 결 2 — 어린양이 목자라는 역설:** 5장에서 죽음 당한 어린양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취했다. 7장에서 그 어 린양이 목자(poimen)가 된다. 어린양이 목자라는 표현은 이 장의 고유한 역설이다. 어린양이 이기는 방식 (죽임 당함)과 인도하는 방식(목자가 됨)이 연결되어 있다.
- 결 3 — 7:17과 21:4의 선취:** 7:17의 "눈물을 씻기시리라"가 21:4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리라"로 반복된 다. 7장이 새 하늘 새 땅의 약속을 선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다른 시점인지 이 장에서는 미확정이나, 같 은 약속이 두 번 반복된다는 관찰이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7:9 ↔ 계 5:9 (각 족속·방언·백성·나라 반복), 계 7:17 ↔ 계 21:4 (눈물 씻기심 반복), 계 7:14 ↔ 계 6:11 (흰 두루마기 반복).
- 다른 권 — 시 23:1-3 (어린양이 목자·물가로 인도 평행), 사 25:8 (눈물 씻기심 평행), 사 49:10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음 평행).
- REV 흐름 — 7장의 눈물 씻기심 약속이 21:4에서 새 하늘 새 땅의 완성으로 재확인된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바람이 멈추는 장면 — 심판 중에도 멈추시는 자리를 본다.
- 멈춤 1: 9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 그 무리 안에 내가 있는지를 본다.
- 멈춤 2: 14절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 이 역설 앞에 멈춘다.
- 멈춤 3: 17절 "어린양이 목자가 되사" — 어린양이 목자라는 것 앞에 멈춘다.
- 끝: 17절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리라" — 이 약속 앞에 선다.

F · 자족성 점검

- [x] 인 맞은 십사만 사천과 열두 지파 명단이 관찰됨
- [x]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흰 두루마기·종려 가지가 관찰됨
- [x]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어린양의 피로 희게 됨이 관찰됨
- [x] 어린양이 목자·생명수 샘·눈물 씻기심(7:17)이 관찰됨
- [x] 6:17↔7:9의 응답 구조가 관찰됨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7장은 그 spine에서 심판 국면(6-16장) 중의 삼입 환상 — 보호받는 자들과 눈물 씻기심의 선취적 약속이다. spine의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심"과 "눈물을 씻기심"이 7장에서 구체적 장면으로 나타난다. 7:17의 "눈물을 씻기시리라"는 REV의 spine이 향하는 새 하늘 새 땅(21-22장)의 약속을 심판 한가운데에서 선취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심판 멈춤·인 치기(1-3절) → 십사만 사천(4-8절) → 큰 무리의 서 있음(9절) → "구원하심이 어린양에게"(10절) → 어린양의 피로 흰 옷(14절) → 어린양이 목자·눈물 씻기심(17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7장은 심판 중에 보호받는 자들이 있음을 보이며, 그 보호의 근거가 어린양의 피임을 드러내고, "눈물을 씻기시리라"는 약속으로 닫히는 운동이다. REV 흐름에서 이 장은 심판 국면(6-16장) 중에 삼입된 쉼표로,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심판의 끝에 있는 눈물 씻기심을 먼저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인 맞은 자들의 수와 큰 무리의 경배 장면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심판 중에도 보호받는 자들을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중,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려는 심정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 심판의 흐름 안에 삼입된 이 환상이 고난받는 교회들을 위한 것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큰 무리가 어린양 앞에 서 있는 것 — 이 장면이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보여지는 이유는 그들이 큰

환난 속에 있기 때문이다. "어린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리라" — 이것이 REV spine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리라"(7:17) —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이 이 약속 안에 있는지, 어린양이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그 생명수 샘 앞에 내가 서 있는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7장은 독자를 큰 무리가 서 있는 자리(9절)에도, 어린양이 씻기시는 눈물의 자리(17절)에도 세운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8장에서 일곱째 인봉이 열리며 나팔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7장의 눈물 씻기심 약속이 고난받는 교회들이 이 심판 이후를 향해 나아가는 근거가 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dakryon(눈물).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7장에서 눈물 씻기심이 약속되고, 8장에서 일곱째 인봉이 열리며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 — 그러나 심판 속에서도 7:17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7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는 같은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 전반부(1-8절)는 정확한 수·이스라엘 지파. 후반부(9-17절)는 셀 수 없는 수·각 나라와 족속.
- 동일 무리인지 다른 무리인지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십사만 사천 지파 명단에서 단 지파가 빠진 이유는?

-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큰 환난"(14절)은 어느 시점의 사건인가?

- 큰 환난(thlipsis megale)의 시점이 이 장에서 구체화되지 않음.
- 과거 사건인지 미래 사건인지 관찰로 미확정.
- 미해결로 보존.

Q4. 7:17의 눈물 씻기심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 21:4에서도 같은 약속이 반복됨.
- 7장의 눈물 씻기심이 21장의 새 하늘 새 땅과 동일 시점인지, 선험적 약속인지 미확정.
- 미해결로 보존.

Q5.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14절)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

- 본문이 피로 씻어 희게 된다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함.

- 구체적 사건이나 과정을 이 절이 더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종려 가지를 손에 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종려 가지가 이 절에서 해석 없이 소품으로 등장함.
- 승리·축제의 상징으로 알려진 배경이 있으나 본문이 직접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8장

REV-008 · 예언서(신약) · 헬라어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진다. 금 향로를 가진 천사가 성도의 기도와 향을 섞어 보좌 앞에 드리고, 그 향로의 불을 땅에 쏟으니 번개·우레·지진이 일어난다. 이어 일곱 나팔 천사가 준비를 마치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차례로 불어 땅·바다·강·하늘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는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화 화 화"(ouai ouai ouai)를 외치며 아직 남은 세 나팔을 예고한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예언.
- 무대: 하늘 보좌 공간(1-6절) → 땅·바다·강·하늘(7-12절) 이중 무대.
- 핵심 소품: 금 향로(thymiaterion)·향(thymiama)·성도의 기도·금 제단·일곱 나팔(salpinx)·우박·불·피(haima)·별(apsinthos)·독수리.
- 반복: "삼분의 일"(tritōs) — 7-12절 9회 이상 반복. "나팔을 부니" — 4회 반복.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 고요(sige): 인 떼기 뒤 하늘의 침묵 — 무언가 오기 전의 정적.
- 4절: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 — 기도의 도달.
- 7-12절: 피조 세계 네 영역이 차례로 삼분의 일씩 타격받음.
- 13절: ouai ouai ouai — 세 번의 탄식이 더 남은 화를 예고.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 13절: "화 화 화로다 땅에 사는 자들이여 아직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당할 화가 남아 있도다"
- 고요(시작) → 더 남은 화의 예고(끝). 8장은 완결이 아닌 열린 결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일곱 나팔 천사들·향로 천사(별도)·요한·독수리·"땅에 사는 자들"(예고 대상).
- 상황: 인 떼기 후 고요 → 기도 봉헌 → 심판 불 쏟음 → 네 나팔 실행 → 화 예고.
- 사상 핵: 성도의 기도와 심판의 연결(3-5절). 삼분의 일 심판의 제한성. ouai 예고의 긴장.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일곱째 인 — 하늘의 반 시간 고요.
- 컷 2 (2-6절): 일곱 천사·향로 기도·불 쏟음·나팔 준비.

- 컷 3 (7-12절): 첫째~넷째 나팔 — 땅·바다·강·하늘 삼분의 일 심판.
- 컷 4 (13절): 독수리 ouai 삼중 예고.

6 — (1) 원어 카드

- sige(σιγή) — 고요·침묵. 1절. 하늘의 반 시간 침묵.
- salpinx(σάλπιγξ) — 나팔. 2절 외. 일곱 나팔 심판의 도구.
- thymiaterion(θυμιατήριον) — 향로. 3절.
- thymiamma(θυμίαμα) — 향. 3절·4절.
- proseuche(προσευχή) — 기도. 3절·4절. 성도의 기도.
- haima(αἷμα) — 피. 7절·8절.
- tritos(τρίτος) — 삼분의 일. 7-12절 반복.
- apsinthos(ἄψινθος) — 쭉. 11절. 셋째 나팔 별의 이름.
- ouai(οὐαί) — 화·탄식. 13절. 세 번 반복.
- aetos(ἄετός) — 독수리. 13절.

6 — (2) 문학 구조

- 8장이 인 심판(6장)과 나팔 심판의 경첩 —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의 입구 역할.
- "나팔을 부니" + "삼분의 일" 반복 구조 — 7-12절의 네 나팔이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됨.
- 기도 올라감(4절) ↔ 불 내려옴(5절) — 역방향 운동의 대칭.
- 13절의 ouai 삼중 — 세 번의 화가 다섯째·여섯째·일곱째 나팔에 대응함.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우박·불·피 심판 — 출애굽 재앙(출 7-9장)과 이미지가 겹칠 수 있으나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음(배경 자료로만).
- 빛의 어두워짐 — 출 10:21-23(흑암 재앙)과 이미지 평행 가능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apsinthos(쭉) — 쓴 물을 만드는 식물. 구약에서 쭉은 재앙·쓴 고통과 연결될 수 있으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8:3-4 ↔ 계 5:8 (성도의 기도=향 반복)
- 계 8:1 ↔ 계 6:1-17 (인 심판 → 일곱째 인으로 이어지는 구조)
- 계 8:13 ↔ 계 9장·11:15 (다섯째·여섯째·일곱째 나팔 예고)
- 계 8:5 ↔ 계 11:19·16:18 (번개·우레·지진 반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린양이 일곱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진다(1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다(2절).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성도의 모든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린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3-4절). 그 향로에 제단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번개와 우레와 음성들과 지진이 난다(5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6절). 첫째 나팔 —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땅에 쏟아지고, 땅과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고 모든 풀이 타 버린다(7절).

둘째 나팔 —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어 바다 생물의 삼분의 일 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진다(8-9절). 셋째 나팔 —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강들의 삼분의 일과 샘들에 떨어지고, 별 이름이 쑥(apsinthos)이며 물이 쓴 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다(10-11절). 넷째 나팔 — 해·달·별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의 빛의 삼분의 일이 사라진다(12절). 요한이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 를 보는데, 독수리가 "화 화 화로다(ouai ouai ouai) 아직 세 화가 남아 있도다"를 외친다(13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반 시간의 고요 —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나팔 심판이 시작되다"
- 초벌 부제: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열고 — 피조 세계의 삼분의 일이 타격받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sige·salpinx·thymiaterion·thymiam·proseuche·haima·tritos·apsinthos·ouai·aeto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출애굽 재앙 이미지 평행, apsinthos 쑥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성도의 기도가 심판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 기도 봉헌과 심판 연결을 구조 관찰에 머물.
- 삼분의 일을 특정 역사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 수량적 패턴 관찰에 머물.
- 출애굽 재앙과의 연결을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배경 자료로만 남겨 둬.
- 독수리의 상징적 의미를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이 떼어진 뒤 하늘이 반 시간 고요해지고,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뒤 불로 내려오며,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피조 세계의 땅·바다·강·하늘이 삼분의 일씩 심판받고, 독수리가 화(ouai)를 세 번 외치며 아직 남은 세 나팔을 예고하는 나팔 심판의 시작이다.

한 문단: 어린양이 일곱째 인을 떼자 하늘이 고요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같은 향로의 불이 땅에 쏟아지며 심판이 시작된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삼분의 일씩 차례로 타격받는다. 장 마지막에 독수리가 공중에서 화를 세 번 외치며 아직 다섯째·여섯째·일곱째 나팔이 남아 있음을 예고한다. 8장은 완결이 아닌 진행 중인 심판의 첫 막이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하늘(1-6절) → 땅·바다·강·하늘(7-12절) 이중 무대. 향로·기도·나팔·우박·불·피·쑥·독수리.
2 첫 느낌·분위기	1절 고요(sige)·4절 기도 도달·7-12절 삼분의 일 반복·13절 ouai 삼중.
3 시작과 끝	시작: 반 시간 고요(1절). 끝: ouai 예고(13절). 열린 결말 — 9장으로 이어짐.
4 등장인물·상황·사상	향로 천사·일곱 나팔 천사·독수리. 기도·심판 연결(3-5절). 삼분의 일 제한성.
5 장면 컷	컷1 고요(1), 컷2 준비(2-6), 컷3 네 나팔(7-12), 컷4 예고(13).
6 의문·발견·정보	기도↔불의 역방향 구조. tritos 9회 반복. apsinthos 별 이름. 미해결 6건.
7 동영상	고요→기도 봉헌→불 쏟음→첫째~넷째 나팔→ouai 예고.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반 시간의 고요". 부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나팔 심판이 시작되다".
9 동영상 안 겉기·기도	"성도의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간다"(4절) 앞에 섬.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기도와 심판의 연결:** 3-5절에서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4절), 그 향로에 제단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심판이 시작된다(5절). 본문이 이 연결을 명시적으로 배열해 놓았다. 기도가 먼저 올라가고, 심판이 그 다음이다.
- 결 2 — 삼분의 일의 반복:** "삼분의 일"(tritos)이 7-12절에서 9회 이상 반복된다. 전면적 파멸이 아닌 제한된 심판이다. 13절 "아직 세 화가 남아 있도다" — 이것이 끝이 아님을 예고한다. 제한성과 연속성이 이 구간의 심판의 특성이다.
- 결 3 — 고요와 예고의 대칭:** 1절의 고요(sige)와 13절의 화(ouai) 삼중이 8장의 수미를 이룬다. 침묵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이 구조가 8장이 아직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8:3-4 ↔ 계 5:8 (성도의 기도=향 반복), 계 8:5 ↔ 계 11:19·16:18 (번개·우레·지진 반복), 계 8:13 ↔ 계 9장·11:15 (나팔 예고).
- 다른 권 — 출 7-10장(우박·불·피·흑암 재앙 이미지 평행,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8장의 나팔 심판이 9장(다섯째·여섯째 나팔)과 11:15(일곱째 나팔, 이 구간의 정점)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반 시간의 고요 — 하늘이 침묵할 때 그 공간에 서 본다.
- **멈춤 1:** 4절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 — 내 기도가 이 공간에 있는지 멈춘다.
- **멈춤 2:** 11절 물이 쓴 물이 되어 사람이 죽는 장면 — 심판의 현실 앞에 멈춘다.
- **멈춤 3:** 13절 ouai ouai ouai — 아직 세 화가 남아 있다는 예고 앞에 멈춘다.
- **끝:** "성도의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간다"(4절) — 이것이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와 이어지는지를 본다.

F· 자족성 점검

- [x] 일곱째 인과 반 시간 고요가 관찰됨
- [x] 성도의 기도-향-심판 연결이 관찰됨
- [x] 첫째~넷째 나팔 심판(땅·바다·강·하늘)이 관찰됨
- [x] 삼분의 일 반복 패턴이 관찰됨
- [x] ouai 삼중 예고가 관찰됨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8장은 그 spine의 나팔 심판 시작 국면이다 — 어린양이 5장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6장에서 인봉들이 떼어지기 시작했으며, 8장에서 일곱째 인이 열리며 나팔 심판의 첫 막이 시작된다. 이 심판은 어린양의 손에서 나온다 — spine의 핵심인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가 심판의 주권으로 표현되는 자리다. 고난받는 교회들이 처한 악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나팔 심판 구간(8~9·11장)에 나타난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반 시간의 고요와 성도의 기도(1-4절) → 심판의 불이 쏟아지며 나팔이 울리기 시작함(5-12절) → 아직 세 화가 남아 있음(13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8장은 인이 떼어진 뒤의 고요 속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가 드러진 뒤 피조 세계에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운동이다. REV 흐름에서 이 장은 spine의 "악을 심판하심" 국면의 첫 나팔이며, 11:15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일곱째 나팔을 향해 가는 진행의 시작이다.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 이 장의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피조 세계가 하나씩 타격받는 심판의 장면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고난받는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의중, 그리고 역사가 어린양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심정이다. 삼분의 일의 제한된 심판 — 전면적 종말이 아직 아니다. 고요(sige, 1절) — 심판이 오기 전 성도의 기도

가 드러지는 공간을 하나님이 여신다. 이것이 고난받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다 — 네 기도가 향로에 담겨 내 앞에 있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역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 성도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사실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8장은 독자를 1절의 고요 앞에도, 4절의 기도 공간에도 세운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9장의 다섯째·여섯째 나팔로, 그리고 11:15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정점으로 이어진다. 고난받는 교회들이 이 장에서 얻는 것은, 기도가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고 금 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에 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ouai(화).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13절 예고된 세 화가 9장(다섯째 나팔 — 황충, 여섯째 나팔 — 이만 만의 마병)에서 실행된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8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일곱째 인이 열릴 때 하늘이 반 시간 고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1절 —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는 침묵의 이유가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 심판 준비의 공간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 미해결.
- 미해결로 보존.

Q2. 향로 천사(3절)는 일곱 나팔 천사들과 같은가 다른가?

- "또 다른 천사"(3절) — 일곱 천사와 구분된 존재로 묘사됨.
- 이 천사의 정체가 이 장에서 더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성도의 기도와 심판 불이 연결된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4절(기도 올라감) → 5절(불 쏟아짐) 구조가 관찰됨.
- 이 연결이 기도가 심판을 일으킨다는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이 장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삼분의 일"의 반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7-12절에서 삼분의 일이 9회 이상 반복됨.
- 전면적 심판이 아닌 제한된 심판인지, 이 수치가 다른 의미인지 미해결.
- 미해결로 보존.

Q5. 셋째 나팔의 별 이름 "쑥"(apsinthos)은 왜 이름이 붙어 있는가?

- 네 나팔 중 셋째 나팔의 별만 이름이 있음.
-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독수리가 예고하는 "화 화 화"는 다섯째·여섯째·일곱째 나팔과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가?

- 13절에서 세 번의 ouai가 세 나팔에 대응함이 암시됨.
- 각 ouai와 각 나팔의 정확한 대응이 이 절에서 설명되지 않음.
- 9장·11:15에서 더 확인 필요.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9장

REV-009 · 예언서(신약) · 헬라어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무저갱(abyssos)이 열리며 황충(akrides)이 올라온다. 황충들은 전갈 같은 권세로 다섯 달 동안 하나님의 인 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죽지도 못하게 한다. 황충의 왕은 Abaddon(히브리어) 혹은 Apollyon(헬라어)이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고 이만 만의 마병이 나타나 인류의 삼분의 일을 죽인다. 이 모든 재앙 뒤에도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예언.
- 무대: 무저갱(abyssos)·땅·유브라데 강 — 세 공간.
- 핵심 소품: 무저갱 열쇠·황충(akrides)·전갈(scorpions) 권세·Abaddon/Apollyon(11절)·네 천사·이만 만 마병·불·연기·유황.
- 반복: "다섯 달"(5절·10절)·"삼분의 일"(15·18절)·"회개하지 아니하더라"(20절·21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황충 묘사(7-10절) — 전부 "같더라" 비유. 불확실한 존재 묘사.
- 6절 —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 고통의 극한.
- 20-21절 — 회개하지 않는 결말. 재앙과 완고함의 대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더라"
-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 나팔 시작(1절) → 회개 거부(21절). 심판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결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별(1절)·황충들·Abaddon/Apollyon·인 침 받은 자(보호)·인 침 못 받은 자(고통)·유브라데 네 천사·이만 만 마병·살아남은 인류(회개 거부).
- 상황: 무저갱 열림→황충→다섯 달 고통(4-5절)→첫째 화 종료(12절)→이만 만 마병→삼분의 일 죽음→회개 거부.
- 사상 핵: 심판 가운데 보호(4절). 제한된 심판(5절·15절). 회개 거부(20-21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절): 다섯째 나팔 — 무저갱·황충·Abaddon/Apollyon·첫째 화 종료.

- 컷 2 (13-19절): 여섯째 나팔 — 네 천사·이만 만 마병·삼분의 일 죽음.
- 컷 3 (20-21절): 회개 거부 — 우상·살인·복술·음행·도둑질.

6 — (1) 원어 카드

- abyssos(ἄβυσσος) — 무저갱·깊은 구덩이. 1절·2절·11절.
- akrides(ἀκρίδες) — 황충·메뚜기. 3절.
- skorprios(σκορπίος) — 전갈. 3절·5절·10절.
- Abaddon(히브리어) / Apollyon(Ἀπολλύων, 헬라어) — 파멸/파괴자. 11절. 황충의 왕 이름.
- pentakaidekaetia — "다섯 달"(pente menas). 5절·10절.
- dyo myriades myriadon — 이만 만. 16절.
- metanoia(μετάνοια) / metanoeson — 회개(하지 않다). 20절·21절.
- pharmakeia(φαρμακεία) — 복술·마술·약. 21절.
- porneia(πορνεία) — 음행. 21절.
- kleptes(κλέπτης) — 도둑질. 21절.

6 — (2) 문학 구조

- 다섯째 나팔 심판(1-12절) + 여섯째 나팔 심판(13-19절) + 회개 거부(20-21절) — 3단 구조.
-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 내부 경계선.
- 황충 묘사(7-10절)의 "~갈더라" 비유 목록 — 8항목의 병렬 구조.
- 20-21절 회개 거부의 이중 반복 — 우상 항목(20절) + 행위 항목(21절).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Abaddon — 구약 욥기·잠언·시편에서 사자의 세계와 연결되는 단어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 문맥에서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황충 심판 이미지 — 구약 요엘서 황충 심판 이미지와 겹칠 수 있으나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음(배경 자료로만).
- pharmakeia — 신약 갈라디아서 5:20에도 나타나는 단어(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9:4 ↔ 계 7:3 (하나님의 인 침 받은 자 보호)
- 계 9:12 ↔ 계 8:13 (ouai 세 번 예고 → 첫째 화 완료)
- 계 9:20-21 ↔ 계 16:9·11 (회개하지 않음 반복)
- 계 9:1 ↔ 계 20:1-3 (무저갱·열쇠 반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별이 무저갱을 열고 황충들이 나온다. 황충들은 하나님의 인 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전갈처럼 고통스럽게 하되 죽이지는 않는다(1-5절).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한다(6절). 황충의 모양은 전쟁 말·금 면류관·사람 얼굴·여자 머리털·사자 이빨·쇠 갑옷·전차 소리·전갈 꼬리 — 전부 "갈더라"(7-10절). 황충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로 이름이 Abaddon/Apollyon이다(11절).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두 화가 남아 있다(12절).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금 제단 네 뿔에서 목소리가 나와 유브라데의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한다(13-14절). 네 천사가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채 놓인다(15절). 이만 만의 마병이 나타나 불·연기·유황으로 삼분의 일을 죽인다(16-18절). 이 재앙들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우상 숭배와 살인·복술·음행·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20-21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황충과 이만 만 마병 — 두 나팔 심판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
- 초벌 부제: "다섯 달의 고통과 삼분의 일의 죽음 이후에도 회개가 없더라"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abyssos·akrides·skorprios·Abaddon/Apollyon·pente menas·dyo myriades myriadon·metanoia·pharmakeia·porneia·klepte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baddon 구약 배경, pharmakeia 갈라디아서 평행, 요엘서 황충 이미지)
- [x] 이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3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황충 묘사를 특정 역사적 군대나 현대 무기로 단정하지 않도록 → "~같더라" 비유 관찰에 머물.
- 이만 만을 문자적 수치로 확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회개 거부를 교훈이나 도덕 적용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Abaddon/Apollyon의 신학적 신원 확정 금지 → 이름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로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 인 침 받지 않은 자들을 다섯 달 동안 고통스럽게 하고, 여섯째 나팔로 이만 만의 마병이 삼분의 일을 죽이는 심판이 차례로 임하지만, 그 모든 재앙 뒤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충격적 결말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들이 올라온다. 황충들은 인 침 받지 않은 자들을 전갈 처럼 다섯 달 동안 고통스럽게 하되 죽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황충의 왕 이름이 Abaddon/Apollyon이다. 첫째 화가 끝나고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이만 만의 마병이 불·연기·유황으로 삼분의 일을 죽인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우상 숭배도, 살인도, 복술도, 음행도, 도둑질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9장의 결말이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저갱·땅·유브라테 강. 황충·전갈·Abaddon/Apollyon·네 천사·이만 만 마병.
2 첫 느낌·분위기	황충 묘사 "갈더라" 비유. 6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함. 회개 없는 결말.
3 시작과 끝	시작: 나팔과 별(1절). 끝: 회개하지 아니하더라(21절). 심판·회개 거부 대조.
4 등장인물·상황·사상	인 침 받은 자(보호)·인 침 못 받은 자(고통). 제한된 심판. 회개 거부.
5 장면 컷	컷1 다섯째 나팔(1-12), 컷2 여섯째 나팔(13-19), 컷3 회개 거부(20-21).
6 의문·발견·정보	별 정체 미해결. 황충 묘사 비유 성격 미해결. 이만 만 수 미해결. 미해결 6건.
7 동영상	황충→다섯 달 고통→첫째 화 종료→이만 만→삼분의 일 죽음→회개 거부.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황충과 이만 만 마병". 부제: "두 심판 이후에도 회개가 없더라".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21절) 앞에 섬.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심판 가운데 보호:** 4절 "하나님의 인 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 황충이 제한된 권세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인 침 받은 자들은 그 제한 안에서 보호된다. 7장의 십사만 사천과 연결될 수 있는 이 보호 모티프가 9장 심판의 한복판에 있다.
- 결 2 — 제한된 심판의 의도:** 다섯째 나팔은 죽이지 못하게 하고(5절), 여섯째 나팔은 삼분의 일만 죽인다(18절). 8장의 삼분의 일 반복이 9장에서도 이어진다. 전면적 심판이 아닌 제한 — 이 제한이 무엇을 위한 것 인지는 미해결이지만, 아직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
- 결 3 — 회개 거부의 충격:** 20-21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 이 짧은 두 절이 9장 전체의 긴 심판 묘사를 새로운 의미로 비춘다. 심판이 회개를 목표로 하지만, 인간의 완고함이 그것을 막는다. 이 긴장이 이 장의 수면 아래에 있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9:4 ↔ 계 7:3 (인 침 받은 자 보호), 계 9:12 ↔ 계 8:13 (첫째 화 완료), 계 9:20-21 ↔ 계 16:9-11 (회개하지 않음 반복).

- 다른 권 — 욥 26:6·잠 15:11 (아바돈 배경, 배경 자료로만), 요엘 1-2장 (황충 이미지 평행,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9장의 다섯째·여섯째 나팔이 10-11장을 거쳐 11:15의 일곱째 나팔(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별이 떨어져 무저갱을 여는 장면 — 그 열린 문 앞에 서 본다.
- 멈춤 1: 4절 "하나님의 인 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 내가 이 보호 안에 있는지를 본다.
- 멈춤 2: 6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 이 절망의 현실 앞에 멈춘다.
- 멈춤 3: 20-21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 이 결말 앞에 멈춘다. 재앙도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완고함.
- 끝: 회개가 없는 자리와 인 침을 받은 자리 사이 —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본다.

F· 자족성 점검

- [x] 다섯째 나팔(황충)과 여섯째 나팔(마병)이 관찰됨
- [x] 인 침 받은 자의 보호(4절)가 관찰됨
- [x] 황충의 "~갈더라" 비유 묘사가 관찰됨
- [x] Abaddon/Apollyon 이름이 관찰됨
- [x] 회개 거부(20-21절) 결말이 관찰됨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9장은 그 spine의 나팔 심판 가운데 — 심판이 회개를 향한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완고한 회개 거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이다.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는 4절의 보호("인 침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가 이 심판 한복판에 있다. spine의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이 보호로 나타난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는 20-21절의 회개 거부 — 역사의 완성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올라오며 이만 만이 몰려오는 극한의 심판(1-19절) → 그 모든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20-2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9장은 심판이 극한에 이르러도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 —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인 침 받은 자들은 보호받는다는 두 흐름이 교차하는 운동이다. REV 흐름에서 이 장은 8장의 나팔 심판을 이어받아 10-11장을 거쳐 11:15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황충과 마병의 심판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그리고 그 원하심을 거부하는 인간의 완고함 앞에서의 하나님의 심정이다. 4절 —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20-21절 — 그러나 인간의 완고함이 하나님을 향해 달혀 있다. 이 긴장이 9장의 수면 아래에 있다. 고난받는 교회들이 이 장에서 얻는 것은, 가장 극한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 침이 보호한다는 사실이다.

재앙이 지나가도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 그리고 하나님의 인 침이 나를 덮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9장은 독자를 4절(보호의 자리)에도, 21절(회개 거부의 자리)에도 세운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10장으로 이어진다 —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 "달고 쓰다"는 경험이 다음에 온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metanoia(회개).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9장의 회개 거부 이후, 10장에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 — 달고 쓴 두루마리,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이 온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9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1절의 "별"은 무엇인가?

- 하늘에서 이미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음.
- 이 별의 정체가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황충의 "~같더라" 묘사는 문자적 실체인가 상징인가?

- 7-10절의 모든 묘사가 비유 형식으로 나타남.
- 본문이 이 묘사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다섯 달"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5절·10절에서 두 번 명시됨.
- 왜 다섯 달인지 이 장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의 정체와 결박의 이유는 무엇인가?

- 14절 —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 이들이 왜 결박되어 있었는지 이 장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5. "이만 만"(dyo myriades myriadon)은 문자적 수인가?

- 요한이 "그 수를 들으니"라고 하여 직접 본 것이 아닌 들은 수.
- 문자적 수인지 상징적 수인지 이 장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재앙 이후의 회개 거부는 심판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인가?

- 20-21절 —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음.
-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지, 다른 의미인지 이 장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10장

REV-010 · 예언서(신약) · 헬라어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 —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에 딛고 작은 두루마리(biblaridion)를 펼쳐 들고 있다. 일곱 우레가 울리지만 요한은 그 말을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창조자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니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예언. 막간(Interlude) 구조.
- 무대: 바다와 땅 — 천사가 두 공간에 걸쳐 서 있음. 여섯째-일곱째 나팔 사이.
- 핵심 소품: 힘센 천사·구름·무지개·작은 두루마리(biblaridion)·일곱 우레·천사의 맹세·달고 쓴 맛.
- 반복: "바다와 땅"(2절·5절·8절). "예언하여야 하리라"(11절, 당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천사 묘사(1-2절)의 웅장함 — 구름·무지개·해 같은 얼굴·불기둥 발·바다와 땅에 딛음.
- 4절 일곱 우레 봉인 — 들었지만 기록할 수 없는 계시.
- 10절 달고 쓰다 — 두 맛의 순서(달→쓴).
-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 재개의 당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 11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 천사의 하강(시작) → 요한의 사명 부여(끝). 웅장에서 개인적 명령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힘센 천사·일곱 우레·하늘의 목소리·요한(능동적 행위자로 전환).
- 상황: 천사 하강→선언→일곱 우레 봉인→창조자 맹세→두루마리 먹음→사명 부여.
- 사상 핵: 봉인된 계시(4절). "지체하지 않겠다"(6절). "하나님의 비밀"(7절). 달고 쓴 예언(10절). "다시 예언하라"(11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천사 등장·선언·일곱 우레 봉인·창조자 맹세·일곱째 나팔 예고.
- 컷 2 (8-10절): 두루마리 받아 먹으라는 명령·요한이 먹음·달고 쓰다.

- 컷 3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6 — (1) 원어 카드

- biblaridion(βιβλαρίδιον) — 작은 두루마리. 2절·9절·10절. biblion(5장)과 다른 단어.
- brontai(βρονταί) — 우레. 3절·4절. 일곱 우레.
- sphragison(σφράγισον) — 봉인하라. 4절.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
- chronos(χρόνος) — 시간. 6절.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 mysterion(μυστήριον) — 비밀. 7절. "하나님의 비밀".
- glukus(γλυκύς) — 달다. 10절.
- pikros(πικρός) — 쓰다. 10절.
- propheteusai(προφητεῦσαι) — 예언하다. 11절.
- palin(πάλιν) — 다시. 11절.
- pous(πούς) — 발. 1절·2절. 바다와 땅에 딛은 천사의 발.

6 — (2) 문학 구조

- 10장이 여섯째-일곱째 나팔 사이 막간 — 7장(여섯째-일곱째 인 사이 막간)과 동일 삽입 구조.
- 천사의 맹세(5-6절) — 창조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형식.
- 4절(봉인하라) ↔ 11절(예언하라) — 침묵 명령과 발화 명령의 대조.
- 10절 달→쓰다 순서 — 한 경험의 두 국면.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달고 쓴 두루마리 — 에스겔 3:1-3의 두루마리 먹는 장면과 이미지 평행 가능하나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음(배경 자료로만).
- "하나님의 비밀"(mysterion) — 신약의 다른 본문들(엡 1:9·3:3-9, 골 1:26-27)에서도 나타나는 단어이나 이 문맥에서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chronos ouketi estai —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다" vs. "지체하지 않겠다" — 번역 간 뉘앙스 차이 존재(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10:4 ↔ 단 12:4 (봉인하라 명령 평행, 배경 자료로만)
- 계 10:7 ↔ 계 11:15 (일곱째 나팔 예고 → 성취)
- 계 10:2 ↔ 계 7:2 (막간 삽입 구조 유사)
- 계 10:9-10 ↔ 겔 3:1-3 (두루마리 먹음 이미지 평행, 배경 자료로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와 바다와 땅에 발을 딛고 서서 작은 두루마리를 펼쳐 들고 있다(1-2절). 사자 처럼 외치자 일곱 우레가 말하는데, 요한이 기록하려 하자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이 온다(3-4절). 천사가 하늘로 오른손을 들어 창조자를 두고 맹세한다 —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5-7절). 하늘에서 목소리가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한다(8절).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 천사가 "먹으라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리라"고 한다(9절).

요한이 받아 먹으니 말한 대로 달고 쓰다(10절).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11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달고 쓴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라 — 나팔 사이의 사명 부여"
- 초벌 부제: "일곱 우레는 봉인되고 창조자는 맹세하며 —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몸으로 받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biblaridion·brontai·sphragison·chronos·mysterion·glukus·pikros·propheteusai·palin·pou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에스겔 3장 두루마리 평행, mysterion 신약 평행, 막간 삼입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3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천사의 정체를 특정 존재(메시아·미가엘 등)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달고 쓰다를 교훈적 의미로 단정하지 않도록 → 감각 관찰에 머물.
- "하나님의 비밀"을 특정 교리로 확정하지 않도록 → 미해결로 보존.
- 에스겔과의 연결을 직접 동일시하지 않도록 → 배경 자료로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10장은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 막간에 힘센 천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창조자를 두고 맹세하고,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biblaridion)를 받아 먹으니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사명을 새롭게 받는 장이다.

한 문단: 심판이 잠시 멈추는 공간에서 웅장한 천사가 등장해 일곱 우레를 봉인하고 창조자를 두고 맹세한다 — 종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이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이 온다. 심판의 소용돌이 가운데 삽입된 이 고요한 장면이 요한을 — 그리고 독자를 — 다시 일으켜 세운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바다와 땅(이중 공간). biblaridion·일곱 우레·창조자 맹세·달고 쓴 맛.
2 첫 느낌·분위기	웅장한 천사(1-2절). 봉인된 일곱 우레(4절). 달→쓰다 순서(10절). "다시" 예언(11절).
3 시작과 끝	시작: 천사의 하강(1절). 끝: 요한의 사명 부여(11절). 웅장→개인 명령.
4 등장인물·상황·사상	힘센 천사·요한(능동적 전환). 봉인 명령·"지체하지 않겠다"·달고 쓰다·"다시 예언".
5 장면 컷	컷1 천사와 선언(1-7), 컷2 두루마리 먹음(8-10), 컷3 사명 부여(11).
6 의문·발견·정보	천사 정체 미해결. 일곱 우레 봉인. biblaridion ↔ biblion 관계 미해결. 6건.
7 동영상	천사 하강→일곱 우레 봉인→맹세→두루마리 먹음(달고 쓰다)→"다시 예언하라".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달고 쓴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라". 부제: "나팔 사이의 사명 부여".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달고 쓰다"(10절) 앞에 섬.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봉인과 발화의 대조:** 4절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와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가 대조된다. 일곱 우레의 말은 봉인됐지만, 요한의 예언 사명은 재개된다. 어떤 계시는 봉인되고, 어떤 사명은 계속된다.
- 결 2 — 달고 쓰다의 순서:** 9절에서 "달고 쓸 것"을 예고하고, 10절에서 요한이 그대로 경험한다. 예고된 경험과 실제 경험이 일치한다. 달고 쓴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이 관찰된다.
- 결 3 — 막간의 기능:** 10장이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것이 7장(인 심판 사이 막간)과 동일한 구조다. 심판의 흐름 안에 삽입된 공간 — 이 공간에서 예언자적 사명이 재부여된다.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언은 멈추지 않는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10:7 ↔ 계 11:15** (일곱째 나팔 예고 → 성취), **계 10:2 ↔ 계 7:1-3** (막간 구조 유사).
- 다른 권 — **겔 3:1-3** (두루마리 먹음 이미지 평행, 배경 자료로만), **단 12:4** (봉인하라 평행,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10장의 "다시 예언하라"가 11장의 두 증인으로 이어진다. 10:7의 일곱째 나팔 예고가 11:15에서 성취된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웅장한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서 있는 장면 — 그 앞에서 본다.
- **멈춤 1:** 4절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 들었지만 말할 수 없는 것 앞에 멈춘다.
- **멈춤 2:** 6절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 이 선언이 내게 어떻게 닿는지를 본다.
- **멈춤 3:** 10절 달고 쓰다 — 이 두 맛의 경험 앞에 멈춘다.
- **끝:**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 이 명령이 지금 내게 어떻게 닿는지를 본다.

F·자족성 점검

- [x] 힘센 천사의 묘사와 선언이 관찰됨
- [x] 일곱 우레 봉인(4절)이 관찰됨
- [x] 창조자를 두고 한 맹세(6절)가 관찰됨
- [x] 달고 쓴 두루마리 먹음(10절)이 관찰됨
- [x]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11절) 사명이 관찰됨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10장은 그 spine의 나팔 심판 가운데 삽입된 막간 — 예언의 사명이 재 부여되는 국면이다. 9장의 회개 거부로 달힌 충격 이후, 10장이 열린다.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언자 요한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 REV spine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이 재부여된 예언 사명과 연결된다 — 교회가 예언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이기는 방식의 일부다. 10:7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선언이 11:15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일곱째 나팔 정점을 향해 가는 전조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나팔 심판이 잠시 멈추는 막간 — 봉인과 선언(1-7절) → 달고 쓴 두루마리를 몸으로 받음(8-10절) →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 부여(1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10장은 심판의 흐름이 잠시 멈추는 공간에서 요한이 달고 쓴 예언의 경험을 몸으로 받고 다시 예언자로 일으켜 세워지는 운동이다. REV 흐름에서 이 장은 9장(회개 거부)의 낙담 이후 11장(두 증인·일곱째 나팔)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언적 재가동이다.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예언의 사명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장의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예언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중, 그리고 달고 쓴 것을 함께 담아 주시며 요한을 일으키시는 심정이다. 6절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 종말은 임박했다. 그러나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 그 임박한 종말 앞에서 예언은 계속된다. 이 긴장이 10장의 수면 아래에 있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달고 쓴 것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명령이 내게 어떻게 닿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10장은 독자를 4절(봉인된 계시 앞)에도, 10절(달고 쓴 경험 앞)에도, 11절(다시 예언하라는 명령 앞)에도 세운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11장으로 이어진다 — 두 증인이 예언하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이 구간의 정점이 온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propheteusai(예언하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10장에서 "다시 예언하라"고 받은 사명이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언으로 실행되고, 일곱째 나팔(11:15)이 울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이 구간의 정점이 온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10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힘센 천사(1절)의 정체는 무엇인가?

- 구름·무지개·해 같은 얼굴·불기둥 발 — 여러 묘사가 주어지지만 이 장이 정체를 밝히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일곱 우레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 4절 — 요한이 들었지만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내용이 숨겨짐.
- 미해결로 보존. REV에서 봉인된 계시가 다시 나타나는지 미확인.

Q3. chronos ouketi estai(6절)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인가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인가?

- chronos가 "지체"인지 "시간 자체"인지 번역 간 차이가 존재함.
- 미해결로 보존.

Q4. "하나님의 비밀"(to mysterion tou theou, 7절)은 무엇인가?

- "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라는 단서가 있음.
- 이 비밀의 내용이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11:15와의 관계 미확인.
- 미해결로 보존.

Q5. biblaridion(작은 두루마리)은 5장의 biblion과 같은 것인가?

- 단어가 다름. 크기 차이가 있음.
- 두 두루마리의 관계가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달고 쓰다(10절)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인가?

- 입(달다) → 배(쓰다)의 순서가 관찰됨.
- 이 감각 경험이 예언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장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11장

REV-011 · 예언서(신약) · 헬라어

두 증인(duo martyres)이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반 만에 부활해 하늘로 올라간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11:15)는 선언이 하늘에서 터진다.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 이 구간(8~11장)의 정점이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예언.
- 무대: 땅(성전·거리·두 증인, 1-13절) + 하늘(나팔·선언·장로 경배·성전 개방, 15-19절).
- 핵심 소품: 갈대 지팡이·성전·두 증인(martyres)·굵은 베옷(sakkos)·짐승(therion)·생기(pneuma)·언약궤(kibotos).
- 반복: "마흔두 달"."일천이백육십 일"."사흘 반"(기간의 반복).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두 증인 이야기의 완결 구조 — 예언→죽임→기쁨→부활→승천.
- 10절 세상의 기쁨 — 증인의 죽음이 축제가 됨.
- 15절 왕권 선언 — 이 구간의 정점.
- 13절 나머지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림 — 9장 회개 거부와의 차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 땅 성전 측량(시작) → 하늘 성전 개방·언약궤(끝). 그 사이에 15절 왕권 선언.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요한·두 증인·무저갱 짐승·세상 사람들(기뻐하는)·일곱째 천사·하늘 큰 음성들·이십사 장로.
- 상황: 측량→두 증인 예언→짐승 죽음→세상의 기쁨→부활·승천→지진→일곱째 나팔→왕권 선언→경배→언약궤.
- 사상 핵: 죽음-부활-승천 구조. 15절 왕권 선언. 18절 심판·상·멸망. 13절 영광 돌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성전 측량·이방인의 마흔두 달.

- 컷 2 (3-13절): 두 증인 — 예언(3-6)·죽임(7-10)·부활·승천(11-13).
- 컷 3 (14-15절): 둘째 화 종료·일곱째 나팔·왕권 선언.
- 컷 4 (16-19절): 이십사 장로 경배·성전 열림·언약궐.

6 — (1) 원어 카드

- martyres(μάρτυρες) — 증인들. 3절. 증인·순교자의 어근.
- sakkos(σάκκος) — 굵은 베옷. 3절. 애통·예언자의 복장.
- therion(θηρίον) — 짐승. 7절. 13장의 짐승과 같은 단어.
- abyssos(ἄβυσσος) — 무저갱. 7절. 9장과 같은 단어.
- ptoma(πτῶμα) — 시체. 8절·9절.
- pneuma(πνεῦμα) — 생기·성령·기. 11절.
- basileia(βασιλεία) — 나라·왕권. 15절.
- kyrios(κύριος) — 주. 15절.
- Christos(Χριστός) — 그리스도. 15절.
- kibotos(κιβωτός) — 언약궐. 19절.

6 — (2) 문학 구조

- 두 증인 이야기의 사이클 — 예언→죽임→기쁨→부활→승천의 완결 구조.
- 15절의 선언이 1-14절의 두 증인 이야기와 연결됨 — 죽임 당함이 왕권 선언으로 이어짐.
- 1절(땅 성전 측량) ↔ 19절(하늘 성전 개방) 대응 구조.
- 기간들의 체계: 마흔두 달(2절) = 일천이백육십 일(3절). 사흘 반(9절·11절) = 짧은 죽음.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두 감람나무·두 촛대(4절) — 스가랴 4장과 이미지 평행 가능하나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음(배경 자료로만).
- 두 증인 권세(5-6절) — 엘리야(왕상 17장)·모세(출 7장) 이미지와 겹칠 수 있으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성전 측량 이미지 — 겔 40-42장, 스가랴 2장과 평행 가능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11:7 ↔ 계 13:1 (therion 짐승 반복)
- 계 11:15 ↔ 계 5:5 (어린양의 승리 선언 — 왕권의 완성)
- 계 11:4 ↔ 속 4장 (두 감람나무 이미지 평행, 배경 자료로만)
- 계 11:19 ↔ 계 15:5 (하늘 성전 개방 반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요한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들을 측량한다(1절).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져 마흔두 달 동안 밟힌다(2절).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3절). 그들은 두 감람나무이자 두 촛대이며, 불과 재앙의 권세를 가진다(4-6절). 예언을 마치자 무저갱의 짐승이 그들과 싸워 죽인다(7절). 시체가 큰 성 거리에 사흘 반 동안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기뻐하며 예물을 보낸다(8-10절). 사흘 반 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에 구름 타고 승천한다(11-12절). 지진으로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칠천이 죽고, 나머지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13절). 둘째 화가 지나가고 일곱째 나팔이 울린다(14-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15절).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심판·상·멸망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언한다(16-18절).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음성·우레·지진·우박이 일어난다(19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 일곱째 나팔의 선언"
- 초벌 부제: "두 증인이 예언하고 죽고 살아나고 — 왕권이 선포되며 하늘 성전이 열린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martyres·sakkos·therion·abyssos·ptoma·pneuma·basileia·kyrios·Christos·kiboto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스가랴 4장 두 감람나무 평행, 엘리야·모세 권세 이미지, 성전 측량 겔·스 평행)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두 증인의 정체성을 특정 역사적 인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15절을 특정 역사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스가랴·엘리야·모세와의 연결을 확정 단정하지 않도록 → 배경 자료로만.
- 언약궤를 특정 신학 교리로 확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고 짐승에게 죽임 당한 후 사흘 반 만에 부활해 승천하며 지진이 일어난 뒤, 일곱째 나팔이 울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15절)는 선언이 하늘에서 터지고, 이십사 장로들이 경배하며 하늘 성전이 열려 언약궐이 보이는 REV 나팔 구간의 정점이다.

한 문단: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그들이 예언을 마치자 무저갱의 짐승이 죽인다. 세상이 기뻐하지만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고 구름 타고 승천한다. 지진 뒤 나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이십사 장로들이 경배하고, 하늘 성전이 열려 언약궐이 나타난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땅(성전·두 증인, 1-13절)·하늘(나팔·선언·경배, 15-19절). martyres·therion·pneuma·kibotos.
2 첫 느낌·분위기	두 증인 완결 사이클. 10절 세상의 기쁨. 15절 왕권 선언. 13절 영광 돌림.
3 시작과 끝	시작: 땅 성전 측량(1절). 끝: 하늘 성전·언약궐(19절). 15절이 중심.
4 등장인물·상황·사상	두 증인·짐승·이십사 장로. 죽임·부활·승천 구조. 15절 왕권. 18절 심판·상.
5 장면 컷	컷1 측량(1-2), 컷2 두 증인(3-13), 컷3 왕권 선언(14-15), 컷4 경배·언약궐(16-19).
6 의문·발견·정보	두 증인 정체 미해결. egeneto 완료형. 큰 성 정체. 미해결 6건.
7 동영상	측량→두 증인 예언→죽임→부활·승천→일곱째 나팔→15절 선언→경배→언약궐.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부제: "두 증인의 완결과 왕권 선언".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11:15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앞에 섬.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겹

- 결 1 — 죽임에서 왕권으로:** 두 증인이 죽임 당하고(7-10절) 세상이 기뻐하지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고 승천한다(11-12절). 그 직후 일곱째 나팔이 울려 왕권이 선언된다(15절). 죽임 당함이 왕권 선언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가 REV spine의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와 같은 패턴이다.
- 결 2 — 세상의 기쁨과 하늘의 선언의 역전:** 10절 세상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며 예물을 보낸다. 그러나 11절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고, 15절 하늘에서 왕권이 선언된다. 세상의 기쁨과 하늘의 선언이 역전된다.
- 결 3 — 땅 성전과 하늘 성전의 대응:** 1절 땅의 성전 측량으로 시작해서, 19절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궐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난다. 땅의 성전 측량이 하늘 성전 개방과 대응 구조를 이룬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11:7 ↔ 계 13:1 (짐승 반복), 계 11:15 ↔ 계 5:5 (어린양의 승리→왕권 선언), 계 11:19 ↔ 계 15:5 (하늘 성전 개방 반복).
- 다른 권 — 속 4장(두 감람나무 이미지, 배경 자료로만), 왕상 17장·출 7장(두 증인 권세 이미지,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11:15는 REV 8~11장 나팔 구간의 정점. 12장에서 여자·용·짐승의 새로운 구간이 시작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성전 측량 명령 — 그 명령 앞에 서 본다.
- 멈춤 1: 10절 세상이 기뻐하는 장면 — 죽음 당한 증인들의 자리에 서 본다.
- 멈춤 2: 11절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장면 — 그 생기 앞에 멈춘다.
- 멈춤 3: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 이 선언 앞에 멈춘다.
- 끝: 19절 열린 성전과 언약궤 — 하늘이 열린 그 공간 앞에 서 본다.

F· 자족성 점검

- [x] 두 증인의 완결 사이클(예언→죽임→부활→승천)이 관찰됨
- [x] 일곱째 나팔과 15절 왕권 선언이 관찰됨
- [x] 이십사 장로 경배(17-18절)가 관찰됨
- [x] 하늘 성전 열림과 언약궤(19절)가 관찰됨
- [x] 13절 나머지들의 영광 돌림이 관찰됨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11장은 그 spine의 나팔 심판 구간(8~11장)의 정점이다. 10:7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예고됐고, 11:15에서 그것이 실현된다 —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 선언은 REV 전체 spine의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가 왕권 언어로 표현된 자리다. 두 증인의 죽음-부활-승천 구조는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죽음 당함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 — spine의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이 구조에 나타난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두 증인이 예언하고 죽음 당하고 부활하는 고난의 완결 구조(1-13절) → 일곱째 나팔이 울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왕권 선언이 터지는 정점(15절) →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남(19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11장은 죽음 당하고 기쁨의 대상이 된 두 증인이 살아나는 역전을 통해, 일곱째 나팔이 울려 어린양의 왕권이 선언되는 운동이다. REV spine에서 이것이 나팔 구간의 정점이다.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 죽음 당함이 끝이 아니고, 세상이 기뻐하는 자리가 마지막이 아니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선언이 이미 터졌다는 것이 이 장의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두 증인의 이야기와 일곱째 나팔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고난받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 — 죽음 당한 증인이 살아나고 왕권이 선언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기뻐하는 자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두 증인이 죽음 당할 때 세상이 기뻐했다(10절).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11절). 이 역전 — 그리고 15절의 왕권 선언 — 이것이 고난받는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정이다. 보좌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때 —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선언이 내게도 사실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11장은 독자를 10절(세상이 기뻐하는 자리)에도, 11절(생기가 들어오는 자리)에도, 15절(왕권 선언 앞)에도 세운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12장으로 이어진다 — 해를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 그리고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었다"(12:11).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basileia(나라·왕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11:15의 왕권 선언 이후, 12장에서 그 왕권을 둘러싼 싸움 — 여자·용·미가엘·어린양의 피로 이김(12:11)이 펼쳐진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11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두 증인의 정체는 누구인가?

- 두 감람나무·두 촛대(4절)·엘리야·모세 이미지(5-6절)가 있지만 본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마흔두 달"과 "일천이백육십 일"과 "사흘 반"의 관계는 무엇인가?

- 마흔두 달 = 1260일. 사흘 반은 이들의 죽음 기간.
- 이 기간들이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 이 장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두 증인이 죽음 당한 "큰 성"(8절)은 어디인가?

-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큰 성"(8절) — 영적 이름이 두 개 주어짐.
- "저희 주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니라"(8절) — 예루살렘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문이 직접 명시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완료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geneto 완료형 — 선언적 완료인지, 역사적 완료인지 미해결.
- 미해결로 보존.

Q5. 1절의 성전 측량과 19절의 하늘 성전 개방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 땅 성전 측량(1절)과 하늘 성전 열림(19절)의 관계가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19절의 언약궤(kibotos)가 하늘 성전 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지상 언약궤가 언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늘의 언약궤가 나타남.
-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장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12장

REV-012 · 예언서(신약) · 헬라어

해를 입은 여자(gynē)가 아이를 낳고, 큰 붉은 용(drakōn)이 아이를 삼키려 한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싸워 이기고 용은 땅으로 쫓겨난다. 땅으로 내려온 용이 여자를 핏박하나 여자는 광야에서 보호받는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12:11) — 8~11장 이후 전쟁의 본질이 열린다.

관찰된 사실

1 첫 느낌·분위기

성령일_선교사: 이 장 전체를 읽었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P01 한나래: 압도적인 시각적 장면이에요. 빛나는 여자, 거대한 붉은 용, 하늘 전쟁, 독수리 날개, 강같이 쏟아지는 물 —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미지들이 겹쳐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는 보호받고 여자도 보호받아요. 위협이 크지만 보호가 그것보다 크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P02 이진우: 긴장과 대결이요. 용이 계속 공격하는데 번번이 차단당해요. 아이를 삼키려 했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낚아채 가셨고, 하늘에서 싸웠지만 쫓겨났고, 여자를 물로 끌어 버리려 했지만 땅이 물을 마셔버려요. 용이 계속 패배하는 흐름이 느껴져요.

P04 최현국: 저는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용이 분을 품고 계속 전쟁을 벌이는데, 그 분노의 이유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절박한 분노와 패배의 분위기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P05 김미영: 저는 대조가 인상적이에요. 하늘 음성은 "이겼다"고 선언하는데, 땅에서는 여전히 핏박이 진행 중이에요. 선언과 현실이 겹치는 긴장이요.

P07 오지혜: 전체가 이야기처럼 읽혀요. 여자와 용의 이야기, 하늘 전쟁 이야기, 광야 도피 이야기 — 각각의 장면이 영화 시퀀스처럼 연결되는 것 같아요.

P11 나경아: 헬라어 sēmeion mega(큰 이적)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리고 또 allo sēmeion(다른 이적)이 용의 등장과 함께 나와요. 두 이적이 대결하는 구조인 셈이에요.

[침묵 — 분위기를 각자 음미함]

2 시작과 끝

성령일_선교사: 이 장의 시작과 끝을 관찰해 봅시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나요?

P01 한나래: 시작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1절)예요. 끝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17절)로 끝나요.

P02 이진우: 시작은 하늘에서 보이는 이적인데, 끝은 용이 성도들과 싸우러 간다는 땅의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무대가 이동한 거네요.

P04 최현국: 시작에서 여자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별을 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끝에서 용은 분노하여 성도들을 향해 전쟁을 벌이러 가요. 영광과 분노가 대비되는 구조예요.

P05 김미영: 17절 끝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는 장면이 다음 장(13장)의 짐승 등장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침묵]

3 등장인물·사상

성령일_선교사: 12장의 등장인물들을 정리해 볼게요.

P01 한나래: 여자(gynē):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열두 별 면류관을 씌. 아이를 낳고, 광야에서 보호받음. 1260일(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양육받음.

P02 이진우: 용(drakōn): 큰 붉은 용. 일곱 머리, 열 뿔, 머리에 일곱 왕관.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꺾는 자.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 땅에 던짐. 아이를 삼키려 함. 미가엘에게 패배. 땅으로 쫓겨남. 여자를 핍박하고 성도들과 싸우려 감.

P04 최현국: 아이(teknon): 남자아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하나님이 낚아채 보좌로 올리심.

P05 김미영: 미가엘(Michaēl): 사자들을 이끌고 용과 싸워 이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전쟁의 주체.

P07 오지혜: 하늘 음성: 12:10-12의 큰 음성.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 이 선언이 나와요. 그리고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선포가 나오고요.

P11 나경아: 성도들(sperma,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용의 최종 전쟁 대상이에요. 그리고 katēgōr(고발하는 자, 참소자)로서의 용이 쫓겨났다는 언급도 있어요 —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10절).

[침묵]

4 장면 컷 분절

성령일_선교사: 이 장을 영화 컷처럼 나눠 보면 어떻게 될까요?

P01 한나래: 컷 1 — 하늘 이적 1: 해를 입은 여자와 아이 (1-2절). 컷 2 — 하늘 이적 2: 큰 붉은 용의 등장과 별 쓸기 (3-4절). 컷 3 — 아이 출생과 하나님의 보호 (5-6절).

P02 이진우: 컷 4 — 하늘 전쟁: 미가엘과 용의 전쟁, 용이 쫓겨남 (7-9절). 컷 5 — 하늘 음성: 승리 선언과 어린양의 피로 이긴 선포 (10-12절).

P04 최현국: 컷 6 — 땅의 도피: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 보호받음 (13-14절). 컷 7 — 용의 공격: 물을 쏟아 여자를 쓸어버리려 함, 땅이 물을 마심 (15-16절).

P05 김미영: 컷 8 — 분노하는 용: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하러 감 (17절). 그리고 13장을 준비하는 전환부로 끝나요.

[침묵]

5 의문·발견·정보

성령일_선교사: 본문을 읽으며 생긴 질문이나 발견을 나눠 봅시다. 해석이 아닌 관찰과 질문으로요.

P01 한나래: 여자가 누구인지 —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이를 낳았고, 광야에서 보호받았고,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로 묘사됐다는 것까지는 관찰되는데, 그 이상의 정체성은 본문이 명시하지 않아요.

P02 이진우: 별 삼분의 일을 땅에 던졌다는 것(4절) —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환상 속 시점인지, 과거를 묘사하는 것인지 본문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질문으로 보류해요.

P04 최현국: "한 때 두 때 반 때"(14절)와 "일천이백육십 일"(6절)과 "마흔두 달"(11:2, 13:5) — 이 숫자들이 같은 기간인지 다른 기간인지는 본문 관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미해결 질문으로 남겨요.

P05 김미영: 12:11의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라는 구절 — 이기는 수단이 무력이 아니라 피와 말씀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는 표현이 이어져요. 이기는 방식이 역설적이에요.

P07 오지혜: 용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12절) 내려왔다고 해요. 쫓겨난 용이 자기 시간이 제한됐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 이 대목이 관찰되는 정보예요. 분노의 이유가 절박함이라는 거죠.

P11 나경아: katēgōr(참소자)로서의 용이 쫓겨났다는 것(10절) — 용의 기능이 단순히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하는 자였다는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 참소가 끝났다는 선언이 나오는 거고요.

[참목 — 미해결 질문들을 각자 노트에 기록함]

6 동영상 흐름

성령일_선교사: 이 장을 동영상처럼 흐름으로 서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P01 한나래: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요 —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별 면류관을 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하고 있어요.

P02 이진우: 또 다른 이적으로 붉은 용이 등장해요.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당기고, 여자 앞에 서서 아이를 삼키려 대기해요.

P04 최현국: 여자가 아이를 낳자 하나님이 아이를 낚아채 보좌로 올리세요. 여자는 광야로 도피해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아요.

P05 김미영: 장면이 전환돼요 —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싸워요. 용이 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요.

P07 오지혜: 하늘 음성이 크게 선포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나,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나.

P11 나경아: 땅에 내려온 용이 여자를 핍박해요. 여자는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날아가요. 용이 강같이 물을 쏟아 여자를 쫓으나 땅이 물을 마셔요. 용은 분을 품고 여자의 남은 자손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 과 전쟁하러 가요.

성령일_선교사: 이제 [10단계] 운동·도약을 정리해 봅시다. 이 장의 핵심 움직임 — 어떤 운동이 일어났나요?

P04 최현국: 하늘 → 땅으로의 수직 운동이에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여자는 땅에서 광야로, 아이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상승 운동도 있고요.

P11 나경아: 참소(katēgoria) → 쫓겨남 → 핍박으로의 대상 전환 운동도 있어요. 용의 공격 대상이 아이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성도들로 이동해요.

P07 오지혜: 이기는 방식의 역설적 운동이 있어요 — 어린양의 피와 증언과 죽음을 무릅쓰는 것으로 이긴다는 게 12:11의 운동이에요. 약함으로 이기는 역설이요.

[참목 — 운동의 흐름을 각자 노트에 기록함]

자가감사 6/6 완료. 1 첫 느낌·분위기 √ / 2 시작과 끝 √ / 3 등장인물·사상 √ / 4 장면 컷 분절 √ / 5 의문·발견·정보 √ / 6 동영상 흐름·[10단계] √

종합 정리

G — 구속사 좌표: 이 장이 REV 흐름 위 어디에 서 있는가

12장은 11:15 왕권 선언("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후에 등장하는 배경 이야기다. 나팔 심판 구간(8~11장)이 왕권 선언으로 절정에 달한 뒤, 12장은 그 왕권 선언의 배후 — 왜 고난받는 교회가 이미 이겼는가 — 를 하늘 장면으로 펼쳐 보인다. 용이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사실, 참소자가 이미 물러났다는 선언, 어린양의 피로 이미 이겼다는 선포 —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진행 중인 핍박보다 앞선 차원의 사실로 제시된다. REV 전체 흐름(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에서 12장은 "왜 고난받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인가"에 대한 하늘의 답변 구간이다.

H — 운동 벡터: spine 국면에서 이 장의 움직임

운동 1: 하늘 전쟁 → 용의 추락. 미가엘이 이기고 용이 땅으로 쫓겨난다. 참소자가 제거된다. 운동 2: 아이를 보좌로 올리심 + 여자를 광야로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중 보호 — 아들은 완성되고 교회는 보전된다. 운동 3: 땅에 내려온 용의 분노. 용이 패배를 알면서도 핍박을 강행하는 절박한 공격. 운동 4: 어린양의 피와 증언으로 이겼다는 하늘 선포 — 이미 완료된 승리의 선언이 핍박 중인 성도들에게 내려온다. 전체 벡터: 하늘의 완료된 승리 → 땅의 미완인 핍박 → 핍박 중에서도 이미 이긴 자들이라는 역설적 선언.

I — 수면 아래: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

하늘 음성의 선언(12:10-12)은 단순한 사실 보고가 아니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참소자가 쫓겨났다는 선언 안에는 — 지금 내 이름을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느끼는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를 참소하던 자가 이미 내 앞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 "어린양의 피"가 이기는 수단이라는 선언은 강함이 아니라 희생으로 이기는 방식을 보여 준다 — 그 방식은 아들이 먼저 걸어가셨고,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른다는 구조다. 광야에서 여자를 먹이시는 장면(6, 14절)은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다는 지속적인 돌봄의 심정이다.

J — 실존적 부름: 끝까지 이기는 자로 부르는 불씨

12:11은 묻는다 — "나는 어린양의 피를 승리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가?" 참소자가 쫓겨났다는 선언 앞에서 —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고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참소가 끝났다는 사실을 지금 사실로 받아들이는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12:11) — 이 표현이 내 신앙의 어느 지점을 건드리는가? 광야에서 보호받는 여자의 이야기는 — 지금 내가 광야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가?

좌표	내용
G: 구속사 위치	왕권 선언(11:15) 이후 배경 이야기 — 왜 교회가 이미 이긴 자들인가를 하늘 장면으로 제시하는 구간
H: 운동 벡터	용의 추락 → 아이·여자의 보호 → 피와 증언으로 이긴 자 선언 → 분노한 용의 성도 공격
I: 수면 아래	핍박 중 "너희는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소자가 물러났음을 알게 하시는 심정
J: 실존적 부름	어린양의 피가 나의 승리 근거인가; 참소가 끝났다는 선언이 지금 내게 사실인가

미해결 질문

단계 8 — 초별 제목·부제

성령일_선교사: 이 장 전체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찰된 내용만으로도.

P01 한나래: "하늘 전쟁과 땅의 피난" —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여자는 땅에서 광야로 피난해요.

P02 이진우: "용이 쫓겨난 이후" —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이 장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P04 최현국: "어린양의 피로 이겼으니" — 12:11이 이 장의 핵심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P05 김미영: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 법정 언어로 본 장의 사건이요.

P07 오지혜: "광야에서 보호받는 여자" — 보호의 이야기로 읽었어요.

P11 나경아: 헬라어로 하면 "Enikēsan dia to haima tou arniou — 어린양의 피로 이겼도다" — 12:11의 직역이에요.

성령일_선교사: 함께 붙인다면 — "어린양의 피로 이겼으니: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광야에서 보호받는 교회". 제목 하나를 정하는 것보다 각자가 붙인 제목들이 더 풍성한 관찰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침묵]

단계 9 — 동영상 걷기·기도

성령일_선교사: 이제 각자 이 장의 장면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걸으며 기도로 마무리해 봅시다. 어떤 장면이 가장 남나요?

P01 한나래: 여자가 해를 입고 아이를 낳으려 진통하는 장면이요. 해를 입은 영광 속에서도 고통은 있다는 것 — 그 장면을 들고 기도해요.

P02 이진우: 하나님이 아이를 낚아채 보좌로 올리는 장면이요. 낚아채 가신다는 표현의 속도감 —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신속한지를 생각해요.

P04 최현국: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12:11) — 이 표현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서요. 이긴 방법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는 게 무겁게 와 닿아요.

P05 김미영: 땅이 물을 마셔서 여자를 도왔다는 장면(16절) —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장면. 자연도 이 이야기의 편이라는 것이 놀라워요.

P07 오지혜: 12:12 —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 하늘의 즐거움과 땅의 화가 동시에 선포되는 이 역설 앞에서 기도해요.

P11 나경아: katēgōr가 쫓겨났다는 10절이요. 참소자가 더 이상 내 이름으로 고발하지 못한다는 선언 — 헬라어 법정 용어가 갑자기 아주 개인적인 말씀이 돼요. 이 선언 앞에서 감사로 기도해요.

성령일_선교사: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장의 주요 관찰을 마쳤어요. 해석은 열어 두고, 관찰한 것들이 각자 삶의 좌표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종합 정리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침묵 — 기도로 마무리]

요한계시록 13장

REV-013 · 예언서(신약) · 헬라어

바다에서 나온 짐승(thêrion)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 마흔두 달 동안 권세를 행사하며 성도들과 싸운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처음 짐승의 권세를 행하게 하고 표를 받은 자만 매매하게 한다. 표와 숫자는 관찰로 보류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13:10) — 이 구간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자리다.

관찰된 사실

1 첫 느낌·분위기

성령일_선교사: 이 장 전체를 읽었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P01 한나래: 압박감이에요.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표 없이는 매매도 못 하게 하는 구조 — 선택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압박 속에서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만 주어진 것처럼 읽혀요.

P02 이진우: 놀랍게도 경배가 강요되는 분위기예요. 용에게도 경배, 짐승에게도 경배 — 경배의 대상이 두 개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경배에서 이탈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해요. 선택을 강요받는 분위기예요.

P04 최현국: 저는 13:10이 의외로 느껴져요.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고 있는 장면들 사이에서 갑자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가 끼어들어요. 놀림 속에서의 작은 목소리 같아요.

P05 김미영: 모방의 구조가 눈에 띄어요.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는 둘째 짐승, 죽었다가 사는 것처럼 보이는 첫째 짐승의 머리 —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의 분위기가 있어요.

P07 오지혜: 통제의 분위기요. 표 없이는 살 수도 팔 수도 없다는 것 — 경제 구조 전체를 짐승이 통제한다는 장면이 무거워요.

P11 나경아: 헬라어로 보면 blasphemía(신성모독)가 반복돼요. 짐승의 이름이 신성모독이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성호를 모독하고, 하늘 장막을 모독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한다고 돼 있어요.

[침묵]

2 시작과 끝

성령일_선교사: 이 장의 시작과 끝을 관찰해 봅시다.

P01 한나래: 시작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1절)예요. 끝은 지혜를 가진 자가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는 말로 끝나요(18절) —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P02 이진우: 시작은 바다에서 등장하는 짐승이고, 끝은 숫자가 제시되는 장면이에요. 전체 구조가 두 짐승 소개 + 표/숫자 제시라고 볼 수 있어요.

P04 최현국: 12:18에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로 끝난 12장과 직접 연결돼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 용이 준비한 다음 단계인 것처럼 읽혀요.

[침묵]

3 등장인물·사상

성령일_선교사: 13장의 등장인물들을 정리해 봅시다.

P01 한나래: 첫째 짐승(thērion ek tēs thalassēs): 바다에서 나옴. 열 뿔, 일곱 머리. 표범·곰·사자 합성 묘사. 용에게서 권세 받음. 마흔두 달 활동. 신성모독.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

P02 이진우: 둘째 짐승(thērion ek tēs gēs): 땅에서 나옴. 어린양 같은 두 뿔. 용처럼 말함.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함. 이적을 행함. 표를 강요함.

P04 최현국: 용: 12장에서 이미 등장했는데 13장에서는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하는 역할로만 나와요.

P05 김미영: 성도들: 짐승이 싸워 이기는 대상. 그러나 13:10에서 "인내와 믿음"의 자리가 주어진다. 이름이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 대조되는 것으로 관찰돼요.

P07 오지혜: 죽임 당한 어린양(arnion): 이 장에서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생명책의 주인으로 언급돼요 — "창세 전부터 죽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짐승과 어린양이 대조되는 구조예요.

P11 나경아: 지혜를 가진 자(ho echōn noun): 마지막에 등장하는 수신자.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는 말의 대상이에요.

[침묵]

4 장면 컷 분절

성령일_선교사: 이 장을 영화 컷으로 나눠 봅시다.

P01 한나래: 컷 1 — 바다 짐승 등장: 묘사와 권세 수여 (1-4절). 컷 2 — 바다 짐승 활동: 신성모독, 성도와의 전쟁, 보편적 권세 (5-8절).

P02 이진우: 컷 3 — 13:9-10 삽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 인내와 믿음의 선언. 컷 4 — 땅 짐승 등장: 묘사와 이적 (11-14절).

P04 최현국: 컷 5 — 땅 짐승 활동: 우상 제조, 살아 있는 우상, 경배 강요 (14-15절). 컷 6 — 표 제도: 오른손·이마의 표, 매매 통제 (16-17절). 컷 7 — 수수께끼 제시: 짐승의 수 (18절).

[침묵]

5 의문·발견·정보

성령일_선교사: 관찰 중 생긴 질문들을 나눠 봅시다. 해석이 아닌 질문으로요.

P01 한나래: 첫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처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낫는다(3절) — "상처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본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미해결 질문으로 남겨요.

P02 이진우: "창세 전부터 죽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8절) — 어린양이 창세 전부터 죽임 당한 것으로 기록됐다는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깊은 신학 질문이에요. 관찰로는 "생명책이 있고 그 책의 주인이 어린양"이라는 것과 "거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돼요.

P04 최현국: 마흔두 달(5절)이 12장의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과 같은 기간인지 — 본문 관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미해결 질문으로 보류해요.

P05 김미영: 표의 의미와 기능 —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 "표 없이는 매매를 못 한다"는 것,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와 관련된다는 것까지예요. 그 이상의 구체적 역사적 동일시는 본문 관찰 범위를 벗어나요.

P07 오지혜: 13: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 이게 성도에게 하는 말인지, 짐승에게 하는 말인지, 혹은 일반 원칙인지 — 본문 맥락에서 직전이 "성도를 사로잡고 죽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둘 다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P11 나경아: 짐승의 수 666 — 헬라어 사본에는 666(hexakosioi hexēkonta hex)이 일반적이고, 일부 사본에는 616이라는 이형도 있어요. 본문이 이 수를 "사람의 수"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지혜 있는 자는 세어 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본문 내에서 명시하지 않아요. 해석은 미해결로 남겨요.

[침묵 — 미해결 질문들을 각자 노트에 기록함]

6 동영상 흐름

성령일_선교사: 이 장 전체를 동영상처럼 흐름으로 서술해 봅시다.

P01 한나래: 바다에서 기괴한 짐승이 올라와요. 용이 자신의 권세를 그에게 건네줘요. 온 땅이 이를 보고 놀라 용과 짐승에게 경배해요.

P02 이진우: 짐승은 마흔두 달 동안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해 큰 말을 해요. 성도들을 향해 싸움을 걸고 이기는 권세를 받아요.

P04 최현국: 그 장면 속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는 선언이 끼어 들어요.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자리는 인내와 믿음이에요.

P05 김미영: 땅에서 둘째 짐승이 올라와요. 첫째 짐승을 대변하며 이적을 행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고, 표를 강요해요. 표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해요.

P07 오지혜: 마지막에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는 수수께끼가 주어지며 장이 닫혀요.

P11 나경아: [10단계] 운동·도약: 짐승의 등장과 권세 수여 → 짐승의 활동 → 13:10 인내·믿음 선언 → 둘째 짐승의 활동 → 표·숫자 제시. 운동의 벡터는 용의 권세가 짐승들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가운데서 성도의 자리가 무엇인지가 13:10에서 명시돼요.

[침묵 — 운동의 흐름을 각자 노트에 기록함]

자가감사 6/6 완료. 1 첫 느낌·분위기 ✓ / 2 시작과 끝 ✓ / 3 등장인물·사상 ✓ / 4 장면 컷 분절 ✓ / 5 의문·발견·정보 ✓ / 6 동영상 흐름·[10단계] ✓

종합 정리

G — 구속사 좌표: 이 장이 REV 흐름 위 어디에 서 있는가

13장은 12장에 이어 용이 위임한 권세 구조가 땅에서 구체화되는 장면이다. 11:15 왕권 선언 이후, 그 선언에 저항하는 세력의 작동 방식이 두 짐승을 통해 제시된다. REV 전체 흐름(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신다)에서 13장은 "고난받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 아래 놓이는가"를 보여주는 구간이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 사이에서, 13:10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명시한다: 인내와 믿음. 이 장은 12장의 하늘 배경(용의 참소가 끝났다, 어린양의 피로 이겼다)이 땅에서 어떤 현실로 살아 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H — 운동 벡터: spine 국면에서 이 장의 움직임

운동 1: 용의 권세 위임 → 바다 짐승 → 땅 짐승. 권세가 계층적으로 위임되는 구조. 운동 2: 짐승의 활동 — 신성모독, 성도와의 전쟁, 표를 통한 경제 통제. 운동 3: 13:10의 역삽입 — 짐승이 이기는 장면들 사이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는 선언이 끼어든다. 운동 4: 어린양의 생명책 —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대조. 전체 벡터: 보이는 차원에서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완료된 차원(12장의 어린양의 피로 이긴 선언)이 땅의 현실을 뚫고 들어온다.

I — 수면 아래: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

13장에서 하나님은 정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가지 흔적이 있다: 어린양의 생명책(8절)과 13:10의 선언이다. 생명책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것이며,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본문은 말한다 — 보호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는 선언은 놀림 받는 성도들에게 "네 자리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다.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 사이에서 이 선언을 끼워 넣으신 것 — 그것이 압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건네시는 심정이다.

J — 실존적 부름: 끝까지 이기는 자로 부르는 불씨

13:10의 선언이 묻는다 —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인내와 믿음의 자리인가?" 표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구조 앞에서 — 내가 살아가기 위해 양보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지금 내게 실제로 버티는 근거인가, 아니면 추상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13:9) — 이 장의 이 어려운 이야기 속에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좌표	내용
G: 구속사 위치	왕권 선언 이후 그 선언에 저항하는 세력의 작동 방식 — 고난받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 아래 놓이는가를 보여 주는 구간
H: 운동 벡터	용의 권세 위임 → 짐승들 활동 → 13:10 인내·믿음 역압입 → 어린양의 생명책 대조
I: 수면 아래	짐승이 이기는 장면들 사이에 "성도의 자리는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돼 있다는 보호의 의중
J: 실존적 부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인내와 믿음의 자리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버티는 실제 근거인가

SBM Observatory · REV-013 · 요한계시록 13장 · 예언서(신약) · 헬라어 · 2026-06-06

미해결 질문

단계 8 — 초벌 제목·부제

성령일_선교사: 이 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P01 한나래: "두 짐승과 인내" — 이 장의 구조 전체를 담으려 했어요.

P02 이진우: "표를 강요받는 자리에서" — 압박이 가장 구체적인 장면이 표 부분이에요.

P04 최현국: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 13:10이 이 장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시적 자리예요.

P05 김미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정체성이 생명책과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P07 오지혜: "용이 위임한 권세" — 짐승들의 권세 출처가 용이라는 관찰 기반이에요.

P11 나경아: 헬라어로 하면 "Hōde hē hypomone kai hē pistis tōn hagiōn estin —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13:10b). 이 문장이 이 장 전체의 성도론이에요.

성령일_선교사: 여러 제목들이 다 이 장의 다른 면을 보여 주네요. 함께 붙인다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두 짐승의 권세와 어린양의 생명책".

[침묵]

단계 9 — 동영상 걷기·기도

성령일_선교사: 각자 이 장을 마음속에서 걸으며 기도로 마무리해 봅시다.

P01 한나래: 표 없이는 매매를 못 한다는 장면이 오래 남아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연결된 조건 — 그 조건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요.

P02 이진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13:10) — 짐승이 이기는 장면들 사이에서 이 선언이 버텨 준다는 것이 놀라워요. 이 문장을 붙들고 기도해요.

P04 최현국: 창세 전부터 죽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 — 어린양의 죽음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표현이요. 그 깊이 앞에서 기도해요.

P05 김미영: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장면 — 다수가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 서 있어야 할 때를 생각하며 기도해요.

P07 오지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13:9) — 이 말이 이 어려운 본문 한가운데서 청중에게 건네지는 직접 호소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귀가 있는지를 질문하며 기도해요.

P11 나경아: hypomone(인내) —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압박 아래서 굳건히 남아 있는 것이예요. 이 단어의 무게를 들고 기도해요.

성령일_선교사: 감사합니다. 표와 숫자에 대한 해석은 열어 두고, 성도에게 주어진 자리 — 인내와 믿음 — 를 오늘의 관찰로 가져가겠습니다.

[침묵 — 기도로 마무리]

요한계시록 14장

REV-014 · 예언서(신약) · 헬라어

시온 산에 어린양과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다. 그들은 새 노래(*ōdē kainē*)를 부르고, 이마에 어린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바벨론 심판·짐승 경배 경고를 선포한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14:13). 그리고 추수와 포도 수확의 심판 장면으로 이 구간(12~14장)이 닫힌다.

관찰된 사실

1 첫 느낌·분위기

성령일_선교사: 이 장 전체를 읽었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P01 한나래: 전환과 대조예요. 13장의 짐승과 표의 압박 후에 14장이 시온 산 노래로 시작해요. 놀림 다음에 오는 해방감 같기도 하고, 동시에 뒤에 오는 심판 장면이 묵직하기도 해요. 두 분위기가 한 장 안에 공존해요.

P02 이진우: 선포의 장이에요. 세 천사가 연속으로 선포하고, 하늘 음성도 선포하고, 성령도 응답하셔요. 여러 선포가 겹쳐지는 분위기예요.

P04 최현국: 성숙함의 분위기가 있어요. 십사만 사천 명의 묘사 — 처음 익은 열매, 흠 없는 자들, 입에 거짓 없는 자들 — 이게 오래된 헌신의 결실처럼 느껴져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오랜 걸음의 결과처럼요.

P05 김미영: 종말의 무게가 느껴져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첫째 천사의 선포,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마지막 장면 — 이 무게가 이 장 전체에 깔려 있어요.

P07 오지혜: 복 선언이 가운데 있는 것이 독특해요. 14:13이 심판 선포들 사이에 끼어들어요. 죽음 앞에서 복이라는 역설이요.

P11 나경아: 헬라어 *makarios*(복이 있도다)가 14:13에 나와요. 계시록에서 *makarios*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1:3, 14:13, 16:15, 19:9, 20:6, 22:7, 22:14 — 일곱 번), 이 복 선언들이 심판 이야기 속에 박혀 있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인상적이에요.

[침묵]

2 시작과 끝

성령일_선교사: 이 장의 시작과 끝을 관찰해 봅시다.

P01 한나래: 시작은 "또 내가 보니 시온 산에 어린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1절)예요. 끝은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 말의 굴레에까지 이르러 일천육백 스다디온(14:20)으로 끝나요.

P02 이진우: 시작은 시온 산 + 어린양 + 노래예요. 끝은 포도주 틀 + 피예요. 처음과 끝이 대조적이에요 — 예배에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요.

P04 최현국: 구조로 보면, 전반부(1-13절)는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들 + 세 천사 선포 + 복 선언이고, 후반부(14-20절)는 추수 심판 장면이에요. 이 장은 두 부분이 나뉘어요.

[침묵]

3 등장인물·사상

성령일_선교사: 14장의 등장인물들을 정리해 봅시다.

P01 한나래: 어린양(arnion): 시온 산에 서 있음. 십사만 사천 명과 함께.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새겨짐. 그들이 따르는 대상.

P02 이진우: 십사만 사천 명: 이마에 어린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음. 새 노래를 배운 자들. 처음 익은 열매 (aparche). 흠 없는 자들.

P04 최현국: 세 천사: 첫째 — 영원한 복음을 선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 둘째 —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 셋째 —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

P05 김미영: 인자와 같은 이: 구름 위에 앉아 금 면류관을 쓰고 큰 낫을 가짐. 땅을 추수하는 역할. 천사의 요청에 낫을 휘두름.

P07 오지혜: 성령: 14:13에서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고 응답하심. 계시록에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드문 장면 중 하나예요.

P11 나경아: 하늘 음성(phōnē ek tou ouranou): 14:13에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포. 그리고 14:2에서 거문고 소리 같은 하늘 음성도 나와요.

[참목]

4 장면 컷 분절

성령일_선교사: 이 장을 영화 컷으로 나눠 봅시다.

P01 한나래: 컷 1 — 시온 산: 어린양과 십사만 사천, 이마의 이름 (1절). 컷 2 — 새 노래: 하늘 소리와 노래, 배울 수 있는 자들의 묘사 (2-5절).

P02 이진우: 컷 3 — 첫째 천사: 영원한 복음 선포, 하나님 경배 촉구 (6-7절). 컷 4 — 둘째 천사: 바벨론 무너짐 선포 (8절). 컷 5 — 셋째 천사: 짐승 경배자에 대한 심판 경고 (9-11절).

P04 최현국: 컷 6 — 성도들의 자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복 선언 (12-13절). 컷 7 — 추수 심판: 구름 위 인자와 낫, 땅의 추수 (14-16절).

P05 김미영: 컷 8 — 포도 수확 심판: 천사가 낫을 휘두르고,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넘침 (17-20절).

[참목]

5 의문·발견·정보

성령일_선교사: 관찰 중 생긴 질문들을 나눠 봅시다.

P01 한나래: 십사만 사천 명 — 7장에서도 십사만 사천 명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7장의 십사만 사천과 14장의 십사만 사천이 같은 그룹인지, 아닌지는 본문 관찰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미해결 질문으로 보류해요.

P02 이진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로서 처녀들"(4절) — 이 묘사가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 성별에 관계없는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지는 본문 관찰로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미해결 질문으로 보류해요.

P04 최현국: 바벨론(Babylōn) —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선포해요(8절).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본문 내에서 명시되지 않아요. 미해결 질문으로 보류해요.

P05 김미영: "영원한 복음"(euangelion aiōnion)(6절) — 이 표현이 특별해요. 복음이 영원한 것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심판 직전에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 관찰돼요.

P07 오지혜: 14:13의 복 선언 위치 — "지금부터"라는 시간 표시가 있어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부터"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맥락 안에서 관찰로만 볼 때 미해결이에요.

P11 나경아: 포도주 틀 이미지(lēnos)와 피 — 피가 말의 굴레까지 올라왔고 일천육백 스다디온이라는 거리가 명시돼요(14:20). 이 숫자가 상징인지 문자적 거리인지는 본문 관찰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12~14장 전체를 닫는 마지막 장면이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인상적이에요.

[침묵 — 미해결 질문들을 각자 노트에 기록함]

6 동영상 흐름

성령일_선교사: 이 장 전체를 동영상처럼 흐름으로 서술해 봅시다.

P01 한나래: 시온 산에 어린양과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어요. 하늘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요. 십사만 사천 명이 새 노래를 배워 부르는 것인데, 그 노래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어요.

P02 이진우: 세 천사가 연속해서 선포해요. 창조주에게 경배하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온다.

P04 최현국: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선언되고(12절), 하늘 음성이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포해요. 성령이 "그러하다"고 응답하세요.

P05 김미영: 장면이 전환돼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고 낫을 가졌어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두 때가 됐다"고 외쳐요. 낫이 휘둘러지고 땅이 거두어져요.

P07 오지혜: 다른 천사가 불을 맡은 천사로부터 포도 수확을 명령받아 낫을 휘둘러요. 포도주 틀이 밝히고 피가 1600 스다디온에 퍼질 만큼 흘러나와요.

P11 나경아: [10단계] 운동·도약: 이 장의 운동은 두 방향이에요 — 위쪽 운동: 새 노래, 시온 산,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들 / 아래쪽 운동: 심판, 낫, 포도주 틀, 피. 14:13의 복 선언은 이 두 운동의 교차점에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수고는 그치고 행한 일이 따른다 — 아래의 죽음이 위로 이어지는 반전의 선언이에요.

[침묵 — 운동의 흐름을 각자 노트에 기록함]

자가감사 6/6 완료. 1 첫 느낌·분위기 ✓ / 2 시작과 끝 ✓ / 3 등장인물·사상 ✓ / 4 장면 컷 분절 ✓ / 5 의문·발견·정보 ✓ / 6 동영상 흐름·[10단계] ✓

종합 정리

G — 구축사 좌표: 이 장이 REV 흐름 위 어디에 서 있는가

14장은 12~14장 구간(여자와 용·짐승·어린양과 십사만 사천·세 천사)의 마지막 장이다. 11:15 왕권 선언 이후 펼쳐진 이 구간은 하늘의 완료된 승리(12장)와 땅의 진행 중인 핍박(13장)을 이미 대조했다. 14장은 이 긴장의 해소를 제시한다: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들(13장) 대신, 어린양의 이름을 이마에 가진 자들이 시온 산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은 추수 심판으로 닫힌다 — 12~14장 구간 전체가 심판 예고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REV 전체 흐름(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에서 14장은 "어린양을 따른 자들의 최종 자리와 심판 예고"를 담은 구간이다.

H — 운동 벡터: spine 국면에서 이 장의 움직임

운동 1: 시온 산 — 어린양을 따른 자들의 자리. 이마의 이름이 짐승의 이름(13장)에서 어린양의 이름으로 전환된다. 운동 2: 세 천사 선포 — 복음, 바벨론 무너짐, 짐승 경배자 심판의 삼중 선포. 심판이 오기 전에 복음

이 먼저 선포된다. 운동 3: 14:13 복 선언 — 인내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선포가 내려온다. 운동 4: 추수 심판 — 큰 낫으로 땅이 거두어지고 포도주 틀이 밟힌다. 전체 벡터: 어린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노래 → 선포 → 인내 → 심판 예고. 12~14장 구간의 마무리로서, 완료된 승리가 땅의 인내를 통해 현재화되고 심판으로 귀결된다.

I — 수면 아래: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

14:13의 구조가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낸다. 하늘 음성이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성령이 "그러하다"고 응답하신다 — 하늘과 성령이 함께 이 복을 확인하는 것이다. 땅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며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수고가 그칠 것이고 행한 일이 따를 것이라는 약속 —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건네시는 심정이다. 처음 익은 열매(aparche)라는 표현 안에도 심정이 있다: 그들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뒤에 오는 풍성한 수확을 대표하는 첫 열매라는 것이다.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추수의 시작으로 보신다.

J — 실존적 부름: 끝까지 이기는 자로 부르는 불씨

14:4의 질문이 남는다 —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묘사가 내게 해당하는가?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들만 부를 수 있다면 —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그 노래를 배우는 길인가? 14:12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인내" — 인내의 내용이 계명 준수와 믿음 유지라는 것이 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14:13의 약속 — "수고가 그치고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이 지금 내가 지쳐 있을 때 사실로 붙드는 선언인가?

좌표	내용
G: 구속사 위치	12~14장 구간의 마무리 —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의 시온 산 자리 + 추수 심판 예고로 구간이 닫힘
H: 운동 벡터	어린양 이름의 이마(집승 이름 대조) → 세 천사 선포 → 복 선언(14:13) → 추수 심판
I: 수면 아래	주 안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수고가 그치고 행한 일이 따른다"는 성령의 확인; 처음 익은 열매로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J: 실존적 부름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인가; 지금 인내하는 자리에서 14:13의 복이 실제 근거인가

SBM Observatory · REV-014 · 요한계시록 14장 · 예언서(신약) · 헬라어 · 2026-06-06

미해결 질문

단계 8 — 초벌 제목·부제

성령일_선교사: 이 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P01 한나래: "시온 산의 새 노래와 땅의 심판" — 두 장면의 대조를 담으려 했어요.

P02 이진우: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의 노래" — 14장의 핵심이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P04 최현국: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 14:13이 이 장 전체를 대표하는 선언이에요.

P05 김미영: "추수의 때: 새 노래 편과 포도주 틀 편" — 두 수확이 공존하는 장이에요.

P07 오지혜: "처음 익은 열매들의 이야기" — 십사만 사천이 aparche(처음 익은 열매)로 묘사됐다는 것이 이 장에서 가장 온기 있는 표현이에요.

P11 나경아: 헬라어로 하면 "Makaríoi hoi nekroí hoi en kyriō apothnēskontes —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14:13). 이 선언 안에 이 장의 역설이 다 들어 있어요.

성령일_선교사: 함께 붙인다면 "처음 익은 열매들의 새 노래: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2~14장 구간 전체의 마무리 제목으로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침묵]

단계 9 — 동영상 걷기·기도

성령일_선교사: 각자 이 장을 마음속에서 걸으며 기도로 마무리해 봅시다.

P01 한나래: 시온 산에 어린양이 서 있고 십사만 사천 명이 함께 있는 첫 장면이요. 그 이마에 어린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 — 내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해요.

P02 이진우: 새 노래를 그들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다는 것 — 노래는 경험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길을 걸어간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들고 기도해요.

P04 최현국: aparche(처음 익은 열매) — 이 표현 앞에 서요. 처음 익은 열매는 뒤에 오는 수확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다는 소망으로 기도해요.

P05 김미영: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6절) — 심판의 시간에도 복음이 먼저 선포된다는 순서가 인상적이에요. 복음이 심판보다 먼저라는 것을 들고 기도해요.

P07 오지혜: 14:12-13 —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의 인내"와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연결돼요. 인내와 죽음 사이, 그 자리에 복이 있다는 것 — 이 역설을 들고 기도해요.

P11 나경아: 성령의 응답(nai, legei to pneuma)이요 — "그러하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직접 "그러하다"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강렬해요. 내가 피곤할 때, 수고가 쌓일 때, 이 "그러하다"가 들린다면 어떨지를 생각하며 기도해요.

성령일_선교사: 감사합니다. 14장으로 12~14장 구간이 마무리됩니다. 여자와 용, 두 짐승과 표, 그리고 어린양과 처음 익은 열매들 — 이 구간 전체는 하늘의 완료된 승리가 땅의 진행 중인 핍박 속으로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보여 줬어요. 다음 구간은 마지막 심판과 새 하늘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침묵 — 기도로 마무리]

요한계시록 15장

REV-015 · 예언서(신약) · 헬라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유리 바다 곁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수금을 들고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ode Moyseos kai ode tou arniou)를 부른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 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15:8). 대접 심 판이 시작되기 직전의 찬양·장엄한 준비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찬양.
- 무대: 전적으로 하늘 — 유리 바다(2절), 증거 장막의 성전(5절), 성전 연기로 봉쇄(8절).
- 핵심 소품: 유리 바다(thalassa hyaline)·수금(kitharai)·일곱 천사·금 대접 일곱(phialai chrysai)·증 거 장막 성전(naos tes skenes tou martyriou)·연기(kapnos).
- 핵심 인물: 이기는 자들(2절)·일곱 천사(1절)·네 생물 중 하나(7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심판 직전 찬양의 공기 — 이기는 자들이 먼저 노래함.
- 2절 "이기고 벗어난 자들" — 이김이 이미 완료된 상태.
- 8절 성전 봉쇄 — 장엄한 단함. 재앙이 마치고까지 들어갈 수 없음.
- 1절 "마지막 재앙" — 종말의 완성 예고.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 8절: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고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 시작(진노 완성 예고) → 끝(성전 봉쇄). 그 사이에 이기는 자들의 찬양(2-4절)과 천사 준비(5-7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이기는 자들·일곱 천사·네 생물 중 하나·하나님.
- 상황: 예고(1절)→이기는 자들 유리 바다 찬양(2-4절)→성전 열림·천사 준비(5-7절)→성전 봉쇄(8절).
- 사상 핵: 이김의 완료(2절). 하나님의 거룩과 의(3-4절). 진노의 완성(1절·7절). 성전 봉쇄(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이적 예고 — 마지막 재앙·하나님 진노 완성.
- 컷 2 (2-4절): 이기는 자들이 유리 바다 곁에서 수금 들고 찬양.
- 컷 3 (5-7절): 성전 열림·일곱 천사 나옴·금 대접 받음.

- 컷 4 (8절): 성전이 연기로 봉쇄 — 재앙이 마치고까지.

6 — (1) 원어 카드

- thalassa hyaline(θάλασσα ὑαλίνη) — 유리 바다. 2절. 4:6과 같은 표현.
- kitharai(κιθάρας) — 수금. 2절. 찬양 악기.
- arnion(ἄρνιον) — 어린양. 3절. REV 전반에 걸친 핵심 명칭.
- ode(ὕδῃ) — 노래. 3절.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 pantokrator(παντοκράτωρ) — 전능하신 이. 3절.
- monos hosios(μόνος ὅσιος) — 주만 거룩하시다. 4절.
- naos tes skenes tou martyriou(ναὸς τῆς σκηνῆς τοῦ μαρτυρίου) — 증거 장막의 성전. 5절.
- thymos(θυμός) — 진노. 7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진노".
- kapnos(καπνός) — 연기. 8절. 영광과 권능으로 성전에 가득 참.
- orge(ὀργή) — 진노. 8절. thymos와 함께 쓰임.

6 — (2) 문학 구조

- 수미 대응: 1절(진노 완성 예고) ↔ 8절(재앙 마치고까지 봉쇄).
- 찬양(2-4절) → 준비(5-7절) → 봉쇄(8절)의 3단계 구조.
- 이기는 자들의 찬양이 대접 심판을 서막으로 여는 구조.
- 3-4절 찬양 내용이 REV 전반에 걸친 하나님 명칭들을 집약함.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유리 바다(2절) — 4:6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다"와 같은 표현. REV 내 반복.
- "모세의 노래"(3절) — 출 15장(홍해 건넌 후 모세의 노래)과 신 32장이 배경으로 언급될 수 있으나 본문이 직접 인용하지 않음(배경 자료로만).
- "증거 장막"(5절) — 구약 성막의 공식 명칭(출 38:21, 민 1:50). 하늘 성전에 이 이름이 붙음.
- 성전 연기와 연기로 봉쇄(8절) — 구약 성전 봉헌 시 연기 충만 이미지(왕상 8:10-11, 사 6:4)와 평행 가능 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15:2 ↔ 계 4:6 (유리 바다 반복)
- 계 15:3 ↔ 계 11:17 (전능하신 주 하나님 명칭 반복)
- 계 15:5 ↔ 계 11:19 (하늘 성전 열림 반복)
- 계 15:8 ↔ 계 8:4 (성전 연기 이미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나타난다 —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1절).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완성된다(1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곁에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서 하나님의 수금을 들고 있다(2절).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 —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3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4절). 이 일 후에 하늘에 증

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5절).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두른 일곱 천사가 나온다(6절).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준다(7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일곱 재앙이 마치고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8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유리 바다 곁에서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다 — 일곱 대접 심판의 서막"
- 초벌 부제: "이기는 자들이 찬양하고 성전이 봉쇄되다 —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thalassa hyaline·kitharai·arnion·ode·pantokrator·monos hosios·naos tes skenes tou martyriou·thymos·kapnos·orge)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모세의 노래 출 15장 평행, 성전 연기 충만 왕상 8:10-11 이미지, 증거 장막 구약 명칭)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특정 구약 본문 동일시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일곱 대접을 역사적 사건과 단정 연결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성전 봉쇄의 신학적 해석을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유리 바다의 두 용례를 성급히 동일시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15장은 짐승과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곁에서 수금을 들고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찬양하고, 일곱 천사가 증거 장막 성전에서 나와 진노 가득한 금대접을 받아 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성전이 연기로 봉쇄되는 일곱 대접 심판의 서막이다.

한 문단: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나타난다 — 일곱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될 것이 예고된다. 짐승을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다 곁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국의 경배를 노래한다. 이 일 후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일곱 천사가 나와 진노 가득한 금대접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재앙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하늘 무대 전체. thalassa hyaline·kitharai·phialai chrysai·naos·kapnos.
2 첫 느낌·분위기	심판 직전 찬양. 이기는 자들의 이김이 이미 완료. 8절 장엄한 봉쇄.
3 시작과 끝	시작: 마지막 재앙·진노 완성 예고(1절). 끝: 성전 봉쇄(8절).
4 등장인물·상황·사상	이기는 자들·일곱 천사. 이김의 완료(2절). 하나님의 거룩(3-4절). 진노 완성.
5 장면 컷	컷1 예고(1), 컷2 찬양(2-4), 컷3 천사 준비(5-7), 컷4 성전 봉쇄(8).
6 의문·발견·정보	두 노래 관계 미해결. 유리 바다 두 용례. 봉쇄 의미. 미해결 6건.
7 동영상	예고→이기는 자들 찬양→성전 열림·대접 준비→연기 봉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유리 바다 곁에서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 부제: "대접 심판의 서막".
9 동영상 안 겉기·기도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다 곁에 서서 수금을 드는 그 자리.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이김이 먼저, 심판이 그 다음:** 2절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미 이겼다(과거형). 그들이 유리 바다 곁에 서서 찬양한다.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준비된다(5-7절). REV spine의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이 구조에서 선언된다.
- 결 2 — 찬양이 심판의 서막을 연다:** 3-4절 찬양이 심판을 서막으로 열어준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만국의 경배를 노래하고 나서 천사들이 나와 금대접을 받는다. 찬양과 심판의 순서가 관찰된다.
- 결 3 — 성전 봉쇄가 심판 시작을 알린다:** 8절 성전이 연기로 봉쇄된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들어갈 자 없더라" — 이 봉쇄가 16장 대접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경계선이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15:2 ↔ 계 4:6 (유리 바다 반복), 계 15:5 ↔ 계 11:19 (하늘 성전 열림), 계 15:3 ↔ 계 11:17 (전능하신 주 하나님 명칭).
- 다른 권 — 출 15장(모세의 노래, 배경 자료로만), 왕상 8:10-11(성전 연기 충만, 배경 자료로만), 출 38:21(증거 장막 명칭,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 국면(15~16장)의 서막. 16장에서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마지막 재앙" 예고 — 그 예고 앞에 선다.
- 멈춤 1: 2절 이기는 자들이 유리 바다 곁에 서서 수금을 드는 장면 — 그 자리에 선다.
- 멈춤 2: 3-4절 찬양 —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앞에 멈춘다.
- 멈춤 3: 8절 성전이 연기로 봉쇄되는 장면 — 그 장막 앞에 선다.
- 끝: "재앙이 마치기까지 들어갈 자 없더라" — 그 경계 앞에 멈춘다.

F· 자족성 점검

- [x] 이기는 자들의 찬양(2-4절)이 관찰됨
- [x]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내용(3-4절)이 관찰됨
- [x] 일곱 천사의 준비(5-7절)가 관찰됨
- [x] 성전 봉쇄(8절)가 관찰됨
- [x] 1절 "마지막 재앙" 예고가 관찰됨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15장은 그 spine에서 일곱 대접 심판 국면(15~16장)의 서막이다. 14장까지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사이의 구도가 펼쳐졌고, 이제 15~16장에서 "악을 심판 하심"의 국면이 열린다. 15장은 그 직전 — 이기는 자들의 찬양과 성전 봉쇄로 심판이 준비되는 자리다. REV phases(spec § 10)에서 "15~16 일곱 대접 심판" 국면의 첫 장이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곁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찬양하는 장면(2-4절) → 일곱 천사가 나와 진노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아 가고 성전이 연기로 봉쇄되는 심판 준비 장면(5-8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15장은 이기는 자들의 찬양이 대접 심판의 서막을 여는 운동이다. REV spine에서 "악을 심판하심"의 국면이 열리기 직전, 하늘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노래한다. "끝까지 이기게 하심"의 결과인 이기는 자들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심판이 준비된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이기는 자들의 찬양과 천사들의 준비와 성전 봉쇄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의 의중 —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완성된 행사**라는 것이다. 3절 찬양 —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심판 전에 이기는 자들이 먼저 이 사실을 노래한다. 그리고 심정 — 이기는 자들을 유리 바다 곁에 세우시는 하나님, 고난과 이김을 통과한 그들에게 수금을 드리게 하시는 그 심정이 이 장에 비친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짐승을 이기고 나서 — 수금을 드는 손이 있다.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15장은 독자를 2절(이기는 자들이 유리 바다 곁에 서는 자리)에도, 3절(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행사를 노래하는 자리)에도, 8절(성전이 닫히는 경계 앞)에도 세운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16장으로 이어진다 —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의 장면이 펼쳐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thymos(진노).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15장의 서막 이후, 16장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차례로 땅에 쏟으며 심판이 실행된다 — "아마겟돈"(16:16)·"되었다"(gegonen, 16:17).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15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는 하나의 노래인가, 두 개인가?

- 헬라어에서 ode가 두 번 쓰여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로 표현됨.
- 하나의 노래에 두 이름인지, 두 개의 노래인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2절의 "유리 바다"와 4:6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같은 것인가?

- 두 곳 모두 thalassa hyaline이지만 15:2에는 "불이 섞인" 것으로 묘사됨.
-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8절의 성전 봉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8절).
- 이 봉쇄가 어떤 의미인지,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지 이 장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1절의 "마지막 재앙"은 인·나팔과 어떤 관계인가?

- 일곱 인(6~8장), 일곱 나팔(8~11장), 일곱 대접(15~16장)의 관계.
- 대접이 "마지막"(eschatas)으로 명시되지만 세 심판의 관계가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5. 2절의 이기는 자들은 누구인가?

-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2절).
- 이들이 언제, 어떻게 이겼는지 이 장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쓰인 이유는 무엇인가?

- 구약 성막의 공식 명칭이 하늘 성전에 붙음.
- 이 명칭의 의미가 이 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16장

REV-016 · 예언서(신약) · 헬라어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phialai)을 차례로 땅에 쏟는다. 여섯째 대접에서 아마겟돈(Armagedōn)이 예비되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되었다"(gegonen, 16:17)를 선언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일곱 대접 심판의 전 과정이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심판.
- 무대: 땅(첫째~다섯째 대접)·유브라데 강·아마겟돈(여섯째)·공중과 큰 성(일곱째).
- 핵심 소품: 일곱 대접(phialai)·헌데(helkos)·피(haima)·어둠(skotos)·유브라데 강·아마겟돈·우박 달란트.
- 핵심 인물: 일곱 천사·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물의 천사·제단 음성·용·짐승·거짓 선지자·천하 왕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일곱 대접의 연속 실행 — 각각 재앙이 다름.
- 심판 중에 의로움 선언(5-7절) 끼어들기.
- 회개 거부 반복(9절·11절·21절).
- 17절 "되었다" — 정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 21절: "사람들이 그 박재 재앙을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 시작(명령) → 끝(비방). 17절 "되었다"가 중심 정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일곱 천사·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물의 천사·용·짐승·거짓 선지자·천하 왕들·하나님.
- 상황: 명령→일곱 대접 차례 실행→의로움 선언(5-7절)→회개 거부→아마겟돈 예비→"되었다"→지진·우박·비방.
- 사상 핵: 의로운 심판(5-7절). 회개 거부(9절·11절). 진노 완성·"되었다"(17절). 큰 바벨론 기억됨(1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첫째 대접 —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헌데.
- 컷 2 (3-7절): 둘째·셋째 대접 — 바다·강이 피됨. 의로움 선언.
- 컷 3 (8-11절): 넷째·다섯째 대접 — 불·어둠. 회개 거부.

- 컷 4 (12-16절): 여섯째 대접 — 유브라데·세 더러운 영·아마겟돈. 경고(15절).
- 컷 5 (17-21절): 일곱째 대접 — "되었다"·지진·큰 바벨론·우박·비방.

6 — (1) 원어 카드

- phialai(φιάλας) — 대접. 1절. 넓고 얇은 그릇, 제의용 기물.
- helkos(ἑλκος) — 헌데·종기. 2절.
- haima(αἷμα) — 피. 3절·4절·6절.
- kauma(καῦμα) — 뜨거운 열·불. 9절.
- skotos(σκότος) — 어둠. 10절.
- potamos ho megas ho Euphrates(ποταμὸς ὁ μέγας ὁ Εὐφράτης) — 큰 강 유브라데. 12절.
- Armagedōn(Ἀρμαγεδών) — 아마겟돈. 16절. 히브리어 기원 지명 음역. REV에서 이 절에만 나타남.
- gegonen(γέγονεν) — 되었다. 17절. 완료 시제 선언.
- talanta(τάλαντα) — 달란트. 21절. 무게 단위.
- thymos(θυμός) — 진노. 19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6 — (2) 문학 구조

- 일곱 대접의 반복 구조 — 각 대접마다 쏟는 장소·재앙·반응이 다름.
- 5-7절 의로움 선언 — 심판 과정 중간 삽입.
- 회개 거부 반복(9절·11절) — 두 번 같은 표현.
- 15절 경고 — 여섯째·일곱째 대접 사이 삽입. 심판 묘사 중 돌출.
- gegonen(17절) ↔ etelesthe(15:1) 수미 대응.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일곱 대접 재앙들 — 출애굽 열 가지 재앙(피·헌데·어둠 등)과 이미지 평행 가능하나 본문이 직접 인용하지 않음(배경 자료로만).
- 아마겟돈(16절) — "므깃도 산"으로 해석 가능한 히브리어 기원이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달란트 무게 우박(21절) — 달란트는 약 30~40kg. 이 무게가 상징적인지 문자적인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16:1 ↔ 계 15:1 (진노 완성 예고·실행)
- 계 16:17 ↔ 계 21:6 (gegonen 두 번 — 심판 완성·새 창조 완성)
- 계 16:19 ↔ 계 17-18장 (큰 바벨론 기억됨 → 바벨론 패망 상세)
- 계 16:15 ↔ 계 3:3 (도둑 같이 오심 경고 반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전에서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한다(1절). 첫째부터 일곱째 대접이 차례로 쏟아진다 — 첫째(헌데, 2절), 둘째(바다가 피됨, 3절), 셋째(강이 피됨, 4절). 물의 천사가 "의로우시도다"를 선언하고 제단도 응답한다(5-7절). 넷째(불, 8-9절), 다섯째(어둠, 10-11절) — 사람들이 재앙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섯째(유브라데 마름, 12절)에 용·짐승·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 왕들을 아

마갯돈으로 모은다(13-16절). 그 사이에 "도둑 같이 오심" 경고가 끼어든다(15절).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되었다"(gegonen)가 선언되고, 큰 지진·큰 성 갈라짐·큰 바벨론 기억됨·우박이 이어진다(17-21절). 사람들이 우박 재앙으로 하나님을 비방한다(21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되었다 —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다"
- 초벌 부제: "아마갯돈이 예비되고 큰 바벨론이 기억되다 — 16:17 gegonen"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phialai·helkos·haima·kauma·skotos·Euphrates·Armagedōn·gegonen·talanta·thymo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출애굽 재앙 평행, 달란트 무게 단위, 아마갯돈 히브리어 기원)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아마갯돈을 특정 역사적 장소·사건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일곱 대접을 역사적 사건 도식으로 단정 연결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대접 심판과 나팔·인 심판의 관계를 성급히 확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회개 거부를 특정 집단 지목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16장은 성전에서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에 따라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차례로 실행하고, 심판 과정 중에 의로움 선언(5-7절)과 회개 거부(9절·11절)가 반복되며, 여섯째 대접에서 아마갯돈이

예비되고,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되었다"(gegonen, 17절)가 선언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REV 심판 국면의 완결이다.

한 문단: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한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재앙이 차례로 실행된다 — 헌데·피·불·어둠. 심판 중에 물의 천사와 제단이 "의로우시도다"를 선언한다. 사람들은 재앙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섯째 대접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붙고 더러운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은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자 보좌에서 "되었다"가 울리고, 큰 지진에 큰 바벨론이 심판받고 달란트 무게 우박이 쏟아진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땅·유브라데·아마겟돈·공중. phialai·helkos·haima·skotos·gegonen.
2 첫 느낌·분위기	일곱 반복 실행. 의로움 선언 삽입. 회개 거부 반복. 17절 "되었다" 정점.
3 시작과 끝	시작: 쏟으라 명령(1절). 끝: 우박·비방(21절). 17절 gegonen이 중심.
4 등장인물·상황·사상	일곱 천사·짐승 편·물의 천사. 의로운 심판. 회개 거부. 진노 완성.
5 장면 컷	컷1 첫째(1-2), 컷2 둘째셋째(3-7), 컷3 넷째다섯째(8-11), 컷4 여섯째(12-16), 컷5 일곱째(17-21).
6 의문·발견·정보	gegonen 두 번(16:17·21:6). 아마겟돈 지명 미해결. 15절 경고 위치. 미해결 6건.
7 동영상	명령→일곱 대접 실행→의로움 선언→회개 거부→아마겟돈→"되었다"→지진·우박·비방.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되었다 —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다". 부제: "아마겟돈·gegonen".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17절 "되었다" 선언 앞에 섬.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의로움 선언이 심판 중에 끼어들다:** 5-7절에서 물의 천사와 제단이 심판 진행 중에 "의로우시도다"를 선언한다. 이 삽입이 심판의 성격을 규정한다 —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운 완성이다.
- 결 2 — 회개 거부가 반복되다:** 9절·11절에서 재앙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반응이 반복된다. 이 패턴이 이 장의 독특한 관찰이다 — 재앙이 회개를 만들지 않는다.
- 결 3 — gegonen이 두 번 — 심판과 새 창조의 완성:** 16:17의 gegonen은 심판의 완성이다. 같은 동사가 21:6에서 새 창조의 완성에 쓰인다. 두 완성이 REV spine을 관통하는 완성의 언어로 연결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16:1 ↔ 계 15:1** (진노 완성 예고→실행), **계 16:17 ↔ 계 21:6** (gegonen 두 번), **계 16:19 ↔ 계 17-18장** (큰 바벨론 상제).
- 다른 권 — **출 7-10장**(재앙 이미지, 배경 자료로만), **신 32:43**(피 보수 이미지,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16장은 15~16장 대접 심판 국면의 완성. 17~18장에서 큰 바벨론의 패망이 상세히 펼쳐진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쏟으라" 명령 — 그 명령 앞에 선다.
- **멈춤 1:** 5-7절 "의로우시도다" 선언 — 그 선언 앞에 멈춘다.
- **멈춤 2:** 9절·11절 회개 거부 장면 — 그 장면 앞에 멈춘다.
- **멈춤 3:** 17절 "되었다" 선언 — 그 완성 선언 앞에 선다.
- **끝:** 21절 우박 이후 비방 — 그 자리 앞에 멈춘다.

F·자족성 점검

- [x] 일곱 대접의 순서와 각각의 재앙이 관찰됨
- [x] 의로움 선언(5-7절)이 관찰됨
- [x] 회개 거부(9절·11절)가 관찰됨
- [x] 아마겟돈(16절)이 관찰됨
- [x] 17절 "되었다"(gegonen)가 관찰됨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16장은 그 spine에서 일곱 대접 심판 국면(15~16장)의 완결 — "악을 심판하심"의 실행이 완성되는 자리이다. REV phases(spec § 10)에서 "15~16 일곱 대접 심판"의 두 번째 장이자 완결이다. 17절 "되었다"(gegonen)는 이 국면의 정점 선언이며, 같은 선언이 21:6에서 새 창조의 완성에 다시 올린다 — 심판의 완성이 새 창조의 서막이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곱 대접이 차례로 쏟아지고 재앙 중에도 회개 거부가 반복되는 심판 실행(1-16절) → 일곱째 대접에서 "되었다"가 선언되고 큰 바벨론이 기억되어 심판받는 완성(17-2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16장은 일곱 대접이 쏟아져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고 "되었다"가 선언되는 운동이다. REV spine에서 "악을 심판하심"의 국면이 이 선언으로 완성되고, 17~18장의 큰 바벨론 패망·19장의 어린양의 혼인 잔치·21~22장의 새 하늘 새 땅으로 나아가는 흐름의 전환점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일곱 재앙의 연속 실행과 "되었다" 선언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의 의중 — 심판은 의롭고 참된 완성이라는 것이다**. 5-7절에서 물의 천사와 제단이 "의로우시도다"를 선언한다 —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6절). 심판의 동기가 성도들의 피다. 그리고 심정 — 회개 거부(9절·11절)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 완성의 언어 "되었다"에 담긴 무게가 이 장에 비친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되었다"는 심판의 완성이다 — 그 완성이 새 창조의 문을 여는 선언이기도 하다(21:6).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16장은 독자를 5절(의로우시도다 선언 앞)에도, 9절(회개 거부 장면 앞)에도, 17절("되었다" 선언 앞)에도 세운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17~18장으로 이어진다 —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이 상세히 펼쳐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Babylōn hē megalē(큰 바벨론).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16:19에서 기억된 큰 바벨론이 17~18장에서 상세히 묘사된다 — 큰 음녀 바벨론·일곱 머리 열 뿔·"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16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16:17 "되었다"(gegonen)와 21:6의 "되었다"는 어떤 관계인가?

- 같은 동사 gegonen이 심판 완성(16:17)과 새 창조 완성(21:6)에 사용됨.
- 두 완성의 관계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아마겟돈(16:16)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 본문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이라고만 명시함.
- 이 지명의 정확한 위치·의미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15절의 경고("도둑 같이 오리니")가 여기에 삽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 여섯째·일곱째 대접 사이에 끼어들어 문맥을 벗어난 것처럼 보임.
- 이 위치의 의미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회개 거부(9절·11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비방함 — 이 패턴이 두 번 반복됨.
- 이것이 인간 의지의 완전한 거부인지, 다른 무엇인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5.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출애굽 재앙과 어떤 관계인가?

- 피·어둠·헌데 등의 이미지가 출애굽 재앙과 겹침.
- 본문이 출애굽을 직접 인용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19절에서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진노의 잔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큰 바벨론이 기억됨 — 기억이 심판의 전제가 됨.
- 큰 바벨론의 정체와 심판의 상세가 16장에서는 설명되지 않고 17-18장으로 이어짐.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17장

REV-017 · 예언서(신약) · 헬라어

붉은 짐승 위에 탄 큰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해석된다. 그러나 14절에서 핵심이 선언된다 —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Kyrios kyriōn kai Basileus basileōn, 17:14). 바벨론 구도의 중심에 어린양의 승리 선언이 있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해석 (환상 + 천사의 직접 해석).
- 무대: 광야(환상, 1-6절), 해석 공간(7-18절).
- 핵심 소품: 큰 음녀(pornē)·붉은 짐승(therion kokkinos)·금잔·자주 빛 옷·이마의 이름·성도들의 피.
- 핵심 인물: 큰 음녀·붉은 짐승·열 뿔·어린양·부름받고 택함받은 진실한 자들·요한·해석 천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6절 피에 취한 여자 — 충격적 묘사.
- 7-13절 길고 복잡한 짐승 해석.
- 14절 어린양의 이김 선언 — 단 한 절의 전환.
- 16-17절 음녀를 배반하는 열 뿔 — 반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 18절: "네가 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 시작(심판 약속) → 끝(큰 성 정체 선언). 14절 어린양 이김이 구조적 전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큰 음녀·붉은 짐승·열 뿔·어린양·택함받은 자들·요한·천사.
- 상황: 음녀 환상(1-6절)→요한 놀람→짐승 해석(7-13절)→어린양 이김 선언(14절)→반전 해석(15-18절).
- 사상 핵: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6절). 어린양이 만주의 주·만왕의 왕으로 이기심(14절). 하나님의 뜻대로 짐승 편이 음녀를 배반함(17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큰 음녀 환상 — 광야·붉은 짐승·금잔·피에 취함·요한의 놀람.
- 컷 2 (7-13절): 짐승과 일곱 머리·열 뿔의 비밀 해석.
- 컷 3 (14절): 어린양의 이김 선언 — 만주의 주·만왕의 왕.

- 컷 4 (15-18절): 물 해석·열 뿔의 반전·여자는 큰 성.

6 — (1) 원어 카드

- pornē(πόρνη) — 음녀. 1절·5절·15절·16절.
- therion kokkinos(θηρίον κόκκινον) — 붉은 짐승. 3절.
- mystērion(μυστήριον) — 비밀. 5절·7절. 이마의 이름·짐승의 비밀.
- haima(αἷμα) — 피. 6절.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언한 자들의 피에 취함".
- hepta kephalai(ἑπτὰ κεφαλαί) — 일곱 머리. 7절·9절.
- deka kerata(δέκα κέρατα) — 열 뿔. 7절·12절.
- Kyrios kyriōn(Κύριος κυρίων) — 만주의 주. 14절. 19:16에도 반복.
- Basileus basileōn(Βασιλεὺς βασιλέων) — 만왕의 왕. 14절. 19:16에도 반복.
- arnion(ἄρνιον) — 어린양. 14절.
- porneia(πορνεία) — 음행. 2절·4절. 바벨론의 특성 묘사.

6 — (2) 문학 구조

- 환상(1-6절) + 해석(7-18절)의 이중 구조. 천사가 직접 해석을 제공함.
- 14절 어린양 이김 선언이 짐승 해석(7-13절)과 반전 해석(15-18절) 사이에 위치함 — 구조적 전환.
- 16-17절 반전 — 열 뿔이 음녀를 배반함. 바벨론의 패망이 내부 붕괴로 이어짐.
- 5절 이마의 이름과 18절 큰 성 정체 선언의 수미 대응.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큰 바벨론"(5절) — 구약 바벨론(바빌론)과 이름이 같으나 이 장이 직접 동일시하지 않음(배경 자료로만).
- 일곱 산(9절) — 로마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 장이 직접 명시하지 않음(배경 자료로만).
- Kyrios kyriōn kai Basileus basileōn(14절) — 구약 신 10:17의 "신 중의 신이시요 주 중의 주"와 언어 평행 가능하나 직접 인용 아님(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17:14 ↔ 계 19:16 (Kyrios kyriōn·Basileus basileōn 반복)
- 계 17:6 ↔ 계 6:10 (성도들의 피 — 순교자들의 호소)
- 계 17:1 ↔ 계 19:2 (음녀의 심판 약속·성취)
- 계 17:16 ↔ 계 18:8 (음녀를 불로 사름 반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천사가 요한에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이겠다고 한다(1절). 성령 안에서 광야로 가니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잔을 든 여자가 일곱 머리 열 뿔의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다(3-4절). 이마에 "비밀·큰 바벨론·땅의 음녀들의 어미"가 기록돼 있고(5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언한 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6절). 요한이 놀란다(6절). 천사가 짐승의 비밀을 설명한다 — 일곱 머리·열 뿔의 구조(7-13절). 그 설명의 끝에 선언이 나온다 —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한 자들도 이기리 로다"(14절). 천사가 계속 설명한다 — 물은 모든 민족(15절), 열 뿔이 음녀를 배반해 불로 사를 것(16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17절).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18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기시리라 — 큰 음녀 바벨론의 장에서"
- 초벌 부제: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와 짐승의 비밀 — 그리고 어린양의 이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pornē·therion kokkinos·mystērion·haima·hepta kephalai·deka kerata·Kyrios kyriōn·Basileus basileōn·arnion·porneia)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일곱 산-로마 연결 배경, 구약 바벨론 이름 평행, 신 10:17 언어 평행)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큰 바벨론을 특정 역사적 국가·도시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일곱 머리·열 뿔을 특정 역사적 왕들로 단정 연결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음녀를 특정 종교·정치 기관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짐승의 시대적 도식 해석 단정 금지 → 미해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17장은 성도들의 피에 취한 큰 음녀 바벨론이 일곱 머리 열 뿔의 붉은 짐승에 올라탄 환상과 그 비밀 해석이 천사에 의해 펼쳐지고, 그 한가운데서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기실 터이요"(14절)가 선언되며, 열 뿔이 음녀를 배반해 바벨론의 패망이 내부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주는 REV 바벨론 패망 구간의 첫 장이다.

한 문단: 큰 음녀가 붉은 짐승에 올라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마에 비밀·큰 바벨론·땅의 음녀들의 어머니가 기록돼 있다. 요한이 놀란다. 천사가 일곱 머리·열 뿔의 비밀을 해석한다. 그 끝에 선언이 온다 — 어린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기실 터이요. 천사가 계속 설명한다 — 물은 모든 민족, 열 뿔이 음녀를 배반해 불로 사를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광야(환상). pornē·therion kokkinos·mystērion·haima·Kyrios kyriōn·Basileus basileōn.
2 첫 느낌·분위기	6절 피에 취한 묘사. 짐승 해석의 복잡함. 14절 단 한 절의 전환. 16절 반전.
3 시작과 끝	시작: 심판 약속(1절). 끝: 여자는 큰 성(18절). 14절 이김 선언이 구조 전환.
4 등장인물·상황·사상	큰 음녀·짐승·어린양. 피에 취함(6절). 만주의 주·만왕의 왕 이김(14절). 하나님의 뜻(17절).
5 장면 컷	컷1 음녀 환상(1-6), 컷2 짐승 해석(7-13), 컷3 어린양 이김 선언(14), 컷4 반전 해석(15-18).
6 의문·발견·정보	일곱 머리 이중 해석. 여덟째 왕 역설. 큰 바벨론 정체. 미해결 6건.
7 동영상	음녀 환상→요한 놀람→짐승 해석→어린양 이김 선언→반전 해석→큰 성 정체.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어린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기시리라". 부제: "큰 음녀 바벨론의 장에서".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14절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기시리라" 앞에 섬.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음녀 묘사의 장에서 어린양의 이김이 선언되다:** 6절에서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가 묘사되고, 14절에서 어린양의 이김이 선언된다. 고난받는 교회들의 피가 흘리는 자리에서 어린양의 이김 선언이 나오는 이 구조가 REV spine의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다.
- 결 2 — 바벨론의 패망이 내부 붕괴다:** 16-17절에서 열 뿔이 음녀를 배반해 불로 사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17절). 바벨론은 외부의 정복이 아니라 내부 붕괴로 무너진다 — 이 구조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
- 결 3 — 14절의 칭호가 19장으로 이어진다:** 14절 Kyrios kyriōn kai Basileus basileōn이 19:16에서 백마 탄 이의 옷에도 기록된다. 17장의 이김 선언이 19장의 재림 장면으로 이어지는 언어적 연결이 관찰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17:14 ↔ 계 19:16** (만주의 주·만왕의 왕 칭호 반복), **계 17:1 ↔ 계 19:2** (음녀 심판 약속·성취), **계 17:16 ↔ 계 18:8** (불로 사름).
- 다른 권 — 단 7장(네 짐승·열 뿔 이미지, 배경 자료로만), 신 10:17(주 중의 주 언어 평행,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17장은 17~18장 바벨론 패망 구간의 서막. 18장에서 바벨론 패망의 상세 장면이 펼쳐진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심판을 보이겠다 — 그 약속 앞에 선다.
- **멈춤 1:** 6절 성도들의 피에 취한 여자 — 그 장면 앞에 멈춘다.
- **멈춤 2:** 14절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기실 터이요" — 이 선언 앞에 선다.
- **멈춤 3:**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 이 섭리 앞에 멈춘다.
- **끝:** 18절 큰 성 — 그 선언 앞에 선다.

F·자족성 점검

- [x] 큰 음녀 환상 묘사(1-6절)가 관찰됨
- [x] 짐승의 일곱 머리·열 뿔 해석(7-13절)이 관찰됨
- [x] 14절 어린양의 이김 선언이 관찰됨
- [x] 열 뿔의 반전(16절)과 하나님의 뜻(17절)이 관찰됨
- [x] 18절 여자는 큰 성 선언이 관찰됨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17장은 그 spine에서 큰 음녀 바벨론 패망 구간(17~18장)의 서막이다. REV phases(spec § 10)에서 "17~18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 국면의 첫 장이다. 이 장에서 주목할 것은, 바벨론 묘사와 짐승 구조 해석이 이 장의 분량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14절에서 단 한 절로 어린양의 이김이 선언된다는 것이다 —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가 바벨론 구도 한가운데에서 선포된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도들의 피에 취한 큰 음녀와 짐승의 복잡한 구조 해석(1-13절) → 어린양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이기심이 선언되고 바벨론이 내부 붕괴로 무너질 것이 예고되는 반전(14-18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17장은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어린양의 이김이 선언되는 운동이다. REV spine의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가 만주의 주·만왕의 왕의 언어로 선언된다. 고난받는 교회들 —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의 장면 바로 다음에 어린양의 이김이 온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큰 음녀 바벨론의 환상과 짐승의 구조 해석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의 의중 — 바벨론의 패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17절). 열 뿔이 음녀를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이다. 그리고 심정 — 6절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의 자리에서 14절 어린양의 이김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 심정이 이 장의 수면 아래에 비친다 — 죽임 당한 어린양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성도들의 피가 흘리는 자리에서 —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기실 터이요".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17장은 독자를 6절(피에 취한 음녀 앞)에도, 14절(만주의 주·만왕의 왕이신 어린양 앞)에도, 17절(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장면 앞)에도 세운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18장으로 이어진다 —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Babylōn hē megalē(큰 바벨론).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17장에서 예고된 바벨론 패망이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상인들의 애곡·"거기서 나오라"로 구체화된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17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고 동시에 일곱 왕인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9-10절에서 같은 일곱 머리가 일곱 산과 일곱 왕 두 가지로 해석됨.
- 이 이중 해석의 관계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여덟째 왕이면서 일곱 중에 속한다(11절)는 것은 무엇인가?

- 짐승이 여덟째이면서 일곱 중에 속하는 역설적 구조.
- 이 관계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큰 음녀 바벨론은 누구 또는 무엇인가?

- 5절 이마의 이름: 비밀·큰 바벨론·땅의 음녀들의 어머니.
- 18절: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 이것이 특정 도시·국가·체제 중 무엇인지 본문이 단정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6절 요한의 놀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랍더라"(6절).
- 22:8에서도 요한이 천사 앞에 놀란다. 이 놀람들의 의미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5. 14절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누구인가?

-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14절).
- 이들의 정체가 본문에서 더 이상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열 뿔이 음녀를 배반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17절)은 어떤 의미인가?

- 악한 편이 서로 배반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서술.
-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관계인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18장

REV-018 · 예언서(신약) · 헬라어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외친다 —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Epesen epesen Babylōn hē megalē, 18:2). 그 한가운데에서 또 다른 음성이 외친다 —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18:4).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의 애곡이 반복되고,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져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18:21).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애가(哀歌). 패망 선언과 삼중 애곡의 반복 구조.
- 무대: 하늘(천사 선언·나오라 부름·하늘의 기쁨)과 땅(삼중 애곡·맷돌 선언).
- 핵심 소품: 큰 권세 천사·금잔·상인 목록·맷돌·거문고·피리 소리(침묵)·신부·신랑 소리(침묵).
- 핵심 인물: 큰 권세 천사·하늘의 음성·왕들·상인들·선장들·성도들·순교자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땅의 애곡과 하늘의 기쁨의 대조.
-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mia hora) 세 번 반복.
- 4절 "거기서 나오라" 부름 — 이 장의 실존적 중심.
- 22-23절 침묵 목록의 시적 배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이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 시작(천사의 패망 선언) → 끝(순교자들의 피가 그 안에 있었다는 이유 선언).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큰 권세 천사·하늘 음성·왕들·상인들·선장들·성도들·사도들·선지자들·순교자들·하나님.
- 상황: 패망 선언(1-3절)→나오라 부름(4-8절)→삼중 애곡(9-19절)→하늘 기쁨(20절)→맷돌(21절)→침묵(22-23절)→순교자 피(24절).
- 사상 핵: 나오라 부름(4절). 갑절 응보(6절). 바벨론 자만(7절). 삼중 애곡 속 "한 시간" 반복. 순교자의 피(24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큰 권세 천사 —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 컷 2 (4-8절): 하늘 음성 — "거기서 나오라"·응보·하루 심판.

- 컷 3 (9-19절): 삼중 애곡 — 왕들·상인들·선장들·"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 컷 4 (20-23절): 하늘의 기쁨·맷돌 던짐·침묵 목록.
- 컷 5 (24절): 결론 — 순교자들의 피가 그 안에 있었다.

6 — (1) 원어 카드

- epesen epesen(ἔπεσεν ἔπεσεν) —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절. 강조적 반복.
- pharmakeia(φαρμακεία) — 마술·마법. 23절. "마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다".
- exelthate(ἐξέλθατε) — 나오라(명령형). 4절.
- emporos(ἔμπορος) — 상인. 11절·15절.
- psychas anthrōpōn(ψυχὰς ἀνθρώπων) — 사람의 영혼. 13절. 상인 목록 마지막.
- nautes(ναύτης) — 선원. 17절.
- mia hora(μῆ ὥρα) — 한 시간. 10절·17절·19절. 삼중 반복.
- lithos(λίθος) — 돌. 21절. "큰 맷돌 같은 돌".
- nymphē kai nymphios(νύμφη καὶ νυμφίος) — 신부와 신랑. 23절. 다시는 들리지 않을 목록.
- hagios(ἅγιος) — 성도들. 20절·24절. 심판의 수혜자.

6 — (2) 문학 구조

- 애가(哀歌) 형식 — 패망 선언이 반복됨. 구약 애가 문학 형식과 평행 가능(배경 자료로만).
- 삼중 애곡(왕들·상인들·선장들)의 동일 패턴 반복 — 화 있도다·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멀리서 바라봄.
- 2절 epesen epesen(이중 반복) ↔ 사 21:9 언어 평행(배경 자료로만).
- 20절(하늘의 기쁨)과 삼중 애곡(땅의 슬픔)의 대조 구조.
- 24절이 이 장 전체의 이유 선언으로 기능함.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2절) — 사 21:9("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와 같은 언어 패턴. 직접 인용 여부는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배경 자료로만).
- 애가 형식(9-19절) — 구약 에스겔 27장(두로 애가)과 형식 평행 가능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 "거기서 나오라"(4절) — 램 51:45("내 백성이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와 언어 평행 가능하나 확정 아님(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18:2 ↔ 계 14:8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선언 반복)
- 계 18:4 ↔ 계 12:6 (나오라·도망 부름 패턴)
- 계 18:20 ↔ 계 19:1-3 (하늘의 기쁨이 19장 할렐루야로 이어짐)
- 계 18:24 ↔ 계 6:10 (순교자들의 피 — 응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영광으로 땅을 비추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를 선언한다(1-2절). 모든 나라가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이유가 더해진다(3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와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고 부른다(4절).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갑절의 응보와 하루의 심판이 예고된다(5-8절). 그때 땅의 애곡이 시작된다 — 왕들이 멀리서 "화 있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를 외치고(9-10절), 상인들이 더 이상 살 자 없음을 애통해하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를 외치고(11-17절), 선장들과 선원들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를 외친다(17-19절). 그러나 하늘은 다르다 —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하라"(20절).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겠도다"를 선언한다(21절). 모든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신부와 신랑의 목소리도 없어진다(22-23절). 마지막으로 —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안에서 발견됐다(24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 초벌 부제: "삼중 애곡과 맷돌 선언 — 순교자들의 피가 그 안에 있었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epesen·pharmakeia·exelthate·emporos·psychas anthrōpōn·nautes·mia hora·lithos·nymphē·hagio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사 21:9 언어 평행, 겔 27장 두로 애가 형식 평행, 렘 51:45 나오라 언어 평행)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큰 바벨론을 특정 역사적 도시·체제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상인 목록을 현대 경제 구조와 단정 동일시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거기서 나오라"를 특정 사회적 분리 명령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애곡 형식과 구약 인용 관계를 확정 단정하지 않도록 → 배경 자료로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를 선언하고, 하늘에서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는 부름이 울리며, 왕들·상인들·선장들의 삼중 애곡과 하늘의 기쁨이 교차하고, 뱀돌이 바다에 던져져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며,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안에 있었다는 이유가 선언되는 REV 바벨론 패망 구간의 완결이다.

한 문단: "무너졌도다"가 선언되고 "나오라"가 부름받는다. 왕들·상인들·선장들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를 세 번 외치는 동안, 하늘은 기뻐하라고 부른다. 강한 천사가 뱀돌을 바다에 던지며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 모든 것의 이유 —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그 안에 있었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하늘(선언·부름)과 땅(애곡). epeesen·exelthate·mia hora·lithos·psychas anthrōpōn.
2 첫 느낌·분위기	땅의 애곡과 하늘의 기쁨 대조. mia hora 세 번 반복. 4절 나오라 부름.
3 시작과 끝	시작: 패망 선언(1절). 끝: 순교자들의 피(24절). 24절이 이유 선언.
4 등장인물·상황·사상	큰 권세 천사·하늘 음성·왕들·상인들·선장들·성도들. 나오라(4절). 갑절 응보(6절). 순교자의 피(24절).
5 장면 컷	컷1 패망 선언(1-3), 컷2 나오라(4-8), 컷3 삼중 애곡(9-19), 컷4 기쁨·뱀돌(20-23), 컷5 순교자 피(24).
6 의문·발견·정보	나오라 음성 주체. 삼중 집단 의미. 영혼 목록 배치. pharmakeia. 미해결 6건.
7 동영상	무너졌도다→나오라→삼중 애곡→하늘 기쁨→뱀돌 선언→침묵→순교자 피.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무너졌도다 —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부제: "삼중 애곡·뱀돌·순교자의 피".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4절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부름 앞에 섬.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패망 선언과 나오라 부름이 함께 온다:** 2절 "무너졌도다"와 4절 "나오라"가 연속한다. 패망 선언이 분리 명령을 동반한다. "나오라"는 패망 전 부름이다 — REV spine의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이 부름 형태로 나타난다.
- 결 2 — 땅의 애곡과 하늘의 기쁨이 대조된다:** 9-19절 삼중 애곡(왕들·상인들·선장들)과 20절 하늘의 기쁨이 같은 사건에 대한 두 반응이다. 두 진영이 같은 사건을 반대 방향으로 본다.
- 결 3 — 패망의 이유가 마지막에 선언된다:** 24절 순교자들의 피 — 이것이 패망의 이유다. 이 절이 장 전체의 이유 선언으로 기능한다. 성도들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벨론 패망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18:2 ↔ 계 14:8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반복), 계 18:20 ↔ 계 19:1-3 (하늘의 기쁨→할렐루야), 계 18:24 ↔ 계 6:10 (순교자들의 피 응답).
- 다른 권 — 사 21:9(무너졌도다 언어 패턴, 배경 자료로만), 겔 27장(두로 애가 형식, 배경 자료로만), 렘 51:45(나오라 언어 평행,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18장은 17~18장 바벨론 패망 구간의 완결. 19장에서 하늘의 할렐루야·어린양의 혼인 잔치·백마 탄 이의 재림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2절 "무너졌도다" 선언 — 그 선언 앞에 선다.
- 멈춤 1: 4절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 이 부름 앞에 멈춘다.
- 멈춤 2: 9-19절 삼중 애곡 — 왕들·상인들·선장들의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앞에 멈춘다.
- 멈춤 3: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하라" — 이 기쁨 앞에 선다.
- 끝: 24절 순교자들의 피 — 그 이유 선언 앞에 멈춘다.

F· 자족성 점검

- [x] 큰 권세 천사의 패망 선언(1-2절)이 관찰됨
- [x] "거기서 나오라" 부름(4절)이 관찰됨
- [x] 삼중 애곡(9-19절)이 관찰됨
- [x] 맺돌 선언(21절)이 관찰됨
- [x] 24절 순교자들의 피가 관찰됨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18장은 그 spine에서 큰 음녀 바벨론 패망 구간(17~18장)의 완결 — "악을 심판하심"의 구체적 완성이 선언되는 자리이다. REV phases(spec § 10)에서 "17~18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 국면의 완결이다. 18장 이후 19장에서 하늘의 할렐루야·어린양의 혼인 잔치·백마 탄 이의 재림으로 흐름이 전환된다 — 심판의 완성이 새 창조의 서막이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너졌도다"가 선언되고 "나오라"가 부름받는 자리(1-8절) → 왕들·상인들·선장들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를 외치는 삼중 애곡(9-19절) → 하늘이 기뻐하고 맺돌이 던져지며 순교자들의 피로 결혼이 맺히는 완결(20-24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로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백성 부름이 올리는 운동이다. REV spine에서 "악을 심판하심"이 이 장에서 완성되고, 19장의 할렐루야·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이어진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바벨론의 패망과 삼중 애곡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의 의중 — 바벨론 패망이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다(24절). 그리고 심정 — 4절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는

부름이 이 장에 비친다. 무너질 성에서 내 백성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 고난받는 교회들을 끝까지 이기게 하 시려는 그 심정이 이 부름에 담겨 있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 무너질 것에서 나와 이기는 자리로 가는 부름이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18장은 독자를 2절(무너졌도다 선언 앞)에도, 4절(나오라 부름 앞)에도, 20 절(하늘의 기쁨 앞)에도, 24절(순교자들의 피 선언 앞)에도 세운다. REV 흐름에서 이 불씨는 19장으로 이어 진다 — "할렐루야·어린양의 혼인 잔치·백마 탄 이".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Hallélouia(할렐루야).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18장의 패망 선언 이후, 19장에서 하늘이 "할렐루야"로 터지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며 백마 탄 이가 나타난다 — "충신과 진실한 이"."하나님의 말씀"(19:13).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18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의 음성은 누구인가?

- "하늘에서 나는 다른 음성"(4절)이지만 그 음성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삼중 애곡의 세 집단(왕들·상인들·선장들)은 왜 이 셋인가?

- 이 세 집단의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상인 목록의 마지막이 "사람의 영혼"인 것은 왜인가?

- 화물·상품 목록의 끝에 사람의 영혼(psychas anthrōpōn)이 배치됨.
- 이 배치의 의미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22-23절의 침묵 목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음악·빛·신부와 신랑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음.
- 이 침묵 목록이 애가 형식인지, 더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5. 24절이 이 장의 끝에 배치된 이유는 무엇인가?

-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이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24절)가 끝 절.
- 이것이 결론으로 배치된 이유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바벨론의 "마술"(pharmakeia, 23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너의 마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23절) — 마술(pharmakeia)이 미혹의 수단으로 언급됨.
- 이것이 어떤 구체적 행위를 가리키는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19장

REV-019 · 예언서(신약) · 헬라어

하늘에서 할렐루야(Hallēlouia)가 네 번 울리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선언되며, 하늘이 열리고 충신과 진실(Pistos kai Alēthinos)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의 이름은하나님의 말씀(ho Logos tou Theou)이요 옷과 넓적다리에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Basileus basileōn kai Kyrios kyriōn)라 기록되었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목시·환상·찬양·혼인·전쟁.
- 무대: 하늘(1~10절)·하늘이 열리며 지상으로 내려오는 운동(11~21절).
- 핵심 소품: 할렐루야(Hallēlouia)·세마포(byssinos)·혼인 잔치(gamos)·백마·피 뿌린 옷·예리한 검(rhomphaia)·왕들의 왕.
- 핵심 인물: 허다한 무리·24장로·네 생물·어린양의 신부·천사·백마 탄 이·하늘 군대·짐승·거짓 선지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할렐루야 사중창(1·3·4·6절) — 점층적 음향 스케일.
- 혼인 잔치 선언(7-10절) — 심판 완성 직후 신부의 준비.
- 하늘이 열림(11절) — 장면 전환의 경첩.
- 백마 탄 이의 이름 네 표현(11·12·13·16절) — 점층적 신원 선언.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살로 배불리더라"
- 시작(하늘 찬양) → 끝(지상 전쟁 결과). 11절 하늘이 열림이 중간 경첩.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허다한 무리·24장로·네 생물·어린양의 신부·천사(10·17절)·백마 탄 이·하늘 군대·짐승·거짓 선지자·땅의 왕들·공중 나는 새들.
- 상황: 할렐루야(1-6절)→혼인 잔치 선언(7-10절)→하늘이 열림·백마 탄 이의 오심(11-16절)→전쟁 결과(17-21절).
- 사상 핵: 전능하신 이의 통치 선언(6절). 세마포=성도들의 옳은 행실(8절).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이름(13절). 왕들의 왕·주들의 주(16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할렐루야 사중창 —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정점.
- 컷 2 (7-10절): 어린양의 혼인 잔치 선언 — 신부 단장·복 선언·경배 제지.
- 컷 3 (11-16절): 백마 탄 이의 등장 — 충신과 진실·피 뿌린 옷·하나님의 말씀·왕들의 왕.
- 컷 4 (17-21절): 전쟁 결과 —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잡힘·유황 못·새들이 배부름.

6 — (1) 원어 카드

- Hallēlouia(Ἀλληλουῖα) — 할렐루야. 1·3·4·6절. 히브리어 הללויה 음역. 신약 유일 등장.
- Pistos kai Alēthinos(Πιστὸς καὶ Ἀληθινός) — 충신과 진실. 11절. 신실함·참됨.
- ho Logos tou Theou(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 — 하나님의 말씀. 13절. 요한복음 1:1과 동일 어휘 구조.
- Basileus basileōn kai Kyrios kyriōn(Βασιλεὺς βασιλέων καὶ Κύριος κυρίων) —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 16절. 17:14에도 동일 표현.
- rhomphaia oxeia(ῥομφαία ὀξεῖα) — 예리한 검. 15절. 입에서 나옴. 1:16·2:12과 동일.
- byssinos lampron katharon(βύσσινον λαμπρὸν καθαρὸν) —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8절. 신부의 옷.
- gamos tou arniou(γάμος τοῦ ἀρνίου) — 어린양의 혼인 잔치. 7절.
- Pantokrator(Παντοκράτωρ) — 전능하신 이. 6절. REV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신적 칭호.

6 — (2) 문학 구조

- 할렐루야 사중창(1·3·4·6절) — 점층 구조: 큰 무리(1절)→연기 확인(3절)→장로와 생물(4절)→전체 무리(6절).
- 백마 탄 이 단락(11~16절) — 점층적 이름 공개: 충신과 진실(11절)→불가지 이름(12절)→하나님의 말씀(13절)→왕들의 왕(16절).
- 두 잔치 대조: 어린양의 혼인 잔치(9절) ↔ 하나님의 큰 잔치(17절).
- 세마포 공유: 신부(8절) ↔ 하늘 군대(14절) — 같은 옷.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할렐루야 — 시편 113~118편(할렐 시편) 핵심 어휘. 유월절 식사 때 불리던 찬양시들과 어휘 맥락 있음(배경 자료로만).
- "혼인" 이미지 — 이사야 62:4-5·호세아 2:19-20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 이미지 전통(배경 자료로만).
- "피 뿌린 옷"(13절) — 이사야 63:1-3의 에돔에서 오시는 분 이미지와 겹침(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19:6 ↔ 계 11:17 (전능하신 이가 왕 노릇 하심)
- 계 19:13 ↔ 요 1:1 (ho Logos)
- 계 19:16 ↔ 계 17:14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 동일 표현)
- 계 19:15 ↔ 계 1:16·2:12 (입에서 나오는 검)
- 계 19:8 ↔ 계 7:14 (흰 옷 세마포 이미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18장 바벨론 패망 직후,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할렐루야"를 외친다(1절) — 구원·영광·능력과 의로운 심판을 선언한다(1-2절). 음녀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며 두 번째 할렐루야(3절).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하고(4절), 보좌에서 찬양 명령이 나온다(5절). 많은 물 소리·큰 우렛소리 같은 네 번째 할렐루야가 터진다 —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6절).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선언(7절), 신부가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받는다(8절).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의 복이 선언되고(9절), 요한의 경배 시도가 제지된다(10절). 그때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탄 자가 보인다(11절) — 충신과 진실, 불꽃 같은 눈, 많은 관(12절), 피 뿌린 옷,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13절). 하늘 군대들이 뒤따르고(14절),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다스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15절).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라는 이름이 넓적다리에 기록돼 있다(16절). 태양 가운데 선 천사가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으고(17-18절), 짐승과 땅의 왕들이 모여 싸우려 하지만(19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유황 못에 던져지고(20절), 나머지는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고 새들이 배불른다(21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할렐루야 — 충신과 진실이 오시고 왕들의 왕이 백마를 타다"
- 초벌 부제: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선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다 — 19:11-16"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Hallēlouia·Pistos kai Alēthinos·ho Logos tou Theou·Basileus basileōn·Kyrios kyriōn·rhomphaia·byssinos·gamo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할렐 시편 배경·이사야 63장 이미지·혼인 전통)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기록)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백마 탄 이를 특정 재림 시대론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아무도 모르는 이름(12절)을 성급히 확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피 뿌린 옷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하늘 군대의 정체를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19장은 18장 바벨론 패망 직후 하늘에서 할렐루야 사중창이 울리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선언되며, 하늘이 열리고 충신과 진실(Pistos kai Alēthinos)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ho Logos tou Theou)이요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Basileus basileōn kai Kyrios kyriōn)라 불리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유황 못에 던져지는 REV 심판 완성 이후 새 국면의 진입이다.

한 문단: 바벨론 패망 이후 하늘에서 네 번의 할렐루야가 울린다 —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가 정점이다(6절).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세마포를 단장한다(7~8절). 하늘이 열리고 충신과 진실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11절).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라 불리신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유황 못에 던져진다(20절).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하늘→지상. Hallēlouia·byssinos·gamos·rhomphaia·Pistos kai Alēthinos·ho Logos tou Theou·Basileus basileōn.
2 첫 느낌·분위기	할렐루야 사중창. 혼인 잔치 선언. 하늘이 열림. 백마 탄 이의 이름 네 표현.
3 시작과 끝	시작: 할렐루야(1절). 끝: 새들이 배부름(21절). 11절 하늘이 열림이 경첩.
4 등장인물·상황·사상	허다한 무리·신부·백마 탄 이·하늘 군대·짐승. 통치 선언·세마포 해설·하나님의 말씀·왕들의 왕.
5 장면 컷	컷1 할렐루야(1-6), 컷2 혼인 잔치(7-10), 컷3 백마 탄 이(11-16), 컷4 전쟁 결과(17-21).
6 의문·발견·정보	Hallēlouia 신약 4번 유일. 피 뿌린 옷 미해결. 두 잔치 대조. ho Logos tou Theou. 미해결 6건.
7 동영상	할렐루야→혼인 선언→하늘이 열림→백마 탄 이의 오심→전쟁 결과.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할렐루야 — 충신과 진실이 오시다". 부제: "어린양의 혼인 잔치·왕들의 왕".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16절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 이름 앞에 섬.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할렐루야가 점층으로 확대되다:** 1절(큰 무리)→3절(연기 확인)→4절(장로·생물)→6절(전체, 우렛소리 같은). 네 번의 할렐루야가 점층하며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에서 정점을 이룬다.
- 결 2 — 세마포가 신부와 군대를 연결하다:** 신부(8절 세마포="성도들의 옳은 행실")와 하늘 군대(14절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같은 옷을 입는다. 이 공유가 두 집단의 관계를 암시하지만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3. **결 3 — 이름이 점층으로 공개되다:** 충신과 진실(11절)→불가지 이름(12절)→하나님의 말씀(13절)→왕들의 왕(16절). 오실수록 이름이 더 선명해지는 구조가 이 단락의 문학적 구성이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19:6 ↔ 계 11:17 (전능하신 이의 통치), 계 19:13 ↔ 요 1:1 (ho Logos), 계 19:16 ↔ 계 17:14 (왕들의 왕 동일 표현), 계 19:15 ↔ 계 1:16 (검).
- 다른 권 — 사 63:1-3(피 뿌린 옷 이미지, 배경 자료로만), 시 113~118편(할렐루야, 배경 자료로만), 사 62:4-5(혼인 이미지,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19장은 15~18장 심판 국면 완성 이후 전환점. 20장의 천년·흰 보좌 심판을 앞두고 있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할렐루야" — 그 첫 소리 앞에 선다.
- 멈춤 1: 6절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 그 선언 앞에 멈춘다.
- 멈춤 2: 8절 세마포 해설 —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해석 앞에 멈춘다.
- 멈춤 3: 11절 "하늘이 열리고" — 그 장면 전환 앞에 선다.
- 끝: 16절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 — 그 이름 앞에 멈춘다.

F·자족성 점검

- [x] 할렐루야 사중창(1·3·4·6절)이 관찰됨
- [x] 어린양의 혼인 잔치 선언(7~9절)이 관찰됨
- [x] 백마 탄 이의 이름 네 표현(11·12·13·16절)이 관찰됨
- [x] 세마포 공유(8절·14절)가 관찰됨
- [x] 전쟁 결과(19~21절)가 관찰됨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19장은 그 spine에서 심판 완성(15~18장) 이후 전환점 — 하늘이 할렐루야로 응답하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선언되며 충신과 진실이 오시는 자리이다. REV phases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재림" 국면이다. spine의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가 이 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시화된 다 —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으로. 이후 20장(천년·흰 보좌)을 지나 21~22장의 새 하늘 새 땅 destination으로 나아가는 흐름의 진입점이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심판 완성(18장 바벨론 패망)에 대한 하늘의 찬양 응답(할렐루야 사중창, 1-6절) → 어린양의 혼인 잔치 선언과 신부의 준비(7-10절) → 하늘이 열리고 충신과 진실이 오시는 재림(11-16절) →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17-2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19장은 악의 심판 완성에 대한 하늘의 찬양 이후 신랑이 오시는 운동이다. REV spine에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destination(21:5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을 향한 주인공의 오심이 이 장에서 선포된다. 20장(천년·흰 보좌)을 거쳐 21~22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전환점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할렐루야 찬양·혼인 잔치 선언·백마 탄 이의 등장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의 의중 — 악을 끝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되 그 새 시작을 "혼인"의 언어로 표현하신다는 것이다**. 심판은 수단이고 혼인은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 것은 신부와의 혼인을 위해서다. 심정 — 신부를 맞는 갈망.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7절) 뒤에 신랑이 기다리는 심정이 있다. 충신과 진실(Pistos kai Alēthinos)이라는 이름 자체가 —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고 진실한 분으로 오신다는 것 — 그 신랑의 성품을 담고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19:9) — 지금 고난받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초대이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19장은 독자를 6절(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선언 앞)에도, 7절(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장면 앞)에도, 11절(하늘이 열리고 백마가 보이는 순간 앞)에도 세운다. REV spine에서 이 불씨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부르는 초대이다 — 충신과 진실이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 그 오심을 향해 세마포를 단장하라는 부름. 19장 이후 20장(천년·흰 보좌)을 거쳐 21~22장 destination으로 나아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thronos leukos(흰 보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향 못에 던져졌지만(20절) 용(사탄)은 아직 결박되지 않았다 — 20장에서 용의 결박·천년·흰 보좌 심판이 이어진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19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피 뿌린 옷"(19:13)은 누구의 피인가?

- 전투 이전에 이미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심.
- 자신의 피인지 심판 대상의 피인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이사야 63:1-3의 이미지와 겹치지만 본문이 인용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아무도 모르는 이름"(19:12)은 왜 언급되는가?

- 알 수 없는 이름을 언급하는 목적이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11절·13절·16절의 이름들과의 관계가 불명확함.
- 미해결로 보존.

Q3. "하나님의 말씀"(19:13)과 요한복음 1:1의 관계는 무엇인가?

- ho Logos tou Theou — 요한복음 1:1의 ho Logos와 동일 어휘 구조.
- 계시록 저자가 의도적으로 연결했는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하늘 군대(19:14)의 정체는 무엇인가?

- 천사인지 성도인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신부와 같은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것만 기록됨.
- 미해결로 보존.

Q5. 두 잔치(어린양의 혼인 잔치 9절, 하나님의 큰 잔치 17절)는 어떤 관계인가?

- 같은 시점에 두 잔치가 언급됨 — 청함 받은 자들의 잔치와 새들의 잔치.
- 두 잔치의 관계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산 채로"(19:20) 유황 못에 던져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 채로" 유황 불타는 못에 던져짐.
- "산 채로"라는 표현의 의미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20장

REV-020 · 예언서(신약) · 헬라어

천사가 용(drakōn)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고, 이기는 자들이 천년(chilia etē) 동안 다스린 뒤, 용이 잠깐 풀려났다가 불못에 던져진다. 크고 흰 보좌(thronos leukos megas)에서 생명책(biblos zōēs)을 따른 최후 심판이 열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 이것이 둘째 사망(deuteros thanatos)이다.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심판.
- 무대: 무저갱(abyssos)·보좌들이 있는 장소·지상(곡과 마곡)·흰 보좌 앞.
- 핵심 소품: 쇠사슬·열쇠·무저갱·천년(chilia etē)·보좌들·생명책(biblos zōēs)·흰 보좌·불못(limne tou pyros)·둘째 사망(deuteros thanatos).
- 핵심 인물: 천사·용(사탄)·보좌에 앉은 자들·목 베인 혼들·곡과 마곡·흰 보좌에 앉으신 이·죽은 자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결박·천년·잠깐 풀림·최후라는 순서 구조.
- 천년이 여섯 번 반복됨(2·3·4·5·6·7절).
- 흰 보좌 장면의 무게감 — 땅과 하늘도 피하여 사라짐.
- 생명책 등재 여부가 최후 기준(15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 시작(결박) → 끝(생명책 기준). 11절 흰 보좌가 최종 심판의 중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천사·용·보좌에 앉은 자들·목 베인 혼들·곡과 마곡·흰 보좌에 앉으신 이·죽은 자들·바다·사망·음부.
- 상황: 결박(1-3절)→천년·첫째 부활(4-6절)→잠깐 풀림·곡과 마곡·용의 최후(7-10절)→흰 보좌·책들·생명책·둘째 사망(11-15절).
- 사상 핵: 미혹 차단(3절). 첫째 부활의 복(6절). 행위대로 심판(12절). 둘째 사망(14절). 생명책 기준(15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용의 결박 — 쇠사슬·무저갱·인봉·미혹 차단.

- 컷 2 (4-6절): 천년·첫째 부활 — 보좌들·목 베인 혼들·천년 통치·첫째 부활·복 선언.
- 컷 3 (7-10절): 잠깐 풀림과 최후 — 곡과 마곡·성도의 진 포위·하늘 불·용이 유황 못에 던져짐.
- 컷 4 (11-15절): 흰 보좌 최후 심판 — 크고 흰 보좌·책들·생명책·행위대로·바다·사망·음부·둘째 사망.

6 — (1) 원어 카드

- drakōn(δράκων) — 용. 2절. 이 장에서 용의 네 명칭 중 하나.
- ophis ho archaios(ὁ ὄφις ὁ ἀρχαῖος) — 옛 뱀. 2절. 창세기 3장 어휘와 연결.
- abyssos(ἄβυσσος) — 무저갱·깊은 구덩이. 3절.
- chilia etē(χίλια ἔτη) — 천년. 2·3·4·5·6·7절. 여섯 번 반복.
- prōtē anastasis(πρώτη ἀνάστασις) — 첫째 부활. 5·6절.
- Gog kai Magog(Γὼγ καὶ Μαγὼγ) — 곡과 마곡. 8절. 에스겔 38~39장 어휘 음역.
- thronos leukos megas(θρόνος λευκὸς μέγας) — 크고 흰 보좌. 11절.
- biblos zōēs(βίβλος ζωῆς) — 생명책. 12·15절.
- deuterios thanatos(δεύτερος θάνατος) — 둘째 사망. 14절. 2:11·20:6에도 등장.
- limne tou pyros(λίμνη τοῦ πυρός) — 불못·유황 불못. 14·15절.

6 — (2) 문학 구조

- 결박(1-3절) ↔ 풀림(7절) 대응 구조 — 같은 용의 묶임과 풀림.
- 천년이 여섯 번 반복 — 이 장의 구조적 표지.
- 첫째 부활(5~6절) ↔ 둘째 사망(14절) 대조 — 두 종말의 두 이름.
- 두 책(책들+생명책, 12절) — 행위 기록과 생명 등재의 두 기준.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곡과 마곡 — 에스겔 38~39장에 등장하는 이름들. 본문이 직접 인용하지 않음(배경 자료로만).
- 둘째 사망(deuterios thanatos) — 유대교 문헌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나 본문의 정의("불못")가 우선함.
- 생명책 — 시편 69:28·다니엘 12:1에서 등장하는 구약 배경이 있음(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20:2 ↔ 창 3:1 (옛 뱀 어휘)
- 계 20:8 ↔ 겔 38~39장 (곡과 마곡)
- 계 20:10 ↔ 계 19:20 (짐승·거짓 선지자 먼저 던져짐→용이 동일 장소로)
- 계 20:12 ↔ 단 12:1 (생명책)
- 계 20:14 ↔ 계 2:11·20:6 (둘째 사망 반복 등장)
- 계 20:11 ↔ 계 21:1 (땅과 하늘 사라짐 → 새 하늘 새 땅)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내려와 용을 잡아 결박한다(1~2절) —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인봉한다(3절). 보좌들이 보이고 심판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는다(4절). 예수의 증언으로 목 베인 혼들이 살아 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 노릇 한다(4~5절). 이것이 첫째 부활이요,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한다(6절). 천년이 차면 사탄이 잠깐 놓인다(7절). 사방 나라들을 미혹하여 곡과 마곡을 모으고 성도의 진을 에워싼다(8~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하고 용이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9~10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인다(11절) — 땅과 하늘이 피하여 사라진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선다(12절). 책들이 펼쳐지고 생명책도 펼쳐진다.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바다·사망·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13절) 모두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14절) —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불못에 던져진다(15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흰 보좌 앞에 서다 — 용의 결박·천년·생명책·둘째 사망"
- 초벌 부제: "크고 작은 자가 모두 행위대로 —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다 — 20:14"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drakōn·abyssos·chilia etē·prōtē anastasis·Gog kai Magog·thronos leukos megas·biblos zōēs·deuteros thanatos·limne tou pyros·ophis ho archaio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에스겔 38~39장 배경·생명책 구약 배경·둘째 사망 유대 문헌)
- [x] 이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기록)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천년을 특정 역사적 기간·교회론적 도식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곡과 마곡을 특정 민족·국가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관계를 성급히 도식화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흰 보좌 심판을 특정 판단 기준 체계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20장은 19장 전쟁 결과 이후 천사가 용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목 베인 혼들이 첫째 부활로 천년 동안 통치하며, 천년이 차면 용이 잠깐 풀려 곡과 마곡을 모으지만 하늘 불로 소멸되어 유황 못에 던져지고, 크고 흰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서서 생명책과 행위대로 심판받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장이다.

한 문단: 용이 결박되어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한다(1~3절). 목 베인 혼들이 살아나 천년 통치에 참여하고(4~5절), 이것이 첫째 부활이요 복이 있는 자들이다(6절). 천년 후 용이 잠깐 풀려 곡과 마곡을 모으지만(7~9절) 하늘 불로 소멸되고 유황 못에 던져진다(10절). 크고 흰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서고(11~12절), 바다·사망·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13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14절) — 둘째 사망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불못에 던져진다(15절).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저갱·보좌들·지상·흰 보좌. drakōn·abyssos·chilia etē·biblos zōēs·deuteros thanatos.
2 첫 느낌·분위기	결박·천년·잠깐 풀림·최후 순서. 천년 여섯 번. 흰 보좌 무게감.
3 시작과 끝	시작: 용의 결박(1절). 끝: 생명책 기준(15절). 11절 흰 보좌가 중심.
4 등장인물·상황·사상	천사·용·목 베인 혼들·흰 보좌에 앉으신 이·죽은 자들. 미혹 차단·행위대로·생명책·둘째 사망.
5 장면 컷	컷1 결박(1-3), 컷2 천년·첫째 부활(4-6), 컷3 잠깐 풀림·최후(7-10), 컷4 흰 보좌·생명책·둘째 사망(11-15).
6 의문·발견·정보	용의 네 이름 수렴. 천년 이해결. 보좌에 앉은 자들 이해결. 생명책 구약 배경. 이해결 6건.
7 동영상	결박→천년·첫째 부활→잠깐 풀림·최후→흰 보좌 심판·생명책·둘째 사망.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흰 보좌 앞에 서다". 부제: "결박·천년·생명책·둘째 사망".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12절 "행위대로 심판" 선언 앞에 섬.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대조를 이룬다:** 첫째 부활(5~6절)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한다(6절). 이 대조가 이 장의 두 종말을 구성한다 — 첫째 부활의 복 ↔ 둘째 사망의 불못.
- 결 2 — 사망 자체가 심판받다:** 14절에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존재가 심판받는 것을 넘어 사망이라는 상태 자체가 심판받는 표현이 이 장에 있다.
- 결 3 — 결박(1~3절)과 풀림(7절)이 대응한다:** 천년 동안의 결박과 천년 이후의 잠깐 풀림이 구조적 대응을 이룬다. 이 대응이 이 장의 시간 구조를 만든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20:10 ↔ 계 19:20 (짐승·거짓 선지자→용, 같은 불못), 계 20:11 ↔ 계 21:1 (하늘·땅 사라짐→새 하늘 새 땅), 계 20:6·14 ↔ 계 2:11 (둘째 사망 반복).
- 다른 권 — 겔 38~39장(곡과 마곡, 배경 자료로만), 단 12:1(생명책,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20장은 19장 전쟁 결과 이후 최후 심판 국면. 21~22장 새 하늘 새 땅 destination으로 가는 마지막 심판이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결박 장면 — 그 광경 앞에 선다.
- 멈춤 1: 6절 첫째 부활의 복 선언 —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한다" 앞에 멈춘다.
- 멈춤 2: 11절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더라" — 그 장면 앞에 멈춘다.
- 멈춤 3: 12절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서" — 그 자리 앞에 선다.
- 끝: 15절 생명책 기준 — 그 선언 앞에 멈춘다.

F · 자족성 점검

- [x] 용의 결박(1~3절)이 관찰됨
- [x] 천년과 첫째 부활(4~6절)이 관찰됨
- [x] 곡과 마곡·용의 최후(7~10절)가 관찰됨
- [x] 흰 보좌 심판·생명책(11~15절)이 관찰됨
- [x] 둘째 사망(14절)이 관찰됨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20장은 그 spine에서 최후 심판 국면 — 용(사탄)·사망·음부가 최종 처리되고 생명책 기준 심판이 완결되는 자리이다. REV phases에서 "천년·최후 심판(흰 보좌)" 국면이다. 19장(어린양의 혼인 잔치·재림)에서 시작된 새 국면이 20장에서 최후 심판으로 완결되고, 21~22장의 새 하늘 새 땅 destination("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1:5,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20)으로 바로 이어진다. 20:11의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더라"는 21:1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와 연결되는 전환의 징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용의 결박(1-3절) → 천년·첫째 부활(4-6절) → 용의 잠깐 풀림·최후(7-10절) → 크고 흰 보좌에서 사망·음부·생명책 기록 안 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11-15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20장은 악의 근원(용)과 악의 결과(사망·음부)가 모두 심판받고 최후 심판이 완결되는 운동이다. REV spine에서 "악을 심판하심"의 최종 완결이다. 이 완결 이후 21~22장 destination — 새 하늘 새 땅·새 예루살렘·생명수 강·모든 눈물 씻기심·만물의 새롭게 됨이 이어진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결박·천년·흰 보좌 심판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의 의중 — 악을 끝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서 사망 자체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지니"는 단순한 처벌 선언이 아니라 사망의 폐기 선언이다. 심정 — 6절 첫째 부활의 복 선언("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비친다. 목 베인 혼들이 왕 노릇 한다는 것 — 이기는 자로 살아간 자들의 지위가 여기서 확인된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20:6) —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확언이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확언이다. 20장은 독자를 6절(첫째 부활의 복 선언 앞)에도, 12절(모두가 보좌 앞에 서는 장면 앞)에도 세운다. REV spine에서 이 불씨는 고난받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근거 — "끝까지 이기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권세를 갖지 못한다는 것. 20장 이후 21~22장 destination으로 이어진다 — 모든 눈물 씻기심·만물의 새롭게 됨·생명수 강·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kainos(새것·새로운).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20:11에서 처음 하늘과 땅이 피하여 사라지는 것이 21:1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된다 — 21~22장은 REV destination이자 성경 전체 구속사의 종착이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20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천년"(20:2~7)은 문자적 기간인가 상징적 기간인가?

- 여섯 번 반복되는 chilia etē(2·3·4·5·6·7절).
- 본문이 이 기간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보좌에 앉은 자들(20:4)은 누구인가?

- "보좌들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 그 정체가 명시되지 않음.
- 목 베인 혼들과 동일 집단인지 다른 집단인지 불명확.
- 미해결로 보존.

Q3. "그 나머지 죽은 자들"(20:5)은 누구인가?

-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만 기록됨.
- 이들의 정체와 운명이 15절 이전에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곡과 마곡(20:8)은 에스겔 38~39장과 어떤 관계인가?

- 에스겔의 곡과 마곡은 특정 민족·지역 이름이나, 20:8에서는 "사방 나라들"의 상징적 대표로 사용됨.
- 두 용례의 관계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5.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더라"(20:11)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21:1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와 연결될 수 있으나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행위대로"(20:12~13) 심판과 "생명책"(20:12·15) 기준은 어떤 관계인가?

- 두 기준(행위 기록+생명책)이 동시에 언급됨.
- 두 기준의 관계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21장

REV-021 · 예언서(신약) · 헬라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hē polis hē hagia Ierousalēm kainē)이 신부같이 단장하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애통·곡·아픔이 없다(21:4).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선포하신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21:5).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새 창조.
- 무대: 1~8절 — 새 하늘·새 땅·새 예루살렘의 도착과 선언. 9~27절 — 크고 높은 산 위에서 본 새 예루살렘의 세밀한 측량.
- 핵심 소품: 새 하늘(ouranos kainos)·새 땅(gē kainē)·새 예루살렘(Ierousalēm kainē)·신부(nymphē)·하나님의 장막(skēnē)·눈물(dakryon)·생명수 샘(pēgē tou hydatos tēs zōēs)·금 갈대·정금(chrysos katharos)·수정 같은 유리(hyalos)·열두 보석·진주 문·어린양의 생명책.
- 핵심 인물: 보좌에 앉으신 이·하늘의 큰 음성·일곱 대접 천사·어린양·이기는 자·두려워하는 자·만국·땅의 왕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심판 공기에서 새 창조 공기로의 전환 — 열리는 느낌.
- "새"(kainos)가 이 장을 관통함 — 새 하늘·새 땅·새 예루살렘·만물을 새롭게.
- 4절 "모든 눈물을 씻기시매"의 감정적 무게.
- 5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직접 발화 —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 19~21절 성의 소재 — 감각적으로 세밀한 정금·진주·보석의 질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 시작(새 창조 선포, 1절) → 중심(만물을 새롭게, 5절) → 끝(생명책 기준, 27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보좌에 앉으신 이·하늘의 큰 음성·일곱 대접 천사·어린양·이기는 자·두려워하는 자·만국·땅의 왕들.

- 상황: 처음 것들의 소거(1절)→새 예루살렘 하강(2절)→하나님의 동거 선언(3절)→눈물 씻기심(4절)→만물 새롭게(5절)→이루었도다(6절)→성의 측량(15-17절)→성전 없음·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22절)→생명책(27절).
- 사상 핵: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심(3절). 만물을 새롭게 하심(5절).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심(22절).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의 대조(7~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새 창조 선언 — 새 하늘·새 땅·새 예루살렘 하강·하나님의 동거·눈물 씻기심·만물 새롭게·알파와 오메가·생명수 샘·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
- 컷 2 (9-14절): 새 예루살렘 외관 — 크고 높은 산·하나님의 영광·벽옥·열두 문·열두 천사·열두 지파·열두 사도 이름 기초석.
- 컷 3 (15-27절): 성의 측량과 특징 — 금 갈대·12,000스다디온·144규빗·정금·보석·진주 문·유리 같은 정금 길·성전 없음·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영광의 빛·만국·생명책.

6 — (1) 원어 카드

- ouranos kainos(οὐρανὸς καινός) — 새 하늘. 1절.
- gē kainē(γῆ καινή) — 새 땅. 1절.
- Ierousalēm kainē(Ἱερουσαλὴμ καινή) — 새 예루살렘. 2절.
- nymphē(νύμφη) — 신부. 2절.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이미지.
- skēnē tou theou(σκηνὴ τοῦ θεοῦ) — 하나님의 장막. 3절.
- dakryon(δάκρυον) — 눈물. 4절.
- kainos(καινός) — 새로운. 1절·2절·5절. 이 장을 관통하는 핵심어.
- alpha, ōmega(Ἀλφα, Ὠ) — 알파와 오메가. 6절. 그리스 알파벳 첫 자와 끝 자.
- pēgē tou hydatos tēs zōēs(πηγὴ τοῦ ὕδατος τῆς ζωῆς) — 생명수의 샘. 6절.
- naos(ναός) — 성전(내소).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 chrysos katharos(χρυσός καθαρός) — 맑은 정금. 18·21절.
- hyalos katharos(ὑαλός καθαρός) — 맑은 유리. 18절.
- lithoi timioi(λίθοι τίμιοι) — 보배로운 돌·보석. 19절. 기초석 열두 가지.
- pylōnes(πυλῶνες) — 문들·성문. 12절. 열두 문.
- doxa tou theou(δόξα τοῦ θεοῦ) — 하나님의 영광. 11·23절.

6 — (2) 문학 구조

- 처음 것들의 소거(1절) ↔ 새 것들의 등장(1~2절) 대응 구조.
- kainos(새로운)가 1·2·5절에서 세 번 반복 — 이 장의 주제어.
- 이기는 자(7절) ↔ 두려워하는 자·민지 않는 자(8절) 대조.
- 성전 없음(22절) ↔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심(22절) — 성전 개념의 내면화.
- 해·달 없음(23절) ↔ 하나님의 영광이 빛·어린양이 등불(23절) 대응.
- 열두의 반복 — 열두 문·열두 지파·열두 사도·열두 기초석·열두 보석·12,000·144.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3절 skēnē — 광야 시대의 성막 어휘와 동일 계열. 구약 언약 언어와의 연결 가능성(배경 자료로만).
- 19~20절 열두 보석 —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 흉패 보석과의 비교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됨(배경 자료로만,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음).
- 12,000스다디온 — 약 2,400km 규모. 당시 로마 세계 지중해권 동서 너비에 준하는 수치(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21:1 ↔ 계 20:11 (땅과 하늘 사라짐 → 새 하늘 새 땅)
- 계 21:3 ↔ 레 26:12·겔 37:27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언약, 배경 자료로만)
- 계 21:4 ↔ 사 25:8 (눈물을 닦으심, 배경 자료로만)
- 계 21:5 ↔ 사 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배경 자료로만)
- 계 21:6 ↔ 계 1:8 (알파와 오메가 반복)
- 계 21:22 ↔ 계 22:3 (성전·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이어짐)
- 계 21:27 ↔ 계 20:15 (생명책 기준 반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1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같이 단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2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다 —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3절).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애통·곡·아픔이 없다 —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4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5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6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7절). 두려워하는 자와 불신자는 불과 유황 못 — 둘째 사망이다(8절). 천사가 높은 산 위로 데려가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9~10절). 하나님의 영광이 벽옥·수정 같이 빛난다(11절). 열두 문과 열두 천사, 열두 지파 이름(12절). 열두 사도 이름의 열두 기초석(14절). 금 갈대로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의 정방형(15~16절), 성곽은 144규빗(17절). 성은 정금·수정, 기초석은 열두 보석, 문은 열두 진주, 길은 순금이다(18~21절). 성 안에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시다(22절). 해나 달이 쓸 데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양이 등불이시다(23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24절). 낮에 문이 닫히지 않고 밤이 없다(25절).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27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 새 하늘·새 땅·새 예루살렘"
- 초벌 부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새 창조의 문이 열리다 — 21:3~5"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5개 기록: ouranos kainos·gē kainē·Ierousalēm kainē·nymphē·skēnē tou theou·dakryon·kainos·alpha·ōmega·pēgē tou hydatos tēs zōēs·naos·chrysos katharos·hyalos katharos·lithoi timioi·pylōne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skēnē 광야 장막 어휘·12,000스다디온 규모·열두 보석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기록)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3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새 예루살렘을 지상 교회·특정 공동체·천국의 위치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12,000스다디온·144규빗을 문자적 건축 수치나 순수 상징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바다의 소거를 물리적 해석이나 상징 해석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 만국·땅의 왕들의 정체를 시대적·역사적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뭇.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21장은 20장 최후 심판 이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같이 단장하고 내려오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어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5절)를 선언하시며, 정금·보석·진주로 측량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이 없이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 되시고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새 창조의 장이다.

한 문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1절). 새 예루살렘이 신부같이 단장하고 내려온다(2절).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언이 들린다(3절). 모든 눈물이 씻기고 사망·애통·곡·아픔이 없어진다(4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를 선언하시고 "이루었도다"를 선언하신다(5~6절).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가 대조된다(7~8절). 천사가 새 예루살렘의 세밀한 모습을 보여준다(9~21절) — 열두 문·열두 기초석·정금·보석·진주. 성 안에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시다(22절). 해나 달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양이 빛이 되신다(23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24~27절).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새 하늘·새 땅·새 예루살렘·신부·하나님의 장막·눈물·생명수 샘·정금·보석·진주·생명책. 두 무대 — 선언(1-8절)·측량(9-27절).
2 첫 느낌·분위기	심판 공기→새 창조 공기로의 전환. kainos가 1·2·5절에서 반복. 4절 눈물 씻기심의 감정적 무게.
3 시작과 끝	시작: 새 창조 선포(1절). 끝: 생명책 기준(27절). 중심: 만물을 새롭게(5절).
4 등장인물·상황·사상	보좌에 앉으신 이·어린양·이기는 자·두려워하는 자·만국·생명책. 핵심 사상: 하나님의 동거(3절)·만물 새롭게(5절)·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22절).
5 장면 컷	컷1 새 창조 선언(1-8), 컷2 새 예루살렘 외관(9-14), 컷3 성 측량·성전 없음·영광의 빛·생명책(15-27).
6 의문·발견·정보	kainos의 뉘앙스. 바다 소거의 의미. 두 번의 새 예루살렘 등장. 열두 수의 반복. 성전 없음의 전환. 미해결 6건.
7 동영상	새 창조→하나님의 동거·눈물 씻기심→만물 새롭게·이루었도다→새 예루살렘 측량→성전 없음·영광의 빛→생명책.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부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새 창조의 문이 열리다".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앞에 섬.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신다:** 3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ho theos autos met autōn estai) — 장막·성전·중보 없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거하신다는 이 선언이 22절("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심")로 이어진다.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방식이 바뀐다.
- 결 2 —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5절)가 이 장의 중심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직접 발화. 이 선언이 1절 "새 하늘 새 땅"·2절 "새 예루살렘"·4절 "눈물 씻기심"을 의미화한다. 그리고 22장으로 이어지는 생명수 강·생명나무·다시 저주가 없음의 기초가 된다.
- 결 3 — 생명책이 처음(20:15)과 끝(21:27) 양쪽에 있다:** 20:15와 21:27이 모두 어린양의 생명책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후 심판(20:15)과 새 창조 입성(21:27)이 같은 기준으로 연결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21:1 ↔ 계 20:11 (땅과 하늘 사라짐→새 하늘 새 땅), 계 21:6 ↔ 계 1:8 (알파와 오메가 반복), 계 21:27 ↔ 계 20:15 (생명책 기준 반복), 계 21:22 ↔ 계 22:3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성전 이어짐).
- 다른 권 — 사 25:8(눈물 씻기심, 배경 자료로만), 겔 37:27(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 배경 자료로만), 사 43:19(새 일을 행하리라,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21장은 19~20장(재림·천년·최후 심판) 이후 REV destination("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1:5)이 실제로 도달되는 자리. 22장의 생명수 강·생명나무·다시 저주가 없음·"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뒤를 잇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 끝이 아니라 전환의 자리 앞에 선다.
- 멈춤 1: 3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 "친히"라는 단어 앞에 멈춘다.
- 멈춤 2: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 그 씻기시는 장면 앞에 멈춘다.
- 멈춤 3: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 그 선언 앞에 멈춘다.
- 끝: 27절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 그 앞에 선다.

F· 자족성 점검

- [x] 새 하늘과 새 땅(1절)이 관찰됨
- [x] 새 예루살렘의 하강과 신부 이미지(2절)가 관찰됨
- [x] 하나님의 동거 선언(3절)이 관찰됨
- [x] 모든 눈물 씻기심·처음 것들 지나감(4절)이 관찰됨
- [x]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5절)가 관찰됨
- [x] 성의 측량·열두 보석·진주 문·정금 길(15~21절)이 관찰됨
- [x] 성전 없음·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22절)이 관찰됨
- [x] 생명책 기준(27절)이 관찰됨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21장은 그 spine의 종착 — 새 하늘 새 땅이 실제로 도달된 자리이다. REV flow의 destination인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21:5)가 이 장에서 직접 선언된다.

더 넓게 보면, 21장은 성경 전체 구속사(창조→타락→구속→완성)의 종착지이다. 창세기 1~2장이 창조와 에덴으로 시작했고, 21~22장은 그 시작과 수미상관을 이룬다 — 창세기의 에덴(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던 자리)이 21장에서 새 예루살렘(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자리)으로 완성된다. 창세기 3장에서 사라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거가,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3절)와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3절)로 회복된다. 이 장은 창세기의 에덴·생명나무·인간과의 동거를 끝에서 완성하는 자리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소거(1절) → 새 하늘·새 땅·새 예루살렘의 등장(1~2절) → 하나님의 친히 동거·눈물 씻기심(3~4절) →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선언(5절) → 정금·보석·진주로 세밀하게 측량된 새 예루살렘·성전 없음·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영광의 빛·생명책(9~27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21장은 처음 것들의 끝에서 하나님의 친히 동거하심이라는 새 창조의 완성으로 미는 운동이다. REV spine에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목적지에 실제로 도달하는 국면이다. 22장에서는 그 완성 안의 구체적 내용(생명수 강·생명나무·다시 저주가 없음·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이 전개된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새 하늘 새 땅의 등장·새 예루살렘의 측량·성의 소재들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의 의중 — 만물을 새롭게 하시되 친히 함께 거하심으로써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장소나 물질의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다.

심정 —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비친다. REV flow heart — "모든 눈물을 친히 씻기시는 긍휼"과 "신부를 맞으시는 신랑의 갈망"(2절·21:9). 신부가 단장하고 내려오는 이미지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눈물을 씻기시는 이미지가 이 장의 심정적 핵이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본문이 스스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21:5) —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는 분의 초대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선언이다. 21장은 독자를 4절(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장면 앞)에도, 5절("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앞)에도, 27절(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문 앞)에도 세운다. REV spine에서 이 불씨는 고난받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도착지의 실재 — 새 창조는 추상이 아니라 측량되고 묘사된 구체적 자리라는 것. 22장에서는 그 안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응답이 이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zōē(생명).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21장에서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심"(22절)이 22장에서 "어린양의 보좌"(22:3)와 "생명수의 강"(22:1)·"생명나무"(22:2)로 펼쳐진다 — 성경 전체 구속사의 종착은 22장 마지막 초대("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22:17)와 응답("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20)으로 완성된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21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21:1)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물리적 바다의 소거인가, 혼돈·분리의 상징으로서의 바다인가.
-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새 예루살렘이 2절과 10절에서 두 번 등장하는 이유는?

- 2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와 10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 동일 사건의 두 조망인가, 다른 시점인가.
- 미해결로 보존.

Q3. 6절 "이루었도다"(gegonan, 완료형)는 무엇이 완료됐다는 뜻인가?

- 만물을 새롭게 하심이 이미 완료됐다는 뜻인가, 이 선언이 곧 완성임을 나타내는가.
-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4. 성의 수치 — 12,000스다디온과 144규빗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 열두의 배수가 반복됨. 이것이 문자적 크기인가 상징 수치인가.
-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5. 24절 "만국"과 "땅의 왕들"은 누구인가?

-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24절).
- 새 하늘 새 땅 안에서 이들의 정체는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22절 "성전이 없음" — 성전 개념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공간.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심.
- 이 전환이 구약 성전 신학과 어떤 관계인지 본문이 직접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계시록 22장

REV-022 · 예언서(신약) · 헬라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potamos hydatos zōēs)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xylon zōēs)가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 다시 저주가 없고(22:3)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주 하나님이 비추신다."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22:17) — 그리고 응답:"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2:20). 성경 전체 구속사의 대미.

관찰된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묵시·환상·새 창조·서신 결말.
- 무대: 1~5절 — 새 예루살렘 내부(생명수 강·생명나무·보좌). 6~15절 — 예언의 증언·속히 오심 선언. 16~21절 — 최후 초대·응답·은혜의 축도.
- 핵심 소품: 생명수의 강(potamos hydatos zōēs)·생명나무(xylon zōēs)·달마다 열두 열매·만국을 치료하는 나뭇잎·저주 없음(katathema)·이마의 이름·복 선언들·알파와 오메가·다윗의 뿌리·새벽별·은혜.
- 핵심 인물: 하나님·어린양·천사·요한·예수·성령·신부·듣는 자·목마른 자·이기는 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으로 당겨오는 운동의 공기 — "속히 오리라"(7·12·20절) 세 번.
- 완성 묘사(1~5절)와 초대의 긴장(6~20절) 공존.
- 17절 성령과 신부의 "오라"가 세 겹으로 연쇄.
-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교환.
- 21절 은혜의 축도로 성경 전체가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 시작(생명수의 근원, 1절) → 초대와 응답(17·20절) → 끝(은혜의 축도, 21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하나님·어린양·천사·요한·예수·성령·신부·듣는 자·목마른 자·이기는 자·바깥의 자들.
- 상황: 완성된 새 예루살렘 내부(1~5절)→예언의 증언·속히 오심·복 선언(6~15절)→마지막 초대·응답·은혜의 축도(16~21절).
- 사상 핵: 다시 저주가 없음(3절). 그의 얼굴을 봄(4절). 속히 오리라(7·12·20절). 성령과 신부의 '오라'(17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0절). 은혜(21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새 예루살렘 내부 — 생명수의 강·생명나무·열두 열매·나뭇잎이 만국을 치료·저주 없음·보좌·얼굴을 봄·이마의 이름·밤 없음·영원한 왕 노릇.
- 컷 2 (6-15절): 예언의 증언·속히 오심 — 신실하고 참된 말씀·속히 오리라(7·12절)·경배 오류와 교정·인봉하지 말라·상태 지속·알파와 오메가·두루마기 빠는 자의 복·바깥의 자들.
- 컷 3 (16-21절): 마지막 초대와 응답 — 다윗의 뿌리·새벽별·성령과 신부의 '오라'·값없이 생명수·더하거나 빼는 자에 대한 선언·'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은혜의 축도.

6 — (1) 원어 카드

- potamos hydatos zōēs(ποταμὸς ὕδατος ζωῆς) — 생명수의 강. 1절.
- xylon zōēs(ξύλον ζωῆς) — 생명나무. 2절. 창 2:9(LXX xylon tēs zōēs)와 동일 계열 어휘.
- katathema(κατάθεμα) — 저주·저주받은 것.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 to prosopon autou(τὸ πρόσωπον αὐτοῦ) — 그의 얼굴. 4절.
- erchomai tachy(ἔρχομαι ταχύ) — 속히 오리라. 7·12·20절. 세 번 반복.
- makarios(μακάριος) — 복이 있는. 7·14절. 계시록의 일곱 복 선언 중 여섯·일곱 번째.
- alpha, ōmega(Ἄλφα, Ὠ) — 알파와 오메가. 13절.
- ho astēr ho lampros ho prōinos(ὁ ἀστὴρ ὁ λαμπρὸς ὁ πρωϊνός) — 빛나는 새벽별. 16절.
- pneuma(πνεῦμα) — 성령. 17절.
- nymphē(νύμφη) — 신부. 17절.
- hydōr zōēs dōrean(ὕδωρ ζωῆς δωρεάν) — 값없이 받는 생명수. 17절.
- prophēteia(προφητεία) — 예언·예언의 말씀. 7·10·18·19절.
- kairos(καιρός) — 때·적절한 시간. 10절. "때가 가까우니라".
- charis(χάρις) — 은혜. 21절. 마지막 단어.
- therapeia tōn ethnōn(θεραπεία τῶν ἐθνῶν) — 만국을 치료함. 2절.

6 — (2) 문학 구조

- 생명나무(2절) ↔ 창세기 2:9 에덴의 생명나무 — 수미상관 가능성(배경 자료로만).
- 저주 없음(3절) ↔ 창세기 3:17 땅의 저주 — 수미상관 가능성(배경 자료로만).
- erchomai tachy(속히 오리라) 세 번 반복(7·12·20절) — 강조 구조.
- 성령의 "오라"·신부의 "오라"·듣는 자의 "오라"·목마른 자의 "오라" — 연쇄 초대 구조(17절).
-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예수)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한) — 선언과 응답의 교환(20절).
- 일곱 복 선언의 마지막 두 개가 22장에 집중(7절·14절).
- 계 2~3장의 "교회들" ↔ 22:16 "교회들" — 계시록 안 수미상관.

6 — (3) 배경 정보 (해석 아님)

- 2절 xylon zōēs — 창세기 2:9(LXX)과 동일 어휘. 에스겔 47:12(강 좌우 나무·달마다 열매)와의 연결 가능성(배경 자료로만).

- 20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고린도전서 16:22의 아랍어 Maranatha(주여 오시옵소서)와 같은 정서 (배경 자료로만).
- 10절 인봉하지 말라 ↔ 다니엘 12:4 인봉하라 — 두 지시의 맥락 차이(배경 자료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계 22:2 ↔ 창 2:9(LXX) (생명나무, 배경 자료로만)
- 계 22:3 ↔ 창 3:17 (저주, 배경 자료로만)
- 계 22:4 ↔ 출 33:20 (하나님의 얼굴을 봄, 배경 자료로만)
- 계 22:5 ↔ 계 21:23 (해와 달이 쓸 데 없음·하나님이 빛이심 반복)
- 계 22:13 ↔ 계 1:8 (알파와 오메가 수미상관)
- 계 22:16 ↔ 계 2~3장 (교회들 수미상관)
- 계 22:14 ↔ 계 22:2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
- 계 22:19 ↔ 계 20:12·21:27 (생명책·생명나무 연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발원한다(1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두 가지 열매를 맺으며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한다(2절).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있으며 그의 종들이 섬긴다(3절).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4절). 밤이 없고 하나님이 비추시며 영원히 왕 노릇 한다(5절). 천사가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한다(6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7절).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지만 천사가 막는다(8~9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10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다(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12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13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 —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14절). 바깥에 개들·점술가들·음행자들·살인자들·우상숭배자들·거짓말하는 자들(15절).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다 —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16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고 듣는 자도 "오라" 하며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17절). 이 예언에 더하거나 제하는 자에 대한 선언이 있다(18~19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0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21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생명수의 강과 성경 마지막 응답"
- 초벌 부제: "생명나무·다시 저주가 없음·그의 얼굴을 봄·성령과 신부의 '오라'·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은혜의 축도 — 22장 성경 전체 구속사의 종착"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5개 기록: potamos hydatos zōēs·xylon zōēs·katathema·to prosopon autou·erchomai tachy·makarios·alpha·ōmega·ho astēr ho lampros ho prōinos·pneuma·nymphē·hydōr zōēs dōrean·prophēteia·kairos·chari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창세기 LXX 생명나무 어휘·Maranatha 배경·일곱 복 선언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기록)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3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생명나무와 창세기의 관계를 단정적 교리로 연결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배경 자료로만).
- "다시 저주가 없음"을 특정 신학적 도식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속히 오리라"의 "속히"를 시간적 근접성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 22:11 상태 지속 선언을 특정 교리 체계로 단정하지 않도록 →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과 강 좌우의 생명나무·다시 저주가 없음·그의 얼굴을 봄으로 새 예루살렘 내부를 먼저 보여주고(1~5절), "속히 오리라"와 복 선언과 예언의 증언으로 이어지며(6~15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의 세 겹 초대(17절)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에 대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응답(20절)으로 성경 전체를 닫는 마지막 장이다.

한 문단: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고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두 가지 열매를 맺으며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한다(1~2절). 다시 저주가 없고(3절)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4절) 영원히 왕노릇 한다(5절). "속히 오리라" 선언이 세 번 반복되고(7·12·20절) 복 선언이 두 번 나온다(7·14절). 요한의 경배 오류와 교정이 있고(8~9절) 인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다(10절). 예수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다(16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하고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가 주어진다고(17절). 예수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20절)고 선언하자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응답하고, 은혜의 축도로 성경이 닫힌다(21절).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생명수의 강·생명나무·저주 없음·그의 얼굴·이마의 이름·복 선언들·새벽별·은혜. 세 무대 — 내부(1-5)·증언(6-15)·초대·응답(16-21).
2 첫 느낌·분위기	완성 묘사와 초대의 긴장 공존. 속히 오리라(7·12·20) 세 번. 성령과 신부의 '오라' 세 겹. 마지막 교환.
3 시작과 끝	시작: 생명수의 강·보좌(1절). 끝: 은혜의 축도(21절). 중심: 성령과 신부의 '오라'(17절)·'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0절).
4 등장인물·상황·사상	하나님·어린이·예수·성령·신부. 핵심 사상: 다시 저주가 없음(3절)·얼굴을 봄(4절)·속히 오리라(7·12·20절)·값없이 생명수(17절)·응답(20절).
5 장면 컷	컷1 새 예루살렘 내부(1-5), 컷2 예언의 증언·속히 오심(6-15), 컷3 마지막 초대·응답·은혜(16-21).
6 의문·발견·정보	xylon zōēs와 창 2:9 연결. katathema와 창 3:17 연결. 인봉하지 말라 vs 단 12:4. 일곱 복 선언의 마지막 두 개. 미해결 6건.
7 동영상	생명수의 강→생명나무→다시 저주 없음→얼굴을 봄→속히 오리라·복 선언→성령과 신부의 오라→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은혜의 축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제: "생명나무·다시 저주가 없음·성령과 신부의 '오라'·성경 전체 구속사의 종착".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환 앞에 섬.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겹

- 결 1 — 생명나무가 돌아왔다:** 2절 강 좌우의 생명나무(xylon zōēs)와 14절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 — 창세기 3:24에서 사람이 생명나무에서 쫓겨난 이후, 22장에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가 선언된다. 에덴에서 닫혔던 문이 여기서 열리는 것처럼 관찰된다(두 본문의 직접 연결은 본문이 명시하지 않으므로 배경 자료로만).
- 결 2 — 다시 저주가 없다:** 3절 kai pan katathema ouk estai eti — 창세기 3:17에서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 이 선언이 나온다. 이것이 창세기의 저주를 가리키는지 본문이 직접 설명하지 않으나, 관찰로서 이 선언은 이 장에서 가장 간결하고 무거운 선언 중 하나이다.
- 결 3 —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다:** 17절 — 성령과 신부가 동시에 초대한다. REV flow heart — "신부를 맞으시는 신랑의 갈망('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22:17)"이 이 절에서 도달된다. 초대의 발신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새 예루살렘·교회)가 함께라는 것이 이 장에서 관찰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계 22:2·14 ↔ 계 2:7**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2:13 ↔ 계 1:8** (알파와 오메가 수미상관), **계 22:16 ↔ 계 2~3장** (교회들 수미상관), **계 22:5 ↔ 계 21:23** (하나님의 영광이 빛 반복).
- 다른 권 — 창 2:9(LXX xylon zōēs, 배경 자료로만), 창 3:17(저주, 배경 자료로만), 고전 16:22(Maranatha, 배경 자료로만).

- REV 흐름 — 22장은 REV destination의 내부를 보여주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22:17)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2:20)로 완성된다. 이것이 REV flow heart에서 도달되는 자리이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 그 강 앞에 선다.
- 멈춤 1: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 그 선언 앞에 멈춘다.
- 멈춤 2: 4절 "그의 얼굴을 볼 것ियो" — 그 선언 앞에 멈춘다.
- 멈춤 3: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 그 초대 앞에 멈춘다.
- 끝: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성경의 마지막 말 앞에 선다.

F· 자족성 점검

- [x]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1~2절)가 관찰됨
- [x] 다시 저주가 없음(3절)이 관찰됨
- [x] 그의 얼굴을 봄(4절)이 관찰됨
- [x] 속히 오리라(7·12·20절) 세 번이 관찰됨
- [x] 성령과 신부의 '오라'(17절)가 관찰됨
- [x]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와 은혜의 축도(20~21절)가 관찰됨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의 spine은 "죽임 당한 어린양의 승리로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교회를 끝까지 이기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이다. 22장은 그 spine의 완전한 종착 — REV destination("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1:5,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20)이 실제로 완성되는 자리이다.

더 넓게 보면, 22장은 성경 전체 구속사(창조→타락→구속→완성)의 대미이다. 창세기 1~2장(창조·에덴·생명나무·하나님과 동거·저주 없음)으로 시작한 성경이 22장에서 수미상관을 이룬다 — 창세기 2:9의 생명나무(xylon zōēs)가 22:2의 생명나무로 돌아오고(배경 자료로만), 창세기 3:17의 저주가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로 응답되며(배경 자료로만), 창세기 3:24에서 사람이 생명나무에서 쫓겨난 것이 22:14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로 응답된다(배경 자료로만). 이 장은 성경 전체 66권의 마지막 장으로, 요한계시록이자 성경 정경 전체의 종착이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 예루살렘 내부의 완성 묘사(1~5절) → "속히 오리라"와 예언의 증언(6~15절) → 성령과 신부의 "오라"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응답(16~20절) → 은혜의 축도(2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22장은 완성된 새 창조를 먼저 보여주고, 그 완성을 향해 "오라"와 "오시옵소서"의 초대와 응답으로 독자를 이끌어 가는 운동이다. REV spine에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목적지가 21장에서 열리고, 22장에서 그 안의 구체적 내용(생명수 강·생명나무·다시 저주 없음·얼굴을 봄)이 펼쳐지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응답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 66권의 운동 종착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생명수의 강·생명나무·복 선언·속히 오심 선언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의 의중 —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회복하시고 저주를 끝내시며 얼굴을 보이심으로 동거의 완성을 이루신

다는 것이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는 창세기 3장 이후 쌓인 모든 저주의 해제이고, 4절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는 가리워진 얼굴이 드러나는 회복이다.

심정 —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에서 REV flow heart — "신부를 맞으시는 신랑의 갈망"이 도달된다. 이 초대가 성령과 신부가 함께 발하고, 듣는 자가 연쇄하여 전달하는 구조가 이 장의 심정적 핵이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본문이 스스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22:17) — 성경 전체의 마지막 초대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22장은 독자를 3절(다시 저주가 없음 앞)에도, 4절(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앞)에도, 17절(성령과 신부의 '오라' 앞)에도, 20절("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앞)에도 세운다. REV spine에서 이 불씨는 고난받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최종 선물 — "값없이"(dōrean). 이 한 단어가 성경 전체 구속사의 대미에서 독자를 향해 발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다. 가져갈 한 단어가 아니라 — charis(은혜). 성경의 마지막 단어.

성경 전체의 종착을 미는 운동: 창세기의 에덴(창조)·창세기 3장(타락·저주·생명나무에서 쫓겨남)·구속사의 긴 여정·그리고 22장 — 생명수의 강·생명나무·다시 저주가 없음·그의 얼굴을 봄·"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은혜. 성경 전체가 이 종착을 향해 움직여 왔고 이 장에서 대미를 이룬다.

미해결 질문

요한계시록 22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2절 나뭇잎이 만국을 치료한다(therapeia tōn ethnōn)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21:4에서 이미 "다시는 아픔이 없다"고 선언했는데, 치료의 필요가 있는 만국이 새 창조 안에 있다는 표현.
- 이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4절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는 출애굽기 33:20과 어떤 관계인가?

- 출 33:20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와 22:4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의 관계.
-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3.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는 심판 이전인가 이후인가?

- 12절 "속히 오리니"와 이어지는데, 상태 고착 선언의 맥락이 불명확.
- 미해결로 보존.

Q4. "속히 오리라"(erchomai tachy, 7·12·20절)에서 "속히"(tachy)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시간적 근접성인가, 확실성의 강조인가, 다른 의미인가.
-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5. 생명나무(22:2)와 창세기 2:9의 에덴 생명나무는 동일한가?

- 동일한 헬라어 표현(xylon zōēs)이 사용됨.
-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6. 22: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누구인가?

-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리가 있음이라".
-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